

P 해외개발 review

Vol.17
2026
Summer

베트남 Vietnam Ver.2

국 가 개 요 | 최 근 동 향 | 사 업 여 건 | 주 요 제 도 | 개 발 사 례



P해외개발
review

P 해외개발 review

발행일 2026년 6월 30일

발행인 정창무

발행처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편집인 (총괄) 정연우
(편집위원) 송영일, 임주호, 신수민

34047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39번길 99
(대표번호) 042. 866. 8668 <https://lhri.lh.or.kr>

편집디자인 토마디자인스튜디오

I 국가개요 05

1. 국가개황
2. 정치·행정
3. 경제
4. 주요 사회개발지표
5. 한국과의 관계
6. 주요 정부기관 소개

II 최근동향 21

1. 정치·사회 동향
2. 경제 동향
3. 산업 동향
4. 도시개발 동향

III 사업여건 41

1. 인프라 여건
2. 투자 여건
3. 한국의 對베트남 수주현황
4. 對베트남 국제개발협력사업 현황

IV 주요제도 75

1.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 국가 정책
2. 도시개발 관련 제도
3. 투자유치 관련 제도

V 개발사례 101

1. 최근 베트남 진출 현황
2. 하노이 북부 스마트시티
(North Hanoi Smart City)
3. 베트남 흥옌성 클린산업단지
(한-베 경제협력 산업단지)

P 해외개발 review

국 가 개 요

국가개황

정치·행정

경제

주요 사회개발지표

한국과의 관계

주요 정부기관 소개

I 국가개요

01 국가개황

- 국명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 면적 : 33만 1,690km(한반도 약 1.5배)
- 위치 : 인도차이나반도에 위치한 국가
 - 인도차이나 반도의 동쪽에 위치하는 국가로 북쪽은 중국, 서쪽으로는 라오스 및 캄보디아와 접하고 있음
- 수도 : 하노이(Ha Noi, 河內)
 - 하노이는 3,359.84km 면적의 도시로, 베트남 리(Ly, 李)왕조의 수도였던 지역이며, 1945년 베트남 독립 이후 하노이가 다시 수도로 지정되었음
 - 하노이라는 명칭은 19세기 초 응웬(Nguyen, 阮) 왕조 시기에 개칭된 지명으로, 그 이전에는 탕롱(Thang Long, 昇龍), 동깡(Dong Kinh, 東京) 등으로 불림
- 인구 : 1억 234.5만명(2025년 기준, 베트남 통계총국)
 -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가 많고 기대수명이 늘어나 현재도 총 인구가 증가추세이나, 인구 성장률은 1950년대 2.5%에서 2015년 이후 1.0%로 점차 하락세임
 - 하노이 내 인구는 871.8만명이며(2025년 기준), 그 외 주요 도시의 인구는 호치민 945.7만명, 하이퐁 210.5만 명, 껀터 125.9만명, 다낭 124.5만 명 정도임
 - 베트남 민족은 현 정부가 공식적으로 54개 민족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중 비엣족(Ngi Vit, 킨족 Ngi Kinh)이 약 87%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그 외 타이족 1.9%, 타이족 1.9%, 응족 1.5% 등 53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됨
- 언어 : 베트남어(공용어)
 - 베트남어는 라틴어 로마자 29개의 알파벳으로 표기하며 6개 성조를 갖고 있음



베트남 국기



베트남 국장

○ 종교 : 공식적인 국교는 없으며 인정 종교는 16개

- 인구의 약 95%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으며, 대표 종교로는 불교(10%), 천주교(9%), 호아하오교(2%)가 있으며, 베트남 자생 종교인 까오다이교, 민간신앙 등이 존재

○ 기후 : 열대몬순기후

-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고 동쪽은 바다와 인접하여 지역별 기후차이가 크고, 북부는 4계절이 있는 몬순기후, 남부는 우기와 건기 2계절로 구분되는 열대몬순기후임
- 연평균 강수량은 1,400~2,400mm이며, 연간 강수량의 80~90%는 우기에 발생하고, 연간 평균습도는 약 80%에 달함

○ 지형 : 산악 지대와 고원 지대가 전체 면적의 3/4을 차지하며, 산맥은 북서쪽 국경에서부터 남쪽 동부 지역까지 이어져 총 길이 1,400km에 달함

- 베트남 내 모든 하천의 총 길이는 41,000km에 달하며, 총 유량은 약 3,000억 m³임

○헌법

- 베트남은 1945년 9월 2일 독립을 선언하고, 1946년 11월 베트남 의회가 최초로 헌법을 제정한 이후 1946년부터 2013년까지 총 5차례 헌법 제정
-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반한 사회주의 국가체제를 채택하며, 베트남 공산당의 일당 지도체제를 헌법에 명문화
- 국가 형태는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인민의 사회주의적 법치국가'로 규정(제2조 제1항) 경제 분야에서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여(제51조 제1항) 시장경제 요소를 부분적으로 수용
- 일당체제 : 베트남 공산당은 헌법상 국가의 유일한 영도세력(제4조)이며, 복수 정당제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음
- 민주집중제 : 입법·행정·사법권의 행사는 국가기관 간 배분·협조·통제에 따라 통일적으로 행사(제2조 제3항), 국회가 최고국가권력기관으로 기능
- 사법심사 부재 : 헌법재판소 또는 독립적 사법심사기관이 없으며, 법률의 헌법 합치 여부 심사 권한은 국회가 담당

○정부 구조 및 제도

- 일당제 사회주의 공화제
 - 베트남 공산당이 행정·군사·사법·입법·관료 기구 등 국가체제 전반을 통수하며, 헌법상 국가와 사회 영도의 유일 세력으로 규정됨
 - 5년마다 개최되는 전당대회(National Congress)가 국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당 정책 노선 결정 및 차기 지도부를 선출함
 - 2026년 제14차 전당대회 개최로 핵심 지도부 변경, 중앙정부 부처 통폐합, 행정구역 간소화 등 대규모 정치·행정적 변화 발생
- 행정부
 - 정부는 총리·부총리·장관 및 장관급 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국회의 집행기관이자 국가 최고 행정기관으로, 국회와 국가주석에 대해 책임을 지며 보고 의무를 가짐
 - 총리는 국가주석의 제청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되며, 부총리는 총리의 제청으로, 장관은 총리의 제안에 따라 국회 인준을 거쳐 임명됨
- 입법부
 - 국회(National Assembly)는 인민의 최고대표기관이자 최고국가권력기관으로, 헌법 및 입법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관이며 단원제로 구성

- 국회는 헌법·법률의 제정 및 개정, 국가주석·총리 등 주요 직위 인사권, 국가 예산 심의·확정, 국가 중요사항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지며, 국가주석·정부·법원 등 국가 전반에 대한 최고 감독권을 행사
- 단원제(unicameral)이며, 국회의원 정수는 500명, 임기는 5년임
- 사법부
 - 사법권은 인민법원에 있으며, 최고인민법원이 최고 사법기관임
 - 인민검찰청은 기소권 및 사법활동 감독권을 보유함
 - 공산당의 지도 아래 운영되며 사법부의 실질적 독립성이 미흡함
- 인권과 기본권 보호
 - '인권,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헌법 제2장에 규정하여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재산권, 환경권, 난민청구권 등 다수의 기본권 명문화
 - 2012년 아세안인권헌장의 영향을 받아 권리장전 형성에 반영함
- 지방 자치와 분권화
 - 지방정부는 2025년 헌법 개정과 행정 개편에 따라 지방정부의 제한적인 자치권을 확대
 - 지방자치 단위는 직할시 및 성(省, Tỉnh), 그 하위의 사(社, Xã)로 구성됨

○ 국가주석(State President)

- 국가주석의 임기 및 선출
 - 국가주석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국가원수로, 대내외적으로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을 대표함
 - 국가주석은 부통령(Vice President)의 보좌를 받으며, 부통령은 국가주석의 제청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됨
- 국가주석의 지위와 권한
 - 국군의 최고통수권자로서 국방안보위원회(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Council) 의장직을 겸임하며, 국회에서 채택한 헌법·법률·법령의 공포권을 가짐
 - 국가부주석·총리의 임명과 해임을 국회에 건의하며, 최고인민법원장·최고인민검찰청장직의 임명을 국회에 건의함

○ 중앙정부 : 2025년 2월 베트남 국회의 정부조직 개편 결의안에 따라, 베트남 정부 부처 및 장관급 기관은 기존 22개에서 17개로 축소

- 1986년 개혁·개방이라는 '도이머이(쇄신)' 정책 이후 최대 규모의 정부 개편임
- 경직된 구조 탈피와 정책 집행 속도 제고를 위하여 중앙 부처의 축소와 부처 간 중복 업무를 조정 및 하부 관료조직의 해체를 통해 보고체계를 단순화 함
- 특히 기획투자부를 재정부로, 교통운송부를 건설부로 흡수 또는 통합시키는 등 10개의 관련 부처를 5개 거대 부처로 통합하여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일원화하고, 유관 업무를 연계

- 부처 통폐합으로 공무원 약 2만 3천명의 감축 및 이를 통한 행정 비용 절감을 통해 미래 전략 산업의 투자 재원을 확보

[부처 개편 현황]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2025)

구분	개편·신설 부처명	통합 부처 및 대상 기구
통폐합	재정부	재정부+기획투자부
	건설부	건설부+교통운송부
	농업환경부	농업농촌개발부+자원환경부
	과학기술부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
	내무부	내무부+ 노동보훈사회부
신설	민족종교부	소수민족위원회(격상) + 종교사무(내무부 이관)
기존체제 유지	국방부,公安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무역부, 교육훈련부, 보건부, 문화체육관광부	-
장관급 기관	정부사무국, 정부감사원, 베트남 중앙은행	소수민족위원회(격상) / 종교 사무(내무부 이관)

○국회

- 베트남 국회는 단원제이며 50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기는 5년임
- 인민의 최고대표기관이자 최고국가권력기관으로 국가주석·총리·최고인민법원장 등 주요 국가 직위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있음
- 헌법 및 법률의 헌법 적합성 심사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함

○전당대회 : 5년마다 개최되는 국가 최고의 의사결정 행사이며, 당 정책 노선 결정 및 규약 등을 채택, 수정하고, 차기 지도부를 선출

- 2026년 제14차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 개최로 핵심 지도부의 변경, 중앙정부 부처 통폐합, 행정구역 간소화 등의 대규모 정치·행정적 변화 발생

○사법부

- 사법권은 인민법원(People's Courts)에 있으며, 최고인민법원(Supreme People's Court)이 최고사법기관으로서 법원 감독 및 사법적 분쟁의 최종심을 담당
- 최고인민법원장은 국가주석의 제청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해임되며, 부원장 및 판사는 법원장의 제청으로 국가주석이 임명
- 인민검찰청(People's Procuracy)은 기소권과 사법활동 감독권을 보유하는 별도 헌법기관으로, 사법부와 병렬적으로 운영되며 검찰총장은 국가주석의 제청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



서기장 (국가주석 겸직)
또럼
(To Lam)



총리
레밍흥
(Le Minh Hung)



국회의장
쩐타잉만
(Tran Thanh Man)



상임서기
쩐깜뚜
(Tran Cam Tu)

○ 국가 지도부 : 당 서기장, 국가주석, 총리, 국회의장, 상임서기가 베트남 정치의 핵심 지도부가 됨

- 최고 권력은 당서기장(국가주석 겸직) 또럼(To Lam)을 정점으로 하여, 총리 레밍흥(Le Minh Hung), 국회의장 쩐타잉만(Tran Thanh Man), 상임서기 쩐깜뚜(Tran Cam Tu)의 4인 지도부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베트남 권력구조의 핵심을 이루고 있음
- 2011년, 2016년에 이어 2021년 세 번째로 응우옌푸쑹(Nguyen Phu Trong) 당서기장이 재선출되며 장기 집권에 돌입하였으며, 국가주석 응우옌쑤언푹(Nguyen Xuan Phuc), 총리 팜민찐(Pham Minh Chinh), 국회의장 브엉딘후에(Vuong Dinh Hue)로 당 지도부가 구성되어 2026년까지 임기 수행 예정이었으나, 2023년 3월, 국가주석 응우옌쑤언푹의 자진 사임, 국가주석 후임인 보반쑤엥(Vo Van Thuong)이 2024년 3월 사임을 비롯해, 2024년 4월 국회의장 브엉딘후에가 부패 및 당규 위반으로 해임, 2024년 7월 응우옌푸쑹 당서기장의 별세로 지도부에 변화가 일어남
- 국회부의장직에 쩐탄먼(Tran Thanh Man)이 후임으로 임명되었고, 국가주석 으로는 또럼(To Lam)이 선출된 후 당서기장 응우옌푸쑹의 별세로 또럼이 당서기장직을 겸임
- 이후 2024년 10월 국가주석으로 르엉꾸엥(Luong Cuong)이 선출, 2025년 상임서기직을 신설하여 쩐깜뚜가 선출되고, 2026년 4월 베트남 국회에서 현재의 지도부가 확립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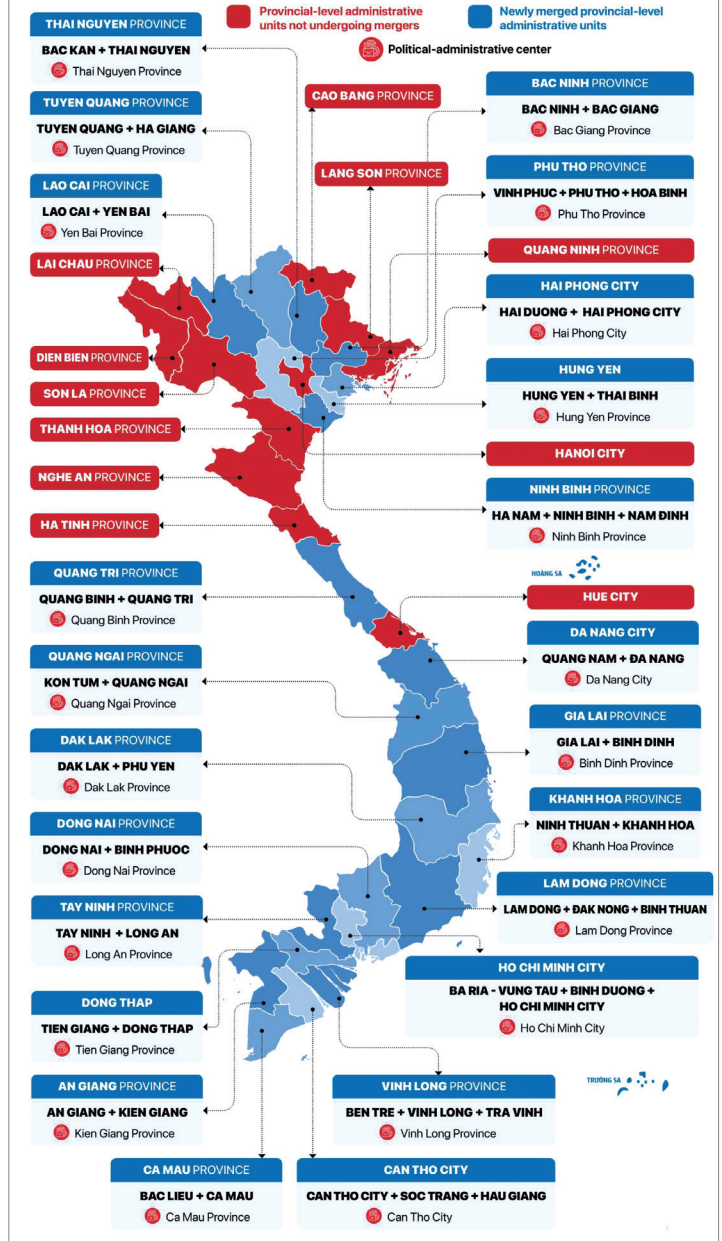
○ 지방자치 및 행정구역

- 행정구역 체계 : 지역 간 불균형 완화와 전략적 거점 중심 발전을 위해 성(省, Tỉnh)-사(社, Xã) 2단계 구조로 단순화 및 광역 단위 통합 추진
- 기존 광역 단위(중앙직할시·성)-중간 단위(군·현·시사)-기초 단위(시·진·사방)의 3단계 구조에서 중간 단위를 폐지하여 2단계 구조로 단순화

- 행정구역 :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줄이고 중앙의 정책적 결정이 하단으로 빨리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행정구역을 축소함
- 전국 63개 성을 28개 성과 6개 중앙직할시로 통합하고, 기초 행정단위인 사를 기존 10,035개에서 1/3 수준인 3,321개로 대폭 축소하였음
- 성, 사의 축소, 현(縣, Huyện)의 폐지 및 기능 이관을 통해 조직의 정예화와 비대해진 공무원 및 관련 인력 감축을 통한 재정 건정성 확보,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목표로 함
- 내륙-해안 성을 통합하여 전체 성 중 해안 성의 비율이 62%로 증가하였고, 23개 해안성이 항구를 보유하게 됨

[베트남 광역 행정구역 현황(인구수 순)] 출처 : KOTRA(2025)

광역 행정구역(성)	통합 이전 행정구역(현)	행정중심지
호치민(Ho Chi Minh)	바리아-붕따우(Ba Rai-Vung Tau)+빈중(Binh Duong)+호치민(HCMC)	호치민
하노이(Ha Noi)	-	-
안지앙(An Giang)	끼엔지앙(Kien Giang)+안지앙(An Giang)	끼엔지앙
하이퐁(Hai Phong)	하이즈엉(Hai Duong)+하이퐁(Hai Phong)	하이퐁
동나이(Dong Nai)	빈프억(Binh Phuoc)+동나이(Dong Nai)	동나이
닌빈(Ninh Binh)	하남(Ha Nam)+남딘(Nam Dinh)+닌빈(Ninh Binh)	닌빈
동탑(Dong Thap)	띠엔지앙(Tien Giang)+동탑(Dong Thap)	띠엔지앙
타잉호아(Thanh Hoa)	-	-
빈롱(Vinh Long)	벤째(Ben Tre)+짜빈(Tra Vinh)+빈롱(Vinh Long)	빈롱
견터(Can Tho)	속짱(Soc Trang)+허우지앙(Hau Giang)+견터(Can Tho)	견터
푸터(Phu Tho)	화빈(Hoa Binh)+빈푹(Vinh Phuc)+푸터(Phu Tho)	푸터
럼둥(Lam Dong)	닥농(Dak Nong)+빈투언(Binh Thuan)+럼둥(Lam Dong)	럼둥
응에안(Nghe An)	-	-
박닌(Bac Ninh)	박장(Bac Giang)+박닌(Bac Ninh)	박장
자라이(Gia Lai)	빈딘(Binh Dinh)+자라이(Gia Lai)	빈딘
흥옌(Hung Yen)	타이빈(Thai Binh)+흥옌(Hung Yen)	흥옌
닥락(Dak Lak)	푸옌(Phu Yen)+닥락(Dak Lak)	닥락
떠이닌(Tay Ninh)	롱안(Long An)+떠이닌(Tay Ninh)	롱안
다낭(Da Nang)	광남(Quang Nam)+다낭(Da Nang)	다낭
까마우(Ca Mau)	박리에우(Bac Lieu)+까마우(Ca Mau)	까마우
카인호아(Khanh Hoa)	닌투언(Ninh Thuan)+카인호아(Khanh Hoa)	카인호아
광응아이(Quang Ngai)	꼰툼(Kon Tum)+광응아이(Quang Ngai)	광응아이
광찌(Quang Tri)	광빈(Quang Binh)+광찌(Quang Tri)	광빈
뚜옌광(Tuyen Quang)	하지앙(Ha Giang)+뚜옌광(Tuyen Quang)	뚜옌광
타이응우옌(Thai Nguyen)	박칸(Bac Kan)+타이응우옌(Thai Nguyen)	타이응우옌
라오까이(Lao Cai)	이엔바이(Yen Bai)+라오까이(Lao Cai)	이엔바이
하띤(Ha Tinh)	-	-
광닌(Quang Ninh)	-	-
후에(Hue)	-	-
선라(Son La)	-	-
디엔비엔(Dien Bien)	-	-
까오방(cao Bang)	-	-
랑선(Lang Son)	-	-
라이쩌우(Lai Chau)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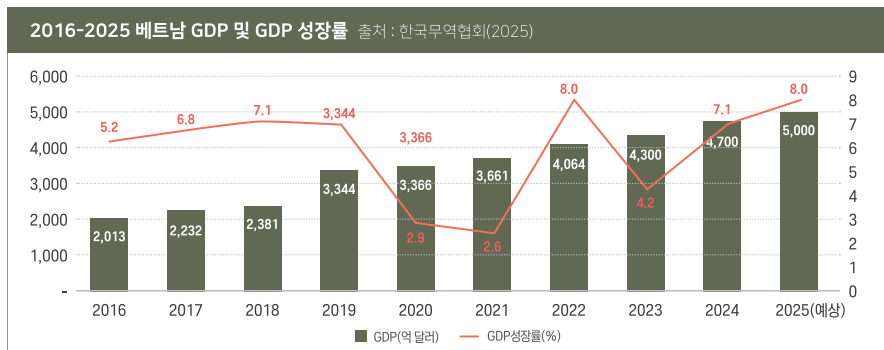


○경제성장

- GDP : 5,140억 달러, 2025
- 2025년의 경제성장률은 미국의 보호무역 관세 정책 시행 전 전자제품, 가구, 신발 등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의 선제적 물량 확대로 전년대비 8.02%를 달성하였으며, 가공 및 제조업 부문에 FDI 대거 유입과 물가 안정, 서비스업 회복세도 높은 성장률을 뒷받침함
- 산업·건설부문은 8.95% 증가하여 전체 성장의 43.62%를, 서비스업은 8.62% 증가하여 전체 성장의 81.08%를 담당
- 1인당 GDP : 5,026달러, 2025

○물가 및 재정

- 소비자물가상승률 : 3.3%(2025)
- 유류 수입 관세 0%로 인하와 유가 안정화 기금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함으로써 생산 및 물류비용 상승을 차단함
- 식료품 공급 여건 개선, 공공요금 인상 시기 분산 기준금리 유지 등으로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여 중앙은행(SBV)의 통제 목표치 4.5%보다 실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더 낮게 관리함
- 재정수지/GDP(%)는 2025년 6.7%의 흑자로 추정되며, 3년 연속 6%대 흑자 달성
- 2023년 6.0%, 2024년 6.6%
- 주요 품목의 글로벌 수요 회복으로 2025년 상품 수출액이 약 4,478억 달러로 무역 수지 흑자를 견인하였고, 해외 관광객이 2,120만 명에 달하며 서비스수지 적자 폭이 완화된



○ 화폐단위 : 동(Dong, VND)

- 환율 : 1USD=26,330.42VND, 1KRW=17.48VND (2026.05.21.)

○ 국제신인도 : OCED 4등급, Moody's Ba2, Fitch BB+

- 총외채잔액의 73.6%가 중장기 채무로 구성되어 양호한 외채구조이며, 연체금액 없이 채부상환태도도 양호함
- 국제신용평가 3사 모두 종전 평가등급과 같은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S&P와 Fitch는 전망을 '안정적(Stable)'으로, Moody's에서는 '긍정적(Positive)'으로 평가함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25)

평가기관	최근 평가등급	종전 평가등급
OECD	4등급(2024.06)	4등급(2023.06)
Moody's	Ba2(2024.09)	Ba2(2022.08)
Fitch	BB+(2024.06)	BB+(2023.12)

○ 산업구조

- GDP 구성비중 : 농림수산 부문 11.64%, 산업·건설 부문 37.65%, 서비스 부문 42.75% (2025)
- 전통적으로 1차 산업이 발달하였으나, 최근 제조업,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
- 메콩델타 지역을 중심으로 1차 산업이 발달해있으며 벼 생산량 및 해산물 등이 풍부하고, 베트남 대기업 대부분 1차 산업에서 얻은 것을 가공하는 사업 영역을 보유하고 있음
- 2차 산업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 등 해외기업 투자와 함께 발전해 왔으며, 초기 의복 중심의 경공업에서 전기·전자 조립 산업 중심으로 변화해옴

○ 무역

- 경상수지 : 33,292(백만달러, 2025°)
- 상품수지 : 56,049(백만달러, 2025°)
- 상품수출 : 447,817(백만달러, 2025°)
- 상품수입 : 391,768(백만달러, 2025°)
- 주요 수출입 품목
 - (수출) 전자제품 및 부품, 기계장비 및 부품, 섬유·직물제품, 신발류
 - (수입) 전자제품 및 부품, 기계장비 및 부품, 원단, 플라스틱 원료
- 주요 부존자원 : 희토류, 보크사이트, 텅스텐, 니켈 등

04 주요 사회개발지표

인구와 보건	
중위 연령 (Median Age)	• 33.4세 (2025)
인구구조	Male Female 출처 : populationpyramid.net • 0~14세(11.2%) • 15~64세(78.7%) • 65세 이상(10.0%) (2023)
출생률	• 1,000명당 13.7명 (2025 추정)
사망률	• 1,000명당 6.1명(2025 추정) • 임산부 및 유아 사망률 - (임산부) 100,000명당 47.6명 (2023) - (유아) 1,000명당 20.43명 (2022)
건강부문 지출	• GDP대비 4.59% (185억 달러, 2022)
의사 밀도	• 10,000명당 11.07명 (2022)
비만을	• 성인 비만을 : 2.0% (2022) • 어린이 및 청소년 비만을 : 6.3%(2022)
알콜 및 담배 소비	• 알콜소비량 : 1인당 10.57l (2020) • 흡연율 : 21.7% (2022)

출처 : WHO(검색일자: 2026.06.10.)와 GLOVAL ANGLE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인적자원과 교육	
교육부문 지출	• 정부 지출 대비 교육 지출 총액 : 15.4% (2022)
교육제도	• 취학연령은 만6~7세이며, 12년제 학제를 기본으로 함 - 초등 : 1~5학년, 교육기간 5년 - 중등 : 6~9학년, 교육기간 4년 - 고등 : 10~12학년, 교육기간 3년 • 고등학교 졸업시험 필수 2개 과목(문학, 수학)과 진로 관련 선택 2개 과목(9개 중 선택) 시행하는 2+2 모델 2025년 신규 시행
식자율	• 15세 이상 인구 대비 96.0% (2022) - 남성 97.0%, 여성 95.0%
노동 및 산업	• GDP 비중 : 서비스 부문 51.08%, 산업 및 건설 부문 43.62%, 농림수산 부문 5.30% (2025) • 근로 가능 인구 전체 실업률 : 2.22% (2025) • 15~24세 청년 실업률 : 9.04%(남성 8.3%, 여성 12.1%, 2025)

출처 : 베트남 통계청, World Bank, KOTRA(2025), 위키피디아(검색일자: 2026.06.10.)를 참고하여 작성

도시화	
도시화율	• 39.48% (2023 추정) • 도시화율 증감 : 총 7% 증가 (2012~2022 추정)
주요 도시	• 하노이, 호치민, 하이퐁, 다낭, 켄터, 후에, 동나이

출처 : Statista(검색일자: 2026.06.10.), 주베트남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에너지	
전력	• 베트남 내 전력 생산량 : 274,016GWh (2023) • 전력소비 : 2,806억kWh (2023) - 1인 당 전력 소비량 : 2,585kWh (2023) • 전기사용 인구 비율 : 전체 인구의 99.8% (2023) • 전력생산 :
석유	• 602,000배럴 (2023)
천연가스	• 72억m (2023)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CO ² 배출량	• 292.879MtCO2 (2023)

출처 : World Bank 홈페이지, 국제에너지기구(IEA) 홈페이지, Statista(검색일자: 2026.06.10.)를 참고하여 작성

통신과 커뮤니케이션	
전화	• 유선전화 가입자 수 : 100명 당 23.71명(2024) • 이동통신 가입자 수 : 100명 당 128명(2024)
방송 및 언론	• 베트남에서 두 번째로 큰 국영 방송국 VTC의 13개 채널을 비롯해 보이스오브베트남(VOV) TV, 공산당 기관지 년전(인민) 산하 년전TV, 베트남통신사 산하 VNA TV 등 수십 개 방송 송출 중단 • 베트남 최대 방송국인 국영 VTV가 기능 및 업무 분담
인터넷	• 인터넷 이용자 : 전체 인구의 84.0%(2024) • 국가도메인 : .vn

출처 : World Bank, 한국일보(25.01.17)를 참고하여 작성

외교관계 및 주요협정		
외교관계 수립	• 1992.12.22. 정식 수교 체결 및 베트남 내 상주 대사관 설치(북한과는 1950.01.30. 수교)	
주요 체결협정	• 경제기술협력협정(1993) • 무역협정(1993) • 투자보장협정(1993) • 항공협정(1993) • 이종과세방지협정(1994) • 과학기술협정(1995) • 대외경제협력기금협정(1995) • 원자력협정(1997) • 사증면제협정(1999)	• 기술협력협정(2005) • 무상원조협정(2009) • FTA(자유무역협정)(2015) • 수형자이송조약(2009) •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2021) •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2022) •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2023) • 한-베트남 2024~2030 EDCF차관 기본약정(2023) • 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 (2024)

출처 : KOTRA(2025),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재가공

무역 및 교류 현황	
교역규모	• 對베트남 교역규모 : 총 945.4억 달러(2025, 한국수출입은행) - 수출 : 627.7억 달러 - 수입 : 317.7억 달러
주요 교역품목	• (수출)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부품 • (수입) 무선통신기기 부품, 의류, 신발
투자교류	• 對베트남 투자 : 신규법인 330개, 27.6억 달러 (2024) - 누적건수 : 신규법인 9,149개, 투자금액 404.7억 달러 (2025. 6. 누계기준)
교민수	• 베트남 내 한국인 : 192,683(2024년말 기준, 재외동포청) • 한국 내 베트남인 : 337,183명(2025년말 기준, 법무부)
ODA	• 총 27.3억 달러(2024년까지 누계 기준, OECD) - 무상원조 : 9.2억 달러(2024년 당해연도 7,030만 달러) - 유상원조 : 18.1억 달러(2024년 당해연도 6,360만 달러)

출처 :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한국수출입은행 국가별통합정보를 참고하여 작성

주요 공휴일	
• 베트남의 공휴일은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국경일과 절기에 따른 명절이 주를 이룸	
• 주요 공휴일	
- 1월 1일 : 신년	
- 음력 12월 31일 ~ 1월 5일 : 텃(Tet Holiday, 음력 설)	
- 음력 3월 10일 : 흥부영 왕 추모 기념일(Hung Kings Commemoration Day)	
- 4월 30일 : 통일기념일(Reunification Day)	
- 5월 1일 : 노동절(International Labor Day)	
- 9월 2일 : 독립기념일(National Day)	

출처 :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정부기관

- 베트남 정부 <https://vietnam.gov.vn>
- 베트남공산당 <http://www.dangcongsan.vn>
- 베트남 국가주석 <http://vpctn.gov.vn>
- 국회 <http://www.quochoi.vn>
- 국방부 <http://mod.gov.vn>
- 公安부 <http://bocongan.gov.vn>
- 외교부 <http://mofa.gov.vn>
- 내무부 <http://moha.gov.vn>
- 법무부 <http://moj.gov.vn>
- 재무부 <http://mof.gov.vn>
- 산업무역부 <http://moit.gov.vn>
- 농업환경부 <http://mae.gov.vn>
- 건설부 <http://moc.gov.vn>
- 문화체육관광부 <http://bvhttdl.gov.vn>
- 과학기술부 <http://mst.gov.vn>
- 교육훈련부 <http://moet.gov.vn>
- 보건부 <http://moh.gov.vn>
- 민족종교부 <http://cema.gov.vn>

위원회 및 산하기관, 연구소 등

- 정부사무처 <http://vccp.chinhphu.vn>
- 중앙은행 <http://sbv.gov.vn>
- 감사원 <http://thanhtra.gov.vn>
- 상공회의소 <http://vcci.com.vn>
- 베트남 사회과학원 <http://vass.gov.vn>
- 베트남 과학기술원 <http://vast.ac.vn>
- 중앙경제관리원 <http://ciem.org.vn>
- 베트남개발전략연구원 <http://vids.mpi.gob.vn>
- 베트남도시농촌연구소 <http://viup.vn>
- 다낭사회경제 개발연구원 <http://dised.vn>

[참고문헌]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6, 오늘의 세계경제 - 2026년 세계경제 전망(업데이트), 26(13).
- » 한국무역협회, 2025, 베트남 2025년 평가 및 2026년 전망.
- » 한국수출입은행, 2026, 이슈보고서-베트남의 정부 조직 및 행정구역 개혁의 배경과 주요 내용, vol.2026-지역이슈-1.
-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25,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베트남)」
- » 외교부, 2026, 베트남 약황.
- » KOTRA, 2025, 2026 베트남 진출 전략.
- » KOTRA, 2025, 2026 해외출장가이드
- » 여경수, 2025, 베트남 헌법의 특성과 체계, 법학논총, 32(1).
- » 연합뉴스, 2026.04.07., 베트남 럼 서기장, 국가주석도 겸직...‘시진핑급 막강 권한’(종합)
- » 한국일보, 2026.01.17., 주요방송 채널 줄줄이 중단시킨 베트남...언론통제 가속?
- » 베트남 정부포털, <https://vietnam.gov.vn/>
- » UNFPA, <https://www.unfpa.org/data/world-population/VN>
- » Global Angle, <https://global-angle.com/foreign-investing-in-vietnams-healthcare-future-trends-and-opportunities/>
- » Statista,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
- » 한국무역협회, <https://www.kita.net>
- »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https://vn.mofa.go.kr/vn-ko/index.do>
- » KOTRA 국가정보- 베트남,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com/index.do?MENU_ID=220
- » 위키피디아, “베트남”, <https://w.wiki/RZUx>



최근 동향



정치·사회 동향

경제 동향

산업 동향

도시개발 동향



II 최근동향

01 정치·사회 동향

정치 동향

○ 권력 집중의 가속화: 또렘(To Lam) 당서기장의 재선임과 권력 통합

- 2026년 1월 개최된 베트남공산당 제14차 전당대회에서 또렘 당서기장이 만장일치(180표 중 180표)로 재선임되어 향후 5년간 베트남을 이끌게 됨
- 2024년 7월 응우옌푸쑹(Nguyen Phu Trong) 전 서기장 사망 이후 권력을 승계받은 또렘이 약 18개월 만에 자신의 권력 기반을 공식화함
- 당대회는 베트남이 2030년 중·고소득국 진입, 2045년 고소득 사회주의 국가 달성을 위한 '신시대(new era of national rise)' 진입을 선언함
- 또렘은 2026년 4월 국회로부터 국가주석직에 만장일치로 추대되어, 호치민 이후 처음으로 당서기장과 국가주석을 영구적으로 겸직하는 인물이 됨
- 이번 권력 통합은 종전 베트남식 4주체(서기장·국가주석·총리·국회의장) 집단지도체제에서 벗어나, 1인 통합 지도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함
- 당서기장과 국가주석 직책의 공식적 통합에는 외교 프로토콜 단일화 및 정책 결정의 신속성 제고와 권위주의 강화라는 양면적 평가가 공존함

○ 간소화 혁명: 행정·인력 대개혁 단행

- 또렘 서기장은 2024년 12월 연설에서 부처 통폐합·국가기관 슬림화·당기관 재편을 핵심 골자로 하는 대대적 행정개혁을 발표한 바 있음
- 정부 부처를 30개에서 22개로 축소하고, 8개 부처·정부기관을 폐지하였으며, 약 15만 개의 공직(공무원·계약직)을 감축함
- 이는 1986년 도이머이(Doi Moi) 이래 가장 광범위한 관료개혁으로, 종전 응우옌푸쑹 시기의 점진적 개혁 기초에서 급진적 개혁 기초로 전환된 것임
- 2025년 7월에는 63개 중앙직할시·성을 34개(28개 성+6개 중앙직할시)로 통폐합하고, 3단계(성-현-사) 행정체계에서 중간층인 '현'급 행정단위를 폐지하고 2단계(성-사) 행정체계로 단순화함

○ 실용주의적 경제 총력전: 성장과 디지털 혁신

- 베트남 지도부는 권력 안정화를 바탕으로 '연평균 GDP 성장률 10% 달성'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실용주의적 경제 성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2026년 제14차 당대회와 총선을 거쳐 출범한 새 지도부는 '개혁의 국면'에서 '성장 중심의 관리 국면'으로 전환하고, 2030년 중상위 소득국 진입을 위한 공격적인 경제성장 로드맵을 확정함
- 남북 고속철도 및 원자력 발전소 건설 등 초대형 국책 인프라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친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공급망 허브를 구축함
- 과거의 캠페인성 반부패 운동에서 벗어나, 과학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국가 발전의 새로운 핵심 동력으로 삼고 법제화를 가속화함
- 토렴 서기장 체제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국가 통치 구조개혁의 핵심 축으로 규정하고, 관련 투자법 및 규제 완화를 신속히 단행함
- 공간·안보 엘리트 중심의 안정된 정치적 환경을 역이용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높은 정책 예측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하이테크 및 디지털 산업 유치 경쟁력을 극대화함

외교 동향

○ '대나무 외교(Bamboo Diplomacy)'와 균형 잡힌 다원적 외교

- 베트남은 응우옌푸푹 전 서기장이 2016~2021년에 정립한 '대나무 외교' 원칙에 따라, 강대국 간 균형 유지 속에서 자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외교를 지속함
- '대나무 외교'는 강한 뿌리(원칙)와 단단한 줄기(국익), 유연한 가지(전술적 적응성)를 상징하며, '4불(不) 원칙(no military alliance, no taking sides, no foreign bases, no use of force)'을 핵심으로 함
- 이를 통해 베트남은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도 양국 모두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며, EU·러시아·일본·한국·인도 등과의 다원적 협력을 강화함
- 베트남은 2023년 9월 바이든 대통령 방문 시 미국과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여, 단번에 2단계를 건너뛰 이례적 격상을 단행함
- 이는 1995년 수교 이래 28년 만의 최고 단계 격상으로, 반도체·핵심광물·디지털 등 첨단산업 협력 강화를 합의함
- 동시에 일본, 호주, 말레이시아, 프랑스,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과도 잇따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며 외교 다변화를 가속화함

○ 중국과의 관계 심화 및 남중국해 분쟁 관리

- 베트남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경제·정치적 통합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2025년 양국 교역액은 2,564억 달러로 전년 대비 25% 증가하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 2025년 4월 시진핑 주석의 베트남 방문 시 양국은 공급망·인공지능·해상공동순찰·철도건설 등 45건의 협력문서를 체결하며, 80억 달러 규모 라오까이-하이퐁 표준궤 철도 건설에 합의함
- 동 철도는 '일대일로'의 일환으로 중국 운남성과 베트남 북부를 연결하여 베트남의 대중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동시에 해상운송 의존도를 낮추는 양면적 효과가 기대됨
- 그러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으며, 베트남은 외교적 압박과 점진적 군사 강화로 대응함
- 2024~25년 베트남은 스프래틀리(Spratly) 군도에서 자국 점유 도서의 인공섬 매립·시설 확장을 가속화하였으며, 중국은 이에 대해 공식 항의를 표명함
- 베트남은 ASEAN의 '남중국해 행동수칙' 협상을 통해 다자 해결을 모색하면서, 동시에 미국·일본·필리핀과의 해양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균형전략을 추진함
- 2026년 4월 또럼 주석은 첫 해외순방국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가지며, '3+3' 전략대화 메커니즘 등 양국 안보협력 제도화를 진전시킴
- '3+3' 대화는 외교부·국방부·공안부 장관급 3자 회담으로, 색깔혁명(color revolution) 대응 등 체제안보 협력을 제도화하며, 이는 베트남의 대중 의존을 구조적으로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음

○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협상

- 2025년 4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일환으로 베트남산 수출품에 46%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90일 유예 후 무역협상 합의에 도달함
- 합의 내용에 따라 미국은 베트남산 수출품에 일률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환적 의심 품목에는 4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며, 베트남은 미국산 수입품에 0%(무관세) 시장개방을 약속함
- 2025년 10월 양국은 '상호적·공정한 균형 무역에 관한 협정 프레임워크'에 정식으로 서명함
- 베트남은 미국과의 전략·안보 협력도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음
- 미국 해안경비대 패트롤 보트가 베트남에 공여되어 남중국해 해상감시에 투입되고 있으며, 양국 간 합동훈련도 정례화되고 있음
- F-16 전투기 구매 검토 등 군수협력 논의가 진행 중이나, 베트남의 전통적인 '4불 원칙'으로 인해 실제 동맹화 수준의 협력은 신중히 관리되고 있음

○ 한국과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

- 베트남과 한국은 1992년 수교 이후 33년간 전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켜 왔으며, 2022년 12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함

- 양국 관계는 2001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2009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2022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단계적으로 발전하였으며, 한국은 베트남의 첫 중견국 포괄적 전략 동반자임
- 2025년 8월 이재명 대통령과 토름 서기장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2030년까지 양국 교역 1,500억 달러 달성 목표를 재확인하고, 양국관계를 '확대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함
- 2024년 양국 교역규모는 약 867억 달러로 한국은 베트남의 3대 교역대상국이며, 베트남은 한국의 3대 수출시장임
- 2015년 발효된 한-베트남 FTA(VKFTA)를 통해 양국 교역은 지속 성장 중이며,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은 컴퓨터·전자부품을 중심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누적 외국인 투자국으로, 2025년 3월 기준 10,152개 프로젝트, 924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베트남 전체 수출의 약 30%를 한국계 기업(삼성·LG 등)이 주도함
- 베트남 거주 한국인은 약 17만 명, 한국 거주 베트남인은 약 30만 명으로 양국 간 인적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베트남은 한국의 ODA 최대 수원국 중 하나로, 양국 간 문화·교육·관광 교류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다자외교 및 국제협력 확대

- 베트남은 ASEAN, UN, APEC, RCEP, CPTPP 등 다자무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견국' 외교를 전개하고 있음
- 베트남은 2020년 ASEAN 의장국에 이어, 2025년에도 ASEAN 내 적극적 의제 주도국으로 활동하며, 남중국해 행동수칙 협상, ASEAN 중심성 강화를 주창함
-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2020~2021) 활동을 통해 다자주의를 강화하였으며, 2023~2025 UN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 중임
- 베트남은 EU, 영국, 인도, 중동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17개 FTA(50개국 이상)를 보유한 동남아 최대 FTA 보유국으로 부상함
- 2020년 8월 발효된 EU-베트남 FTA(EVFTA)를 통해 2025년 베트남의 대EU 무역흑자는 약 386억 달러에 달함
- CPTPP(11개국)·RCEP(15개국) 등 메가 FTA를 통해 베트남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핵심 수혜국으로 자리매김함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분쟁에서는 '대나무 외교'의 유연성을 발휘하여 어느 쪽에도 명시적 편들기를 회피함
- UN 안보리에서 러시아 규탄 결의안 등에 기권하며 전통적 우호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 진행 등 다중 채널을 운영함

주요 경제 지표

[베트남의 주요 경제지표 (2020~2024)] 출처 : KOTRA(2026)

지표	단위	2020	2021	2022	2023	2024
명목GDP	십억 달러	346.6	369.7	406.5	429.2	476.3
1인당 명목GDP	달러	3,548	3,753	4,087	4,341	4,711
경제성장률	%	2.9	2.6	8.0	5.1	7.1
실업률	%	3.3	3.2	2.3	2.3	2.2
물가상승률	%	3.2	1.8	3.1	4.2	3.6
정부부채 (GDP대비)	%	41.3	39.3	37.1	36.1	33.5
총수출	백만 달러	282,629	336,310	371,304	355,500	405,532
총수입	백만 달러	262,691	332,230	358,902	327,500	380,764
무역수지	백만 달러	19,938	4,080	12,402	28,000	24,768
환율(연평균)	현지화페/ 달러	23,200	23,160	23,271	23,787	24,170
이자율	%	4.0	4.0	6.0	4.5	4.5

국내 경제·정책 동향

○ 수출 및 제조업 중심의 견조한 성장세 지속

- 베트남 경제는 2024년에 7.1%의 견조한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25년 1분기에도 7.5%의 고성장을 이어가는 등 동남아 최대 성장률을 유지함
- 2024년 경제성장률은 2023년 대비 2.0%p 상승하였으며, 1인당 GDP는 4,711달러로 전년 대비 370달러 상승함
- 세계은행(WB)은 2026년 5월 보고서에서 경제성장률을 2026년 6.8%, 2027년 7.1%로 전망하였으며, IMF는 2026년 4월 보고서에서 2026년 7.1%, 2027년 6.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베트남 정부는 2026년 두 자릿수 성장(10%) 목표를 야심차게 제시하며, 2026~2030년 연평균 10% 이상의 고성장을 통한 신시대 진입 비전을 천명함
- 또렷 서기장은 2026년 1월 제14차 전당대회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10% 이상 성장을 통해 중·고소득국에 진입하고, 2045년까지 고소득 사회주의 국가 달성'을 공약함
- 국제기구의 전망치(6~7%)와는 큰 격차가 있어, 공공투자 가속화·민간투자 확대·신용 확대·구조개혁 등 강력한 부양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대미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 글로벌 무역 마찰, 부동산·금융 부문 취약성이 주요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음
- 미국의 베트남산 수출품 20% 관세 부과(2025.7~)는 단기적으로 의류·신발·가전 등 노동집약 산업의 마진 압박을 초래하나, 베트남 정부와 기업은 미국 외 시장 다변화로 대응 중임
- 2024년 사이공상업은행(SCB) 부실 처리 등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이 드러났으며, 이와 관련 IMF는 2025년 6월 협의에서 거시안정성 강화와 금융감독 개선을 권고함

○ 물가 안정과 통화정책의 신중한 운용

- 베트남은 2024년 연평균 인플레이션 3.6%를 기록하여 목표치(4~4.5%)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에도 유사한 안정세를 유지함
- 핵심물가(식품·에너지 제외)는 2024년 2.7%로 더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임금 인상과 일부 행정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관리됨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대외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충격, 통화가치 약세로 2026년 인플레이션이 4.0%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기준금리 4.5%(2024년 말 기준)를 유지하면서, 신용 증가율 14~15% 목표로 완화적 통화정책을 운용함
- IMF는 신용 증가율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부동산·기업부채 위험이 누적되고 있음을 지적함
- 환율은 2025년 들어 USD 강세에 따라 동(VND) 가치가 하락압박을 받았으나, 외환개입과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대외경제 동향

○ 수출 다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수혜국

- 베트남 경제는 무역 의존도가 GDP의 약 170%에 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방경제이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China+1 전략)의 핵심 수혜국으로 부상함
- 미·중 무역갈등 이후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외 생산기지로 베트남을 선택하면서, 베트남은 동남아 최대 제조업 허브로 성장함
- 주요 수출품인 전자제품·기계·섬유·신발·농산물은 미국·EU·중국·한국·일본 등 다변화된 시장으로 수출됨
- 2024년 베트남의 총수출은 4,055억 달러, 총수입은 3,808억 달러로 247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며 9년 연속 흑자를 이어감

01 글로벌 기업들이 미중 패권전쟁 및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중국 외에 추가로 제3국에 또 다른 생산거점을 확보하는 공급망 다변화 전략

- 수출 증가율은 14.3%로 강력한 반등을 보였으며, 외국인투자(FDI) 기업의 수출 비중이 약 71%(원유 포함)로 절대적임
- 2024년 가장 빠르게 증가한 수출 시장은 UAE(+40%), 홍콩(+28.6%), 네덜란드(+26.5%), 폴란드(+24.3%), 미국(+23.1%) 순임

○ 주요 교역대상국 및 핵심 무역구조

- 미국은 베트남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2024년 대미 수출액은 약 1,200억 달러(전체 수출의 약 30%)를 차지함
- 미국에 대한 주요 수출품은 전자제품·컴퓨터·의류·신발·가구·기계 등이며, 2024년 대미 무역흑자는 1,060억 달러로 미국 입장에서 3번째 큰 적자 대상국임
- 2025년 트럼프 관세 부과 이후에도 미국 시장 의존도는 즉각 줄이기 어려우며, 베트남은 미국 시장 확보와 시장 다변화의 이중 전략을 추진함
- 중국은 베트남 최대 교역국으로, 2024년 양국 교역(수출+수입)액은 2,050억 달러(전년 대비 약 19% 증가)에 달함
- 베트남의 대중 수입은 1,440억 달러(+30.2%)로 전자부품·원재료·자본재가 중심이며, 이는 대미·EU 수출용 가공·조립 활동을 뒷받침함
- 이러한 '중국에서 부품 수입→ 베트남에서 조립→ 미국 수출' 구조는 트럼프 행정부의 환적(transshipping) 우려의 핵심 배경이 됨

[베트남의 수출 상위 5개국(2022~2024)] 출처: WTO(2026), GSO(2025)

단위: 백만 달러

	2022		2023		2024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1	미국	109,390	미국	97,072	미국	119,500
2	중국	57,690	중국	60,574	중국	61,200
3	EU	46,701	EU	43,565	EU	51,700
4	한국	24,264	한국	23,448	한국	28,200
5	일본	24,228	일본	23,314	일본	26,800

[베트남의 수입 상위 5개국(2022~2024)] 출처: WTO(2026), GSO(2025)

단위: 백만 달러

	2022		2023		2024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1	중국	117,651	중국	110,655	중국	144,000
2	한국	62,050	한국	52,385	한국	56,000
3	일본	23,312	일본	21,613	일본	21,650
4	대만	22,614	대만	18,420	대만	20,000
5	EU	15,368	EU	14,946	EU	16,700

수출 품목		수입 품목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컴퓨터·전자기기 및 부품	1,007	컴퓨터·전자기기 및 부품	1,507
기계장비 및 부품	590	기계장비 및 부품	610
휴대전화 및 부품	567	각종 직물	152
섬유·의류	396	플라스틱 원료	125
신발	242	기타 금속	113

○ 한국과의 교역 및 투자 현황

- 한국은 베트남의 3대 교역국이자 최대 외국인 투자국으로, 2024년 양국 교역 규모는 약 840억 달러를 기록함
- 2024년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은 약 560억 달러, 수입은 약 282억 달러로 한국의 대베트남 무역흑자는 약 280억 달러를 기록함
- 2025년 상반기 양국 교역에서 한국으로의 베트남 수출은 컴퓨터·전자부품·자동차부품 등 고기술 품목 중심으로 재편됨
- 2025년 8월 양국 정상은 2030년까지 양국 교역 1,500억 달러 달성 목표를 재확인하고, 첨단산업·인프라·청정에너지 등 신성장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한국 기업의 베트남 누적 투자는 2026년 1월 기준 951억 달러(10,412개 프로젝트)로 단일국가 기준 최대이며, 삼성그룹은 베트남 전체 수출의 약 16%를 담당함
- 주요 한국 진출기업: 삼성전자(스마트폰),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롯데, 효성, 포스코, 한화 등이 광범위한 분야에 진출함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 추이] 자료: KOTRA(2026),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26) 단위: 개, 백만 달러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9월
신규법인수	303	375	330	80
투자금액	2,853	2,711	2,762	459

[한국·베트남의 주요 수출입 상위 품목(2024~2025.9 기준)] 자료 : KOTRA(2026)

순위	베트남 → 한국	베트남 ← 한국
1	집적회로반도체	집적회로반도체
2	무선통신기기부품	평판디스플레이
3	직물제의류	합성수지
4	제어용케이블	무선통신기기부품
5	편직제의류	경유
6	신발	인쇄회로
7	무선전화기	개별소자반도체
8	전산기록매체	기타플라스틱제품
9	컴퓨터	자동차부품
10	평판디스플레이	연결부품

○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

-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제조업·전자산업을 중심으로 견조한 유입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024년 등록 FDI는 약 382억 달러, 실제 집행액은 253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 2024년 기준 주요 FDI 유입국은 싱가포르(102억 달러), 한국(70억 달러), 중국, 홍콩, 일본 순이며, 한국은 누적 기준 최대 투자국임
- 외국인직접투자(FDI)는 반도체·인공지능(AI)·전기차·청정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
- 반도체 분야에서 인텔, 삼성, 애플 등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였으며, 베트남 반도체 시장은 2025년 약 100억 달러에서 2030년 165억 달러로 성장이 전망됨
- 2024년 발효된 글로벌 최저법인세(15%) 대응을 위해 정부는 새로운 보조금·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경쟁력을 유지함
- 베트남 정부는 디지털 경제 전환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 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
- 2024년 9월 제정된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 2030(비전 2050)'은 2030년까지 5만 명의 반도체 엔지니어 양성, 제조·설계·패키징 분야 글로벌 입지 확보를 목표로 함

[對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 규모] 자료 : Vietnam MPI(2026)

단위 :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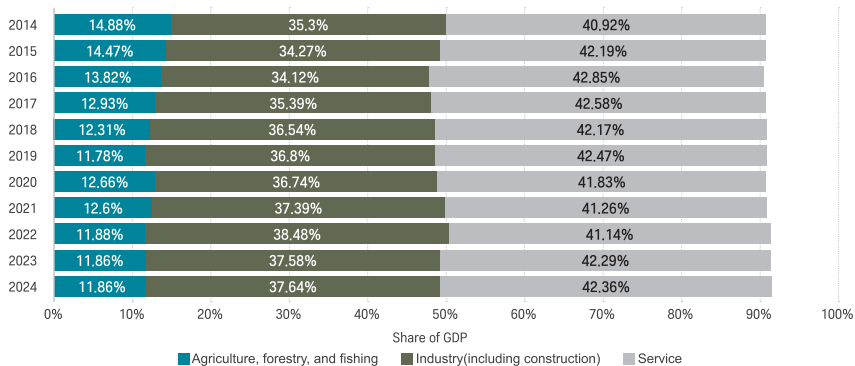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등록	285	311	277	366	382
집행	200	197	224	231	253

산업 개요

○베트남 산업 주요 특징

- 베트남 경제는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빠르게 다변화하고 있으며, 2024년 GDP 구성은 서비스업 42.4%, 산업(건설 포함) 37.6%, 농림수산업 11.9%로 나타남
- 제조·가공업은 2024년 GDP의 약 24%를 차지하며, 전자(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전화), 섬유·신발, 자동차·기계 등이 주력 산업으로 자리잡음
- 외국인투자(FDI) 기업이 전체 수출의 70%, 전자제품 수출의 약 90% 이상을 담당하여, 외국자본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적 특성을 보임
- 농림수산업은 GDP의 약 12%, 노동인구의 약 30%를 차지하는 전통산업으로, 쌀·커피·후추·해산물·고무·열대과일이 주요 수출품임
- 베트남은 세계 2위 쌀 수출국, 2위 커피 수출국이며, 캐슈너트·후추는 세계 1위 수출국으로 농산물 가공·수출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함
- 그러나 농업 부문은 기후변화·자연재해에 취약하며, 2024년 9월 태풍 야기(Yagi)로 인한 피해액은 약 15억 달러(GDP의 0.62%)에 달함
- 서비스업 비중은 42% 수준으로 도소매·관광·물류·금융이 견조하게 성장하나, 첨단 서비스(IT·금융·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은 아직 제한적임
- 2024년 외국인 관광객 1,750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관광산업은 GDP의 약 6.6%를 기여함(2025년 7% 이상 전망)
- 정부는 디지털 경제·전자상거래·핀테크 등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2025년 디지털 경제는 GDP의 약 20% 달성 목표를 추진함

베트남 주요산업별 GDP 비중(%) 변화 (2014~2024) 출처 : Statista(Vietnam)



○ 주요 산업발전 정책

- 베트남 정부는 2021년 채택한 '사회·경제 발전전략(SEDS) 2021-2030'을 통해 2030년 중·고소득국, 2045년 고소득 사회주의 국가 진입 목표를 추진함
- 핵심 목표는 ① 디지털 경제 전환, ② 첨단 제조업 육성, ③ 녹색성장 및 탄소중립, ④ 인적자본 개발, ⑤ 행정 및 제도 개혁 등이며, 연평균 7% 이상의 성장률을 통한 1인당 GDP 7,500달러 달성을 목표로 함
- 2024년 토럼 서기장은 SEDS에 더해 '새로운 시대(New Era)' 비전을 제시하며, 2026~2030년 연평균 10% 이상의 도약적 성장을 천명함
- '새로운 시대' 비전의 전략 프레임워크는 '4기둥(four-pillar)' 결의안을 통해 구체화됨(① 과학기술 혁신 및 디지털 전환 ② 포괄적 국제 통합 ③ 입법 및 법집행 개혁 ④ 민간기업 발전)
- 특히 '결의안 57'(2024.12)은 과학기술·혁신을 국가발전의 핵심동력으로 격상하고, R&D 투자확대·인재양성·기술자립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함
- 베트남은 '새로운 시대' 비전 하에 제조·가공업 중심의 산업 고도화와 과학기술·디지털 전환을 양대 축으로 대규모 재정확장 정책을 본격화함
- 2025년 국가예산은 전년 대비 약 21% 증액되었으며, 인프라·산업 투자를 통해 두 자릿수 성장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있음
- 2026년 공공투자를 GDP의 7% 규모로 집행할 계획이며, 인프라·녹색전환·디지털 산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임

제조업 :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허브

○ 첨단 제조업·반도체 산업 육성

- 베트남은 글로벌 전자·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허브로 부상하였으며, 2024년 전자제품 수출액은 1,265억 달러로(전년 대비 약 16% 증가) 전체 수출의 약 31%를 차지함
- 삼성전자는 베트남 전체 수출의 약 16%를 담당하며, 박닌·타이응우옌 등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있음
- Apple은 폭스콘 등 협력사를 통해 아이폰·맥북·에어팟 생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Intel은 호치민시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후공정 시설을 운영함
- 반도체 산업은 베트남의 핵심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였으며, 정부는 2030년까지 5만 명의 반도체 엔지니어 양성을 목표로 함
- 2024년 9월 팜민찐 총리는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 2030(비전 2050)'을 공표하며, 설계·제조·패키징·테스트 전 단계 글로벌 입지 확보를 추진함
- 앰코(Amkor)는 박닌공장 생산능력을 대폭 확장하고 있으며, 엔비디아(Nvidia)는 베트남에 R&D 센터 설립을 합의함(2025년)

- '차이나 플러스 원(China+1)' 전략의 핵심 수혜국으로서, 미·중 무역갈등 이후 베트남 제조업의 외국인투자(FDI)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
- 외국인투자(FDI) 금액은 최근 3년(2022~2024년) 연평균 17.4%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글로벌 전자기업들이 베트남 북부(박닌·타이응우옌·하이퐁) 클러스터를 형성함

○주요 추진사업 및 발전정책

-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 2030(비전 2050)'에 따라 단계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유치와 국내 인재 양성을 동시에 추진함
- 1단계(2024-2030): 반도체 후공정·패키징·테스트 강화 및 5만 명 엔지니어 양성, 100개 반도체 기업 유치
- 2단계(2030-2040): 반도체 설계·전공정 산업 진입, 외국기업과의 합작·기술이전 본격화
- 3단계(2040-2050): 반도체 자립경제 구축 및 글로벌 가치사슬 상위
- 자동차·전자기 산업도 베트남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빈패스트(VinFast) 등 토종 EV 브랜드의 글로벌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음
- 빈패스트는 2023년 미국 나스닥 상장 후 베트남·미국·인도·인도네시아에서 EV 생산·판매를 확대하며, 2024년 약 8만 대 판매(전년 대비 2배 증가)를 기록함
- 현대자동차는 합작사 TC모터를 통해 베트남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EV·하이브리드 라인업을 확대하는 등 친환경차 시장 선점 경쟁이 본격화됨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산업

○베트남의 청정에너지 전환

- 2023년, 베트남 정부는 2050년 넷제로(Net Zero) 달성을 목표로 국가전력 개발계획(PDP8)을 채택하여, 2030년까지 총 발전용량 150GW를 확보할 계획임
-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의 용량 확대를 멈추고, 205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것을 법제화함
-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기본 39%, 최대 47%로 확대하고, 2050년에는 75%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함
- 2025년 3월 베트남 정부는 PDP8 수정안을 채택하여 풍력·태양광·LNG·원자력 등 다원적 에너지 믹스를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함
- 지연되고 있는 부실 석탄 및 LNG 프로젝트를 취소하는 대신, 원전 도입을 재개하고 풍력 및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목표 용량을 상향함
- 만성적인 전력 부족 위험을 빠르게 해소하여 삼성, 인텔, 엔비디아 등 글로벌 테크기업들의 이탈을 막고 투자를 지속시키겠다는 신호로 해석됨

○원자력 발전 재개

- 2025년 베트남 국회는 2016년 중단했던 원자력 발전 재개를 승인하였으며, 닌투언(Ninh Thuan) 지역에서 베트남 첫 원전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 러시아, 일본, 한국, 미국, 프랑스 등이 동 사업 참여에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한국은 2025년 8월 정상회담에서 한국형 원전(APR1400) 수출 의지를 밝힘
- 원전 도입은 에너지 안보 강화와 산업·전력 수요(연 8~10% 증가) 충족,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평가됨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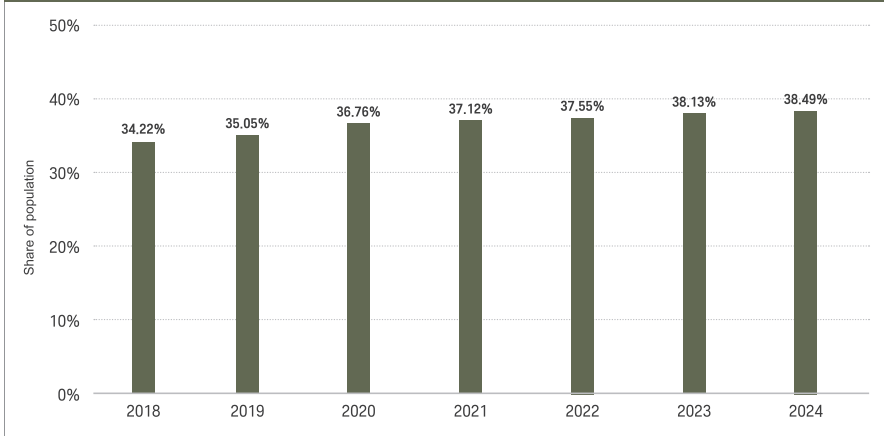
도시개발 동향

베트남의 도시화 및 건설동향

○도시화 현황

- 베트남에서는 지난 30년간 빠른 도시화가 진행되어 2024년 기준 도시화율은 39~44%²로 세계 평균(57%)보다 낮으나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
- 베트남 전체 인구 약 1억 명 중 약 4,000만 명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도시화율은 연평균 2.5% 내외의 증가율로 동남아 최고 수준임
- 정부는 2025년까지 45%, 2030년까지 50% 이상의 도시화율 달성을 목표로 하며, 이는 향후 도시 인프라·주택·교통 수요의 급증을 의미함
- 베트남 도시 인구는 북부의 하노이(수도)와 남부의 호치민시(경제수도)를 양극으로 한 '쌍둥이 도시(twin-pole)' 구조를 보임
- 2024년 기준 호치민시 인구는 약 950만 명으로 베트남 최대 경제도시이며, 국가 전체 GDP의 약 16%를 점유함(통합이전 기준)
- 하노이 인구는 약 870만 명으로 베트남 정치·행정·교육의 중심지이며, 2030년 인구 1,100만 명, 도시화율 70% 달성을 목표로 함
-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공급이 도시인구 증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교통혼잡·환경오염·주택부족 등 다양한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호치민시의 인구밀도는 약 4,500(명/km²)로 상하이보다 높으며, 만성적 교통체증·미세먼지·홍수가 일상화됨
- 하노이는 대기질이 나쁜 도시 중 하나로 종종 거론되며, 초미세먼지 농도(PM2.5)는 WHO 권고기준의 8~10배 수준임

02 도시화율은 통계 정의 및 집계방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베트남 건설부에서는 행정구역별 기준으로 44%를 제시하였으나 통계청 및 국제기구에서는 40% 내외를 제시함



○ 도시화 대응 프로그램

- 베트남에서는 WB·ADB·JICA·KOICA 등 국제기구 및 양자 협력국의 지원을 받아 종합적 도시재생·인프라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세계은행(WB)은 베트남의 '메콩델타 기후 회복력 프로젝트'(2016-2022)를 통해 기후적응형 농업을 보급하였으며, 도시재생 관련 후속 사업도 추진 중임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베트남 6개 대도시(하노이, 호치민, 다낭, 후에, 하이퐁, 켄터)를 대상으로 도시 기후 회복력·녹색도시 전환 프로그램을 운영함
- 교통·인프라 분야에서는 호치민·하노이 도시철도와 남북 고속철도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2025년 2월 지방분권형 특례법을 통과시켜 하노이·호치민의 토지수용, 재정, 인허가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도시철도의 개발을 가속화 함
 - 하노이는 2035년까지 10개 노선 약 400km, 호치민시는 2035년까지 14개 노선 460km의 도시철도망을 구축할 계획임
- 2024년 11월 국회가 승인한 남북 고속철도(하노이-호치민, 1,541km, 670억 달러)는 베트남 인프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임
 - 남북 고속철도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하노이와 호치민으로 분리된 남북 경제권을 통합하고 지역균형발전 도모 및 물류 효율화가 가능해짐
 - 최고시속 350km로 30시간의 현재 이동시간을 5시간 30분으로 단축할 예정이며, 2035년 완공 목표로 추진됨

○베트남의 건설시장 동향

- 베트남 건설시장은 인프라 투자 확대와 부동산 시장 회복에 힘입어 최근 연평균 약 8% 성장하였으며, 2026년 이후에도 유사한 성장세가 예상됨
- 정부의 공공투자 가속화(GDP 대비 약 6%로 타 동남아 국가대비 높음), 신도시 개발, 도시철도 확장, 산업단지 조성이 건설시장 성장을 주도함
- 주거용 건설은 도시 유입 인구 증가와 저소득 주택 공급 정책(100만 호 사회주택, 2030년 목표)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보임
- 부동산 시장은 2022~2023년 신용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 국면에 진입하였으며, 2025년 이후 회복세가 가속화되고 있음
- 2024년 사이공상업은행(SCB) 사태와 부동산 부문 부채 처리가 진전되면서, 주요 도시 부동산 가격은 안정세를 회복함
- 2025년 호치민시·하노이의 도심 아파트 가격은 신규 공급 부족과 인프라 확장에 따라 신규 공급시장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상승함
- 한국·일본·싱가포르·중국 등 외국 기업이 베트남 도시개발·신도시 사업에 적극 참여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FDI)도 증가하였음
- 한국 기업은 박닌 신도시 스마트시티 개발(2025년 8월 한-베 정상회담 의제), 하노이 외곽 신도시, 호치민 투티엠 신도시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진출함
- 일본은 도쿄가스·미쓰비시 등이 호치민·하노이 신도시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도 산업단지·고급주택 개발에 활발히 진출함

도시개발 주요 프로젝트

○호치민시 투티엠(Thu Thiem) 신도시 개발

- 글로벌 자본이 집결하는 호치민의 새로운 중심상업지구(CBD)이자 차세대 금융 허브로서 동남아의 푸둥지구를 표방하고 있음
- 현 호치민의 도심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사이공강 건너편 총면적 657만 m² 부지를 대상으로 2030년 최종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남부 최대의 프로젝트임
- 국제컨벤션센터, 박물관 등 대규모 문화 인프라와 함께 계획인구 약 13만 명, 유동인구 3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최고급 오피스 및 금융 타워가 집중적으로 들어서고 있음
-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유수의 디벨로퍼들이 참여하여 하이엔드 주거 문화와 초현대식 상업 복합 단지를 성공적으로 건설하고 있음
- 롯데 '투티엠 에코스마트시티'와 GS건설의 '투티엠 자이' 등 한국 대기업들이 핵심 구역 개발을 주도하며 글로벌 자본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음
- 단순한 주거지 공급을 넘어 친환경 수변 공간과 초고층 주상복합이 결합된 베트남 최고 상류층의 새로운 부촌으로 안착하고 있음



○ 박닌성 동남신도시 스마트시티 개발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내 대표 건설사들이 원팀을 이루어 주도하는 베트남 최초의 정부 간 협력 기반 국책형 'K-신도시 1호' 수출 프로젝트임
- 한국과 베트남 정부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중심이 되어 2025년부터 본격적인 인허가 및 착공 단계에 진입한 민간협력 사업임
- 국내 대형 건설사들과 IT·솔루션 전문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국의 신도시 개발 노하우를 베트남 영토에 그대로 이식하고 있음
- 글로벌 첨단 산업단지 배후 수요를 안정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한국형 판교 모델을 벤치마킹한 미래지향적 자족형 스마트 신도시를 지향함
- 삼성전자 등이 밀집한 북부 산업 벨트에 총면적 약 850만 m², 계획인구 약 12만 명, 총사업비 약 6조 원 규모로 조성되어 대규모 고용 창출과 주거를 동시에 해결함
- AI 기반의 도시 관제센터, 지능형 교통망, IoT 인프라 등 한국의 첨단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패키지로 적용하여 도시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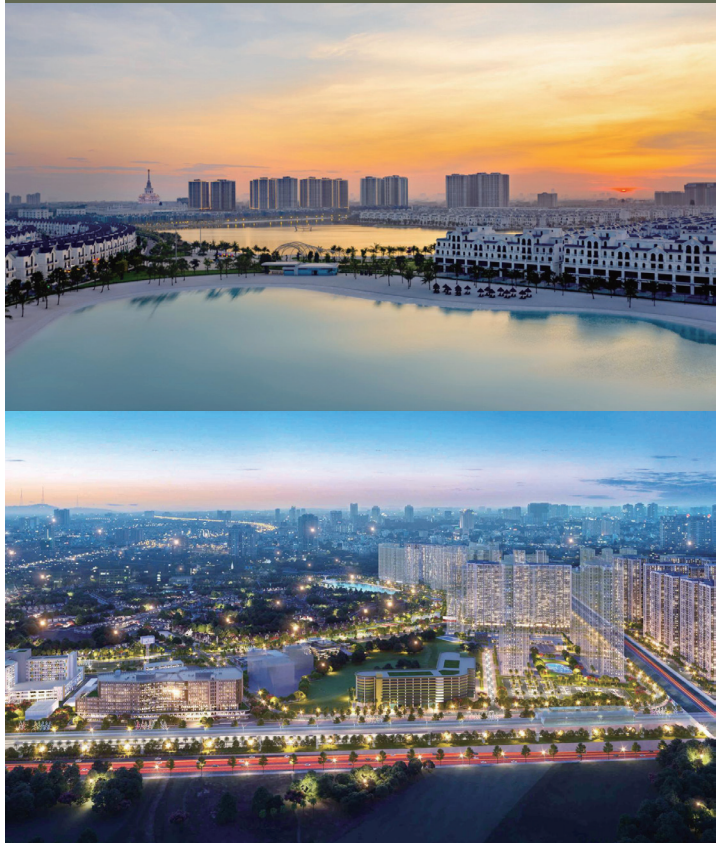
○ 하노이 빈홈즈 메가 타운십(Vinhomes Mega Township)

- 베트남 최대 민간 대기업인 빈그룹(Vingroup)이 자국의 자본력과 독자적인 시공 기술력을 바탕으로 주도하는 통합 스마트 신도시 브랜드임
- 2018년 하노이 스마트시티와 오션파크 1호 착공을 시작으로 2020년대 중반 오션파크 2·3호까지 확장하며 수도권 지역의 지형을 완전히 재편함
- 정부 재정에 의존하지 않고 민간 자본의 압도적인 실행력을 바탕으로 단일 브랜드 기준 수백만 평 부지에 수십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대규모 도시를 단기간에 조성해 냄

- 단지 내에서 주거와 상업, 교육 및 첨단 의료 서비스까지 올인원으로 해결되는 완벽한 자족형 도시 생태계를 입주민들에게 제공함
- 총 4만 가구가 넘는 아파트 단지와 빌라 등 주거 시설뿐만 아니라 대형 쇼핑몰 (빈컴몰), 대학교(빈유니), 종합병원(빈멕) 등 자체 브랜드 인프라를 통합 구축함
- 축구장 부지의 수십 배에 달하는 대규모 인공 해변과 호수, 대형 녹지 공간을 도시 중심에 배치하여 베트남 중산층이 가장 선호하는 쾌적한 스마트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고 있음

하노이 빈홈즈 메가 타운십 전경(상 : 오션시티, 하 : 스마트시티)

출처 : 빈홈즈 홈페이지(vinhomes.vn)



[참고문헌]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25.4), "트럼프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베트남의 대응과 한국에의 시사점", 세계경제 포커스, 8(20)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24.7), "베트남의 정치지형 급변에 따른 정치환경과 대내외 정책방향 전망", 세계경제 포커스, 7(30)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026), 해외시장뉴스-국가지역정보-베트남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026.3.10), 해외시장뉴스-"베트남 제14차 전당대회, 생산성·첨단산업 중심 성장전략 제시"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5.8.11), "한-베트남 정상,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달성 노력"
- » 산업통상자원부(2025.8.11), "베트남과 산업·공급망, 에너지 전환 협력 강화"
- » 외교부(2023.6.23),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 주요 내용"
-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26.1), "베트남의 정부 조직 및 행정구역 개혁의 배경과 주요 내용", 이 슈보고서
-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26), 2026 세계국가편람 - 베트남
- » 한국무역협회(2026), "2025년 베트남 및 한-베트남 수출입 동향"
- » ADB(2026.4), "Economic forecasts for Viet Nam"
- » Asia Times(2026.4.13), "To Lam's Vietnam Drifting Perceptibly Closer to China"
- » East Asia Forum(2026.1.10), "Vietnam Faces a Strategic Crossroads in 2026"
- » GoVietnamTours(2025.7.1.), "Full Details on Vietnam's New Province Map 2025"
- » GSO(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2025), "Statistical Yearbook of Vietnam 2024"
- » IMF(2026.4), "World Economic Outlook: Global Economy in the Shadow of War"
- » IMF(2025.9), "Vietnam: 2025 Article IV Consultation"
- » Statista,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
- » Thu Thiem Urban, <https://thuthiemurban.com/>
- » Vietcetera(2025.7.3.), "Vietnam's Great Provincial Merger"
- » Vietnam Briefing, <https://www.vietnam-briefing.com/>
- » Vinhomes, <https://vinhomes.vn/en>
- » World Bank(2025.3), "Taking Stock: Viet Nam Economic Update, March 2025"
- » World Bank(2026.5), "Viet Nam Economic Update: Sustaining Reforms, Navigating Uncertainty"
- » WTO(2026), WTO Tariff & Trade Data: Vietnam

사업여건

인프라 여건

투자 여건

한국의 對베트남 수주현황

對베트남 국제개발협력사업 현황

Ⅲ 사업여건

유종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문위원

01 인프라 여건

인프라 개발여건 총평

- 최근 베트남의 인프라 여건은 지난 20여 년간 제조업 기반 수출경제 확대와 함께 빠르게 개선되어 왔으며, 도로·항만·공항·전력 등 핵심 인프라의 양적 확충이 산업화와 외국인투자 유치의 기반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양적 확충과 함께 구조적 병목이 심화되는 이중적 특성이 나타나고 있어, 베트남 인프라 시장은 단순한 확충 단계를 넘어 발전 제약 해소를 위한 질적 전환과 체계적 고도화 단계로의 진입이 요구되는 시점임
 - 수십 년간의 경제성장, 대규모 외국인투자 유입, 도시화 진전에 따라 핵심 인프라 수요가 공급능력과 운영효율을 상회하며 성장 제약요인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최근의 전력 부족과 도로 혼잡 등은 이러한 구조적 병목이 현실화¹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목됨
- 이에 베트남 정부는, 안정적 경제성장과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해 인프라 격차 완화와 공공투자 확대를 핵심 정책수단으로 인식하며,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있음
 - 이는 실질 GDP 증가율을 상회하는 에너지·물류 수요 증가,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부채 수준이 제공하는 투자여력에 근거²한 대응으로 해석됨

01 국제기구 등에 따르면, 베트남의 2000~2022년 사이 베트남의 실질 GDP는 3.8배 증가한 반면, 에너지 소비는 6배, 화물 물동량은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인프라 수요가 경제성장 속도를 상회하는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베트남의 자본소통은 2019년 기준, GDP의 187%로 인접국인 인도네시아(296%), 태국(302%)보다 낮아 중·장기적인 성장경로에서 여전히 인프라투자를 핵심 성장동력으로 유지해야 하는 경제구조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02 Worldbank(2025)에 따르면, 베트남의 공공 및 공공보증부채(public and publicly guaranteed debt)는, '22년 37.1%, '24년 35.6%, '25년 34.2%로 나타나 국제비교상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부채 수준을 보이며, 이는 인프라 공급, 격차 완화 등을 위한 추가 투자여력의 배경이 되고 있음

○베트남의 인프라 개발시장 및 산업에 대한 외부 평가를 종합하면 자금조달 역량과 일부 제도적 기반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나, 정부의 개발 의지와 계획·인허가·조달 준비는 시장 활동성 측면에서 비교적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어 향후 민관협력 확대와 자원조달 구조 개선이 병행될 경우 높은 성장잠재력을 지닌 시장으로 평가됨

- InfraCompass에 따르면, 허가/계획/조달/활동(Top Performer) 부문이 베트남 인프라 건설시장을 주도하는 주요 성과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음³

[베트남 인프라시장·산업의 부문별 평가 결과(요약)]

출처 : Worldbank PPIAF InfraCompass(검색일자 2026.4.17.)

구분	순위(1-81)	점수(0-100 best)	성과(Best practice)
거버넌스(Governance)	40	53.4	Contender
규제 프레임워크 (Regulatory frameworks)	53	53.5	Contender
허가(Permits)	50	63.5	Top performer
계획(Planning)	35	75.3	Top performer
조달(Procurement)	54	64.0	Top performer
활동(Activity)	6	65.1	Top performer
자금능력(Funding capacity)	51	28.0	Aspiring
금융시장(Financial markets)	23	46.7	Contender

주. 부문별 세부 측정항목은 InfraCompass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 인접 국가와의 비교 결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과 유사한 시장군에 속하나 이들 국가 중 가장 높은 인프라 투자 비율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갭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유사군 대비 낮은 자본스톡 수준과 빠른 인프라 수요 증가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와 자원조달 구조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

03 InfraCompass는 세계은행 민관인프라자문기구(Public-Private Infrastructure Advisory Facility, PPIAF)의 평가 도구로, 전세계 GDP의 93%와 세계 인구 86%를 차지하는 주요 81개국의 데이터를 집계하여 인프라건설시장과 환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InfraCompass에서 제공하는 평가부문은 거버넌스, 규제, 허가, 계획, 조달, 활동, 자금조달능력, 금융시장이며, 각 평가부문별 세부 측정항목은 InfraCompas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구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1인당 GDP	3,718	4,361	3,576	7,232	1,217	1,662
인구(백만 명)	98.5	272.2	110.2	70.0	53.6	15.8
인프라 질(1-100)	65.9	67.7	57.8	67.8	-	54.9
인프라투자 (% of GDP)	6.3	5.0	3.7	3.1	4.1	7.6
인프라갭 (% of GDP)	1.2	0.2	0.5	0.7	3.9	3.3
거버넌스	53.4	64.9	46.5	48.7	37.0	39.6
규제 프레임워크	53.5	60.0	62.8	63.8	42.4	59.4
허가	63.5	70.9	48.5	82.0	57.5	15.7
계획	75.3	94.4	97.7	88.9	7.0	62.2
조달	64.0	61.6	74.6	78.3	56.5	46.9
활동	65.1	33.9	44.9	40.2	30.4	35.2
자금능력	28.0	36.5	36.9	40.4	41.5	22.2
금융시장	46.7	33.7	38.2	72.3	41.7	42.0

주. 100점 만점 기준,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도가 낮음(SCORES OUT OF 100; HIGHER SCORE = LOWER RISK)

정부주도
국가발전계획

- (국가비전) 공산당 일당제인 베트남은 2021년 제13차 전국대표회의를 통해 독립 100주년이 되는 2045년까지 고소득선진국 진입을 골자로 하는 국가발전전략(비전2045)을 확정하였음
 - 이 비전은 베트남이 처음으로 중장기 국가발전 로드맵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로 평가(ERIA, 2023)되며, 국가 최상위 발전목표로서 '2025까지 저중소득국(Lower-middle Income) 탈피, 2030년까지 상위중소득국(Upper-middle Income), 2045년까지 고소득선진국(A developed, industrialized nation with a high Income)'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함
 - 비전을 통해 구체적인 국가의 성장경로를 설정하게 된 배경은, 개혁개방 이후 대외개방 등을 통해 고성장을 달성했으나 고소득선진국 진입을 위해 생산성 향상, 산업고도화, 디지털전환, 제도개혁, 인적자본 강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임
 - 2045년 고소득선진국 진입을 위해 1)혁신 기반의 경제성장, 2)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 전환, 3)시장경제 제도 개혁, 4)에너지 안보 강화, 5)지속 가능한 도시화를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구분	주요 내용
경제성장	• 1인당 GDP 증가(약 15,000달러), 2045년까지 연평균 6.5~7.5%의 GDP성장을 유지
녹색전환	•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과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
제도개혁	• 정부 운영의 효율화 •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포괄적인 정부구조 개편 시행으로 효율적이고 국민요구에 부응하는 정부로 탈바꿈
에너지안보	• '2030년까지의 전력개발계획(PDP8)'에 따라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 추진,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
지속가능한 도시	• 2045년까지 지역 및 국제개발허브 역할을 하는 국제적 수준의 도시 최소 5개 이상 개발 ※ 국가 종합 마스터플랜 등에서는 2050년까지로 명기

○(국가전략 및 계획) 베트남 공산당은 2021년 제13차 전국대표회의에서 국가 최상위 발전전략인 '사회경제개발전 2021-2030(Socio-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2021-2030, SEDS)'을 확정하고, 전략 이행을 위한 첫 5개년 계획인 '사회경제개발계획 2021-2025(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2021-2025, SEDP)'를 국회에서 승인함

- 10년 단위의 SEDS는 비전2045 달성을 위한 지침서 역할을 하며, 포용적·신속·지속가능한 성장, 과학기술·혁신·디지털전환, 녹색전환과 순환경제, 민간경제의 성장동력화를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SEDS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공간 및 산업배치계획인 '국가 종합 마스터플랜 2021-2030(National Master Plan for 2021-2030 with Vision to 2050, Resolution No.81/2023/QH15)'을 2023년 1월에 수립하였음
- 국가 종합 마스터플랜은 국토공간을 넘어 지역발전, 도시, 농촌, 산업, 인프라(도로, 철도, 항만, 공항, 내륙수로, 에너지 등), 해양, 공역, 토지이용, 투자유치 등을 포괄하는 최상위 공간전략으로, 국가발전 관련 우선순위를 규정함
- 국가 종합 마스터플랜에서는 2030년, 2050년까지 달성해야 할 8개의 중요한 사업목록을 제시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⁴

04 국가 종합 마스터플랜은 국토 전역을 특성에 따라 6개 사회경제권역(북부중산간·산악권, 홍강삼각주권, 북중부 및 중부연안권, 중부고원권, 동남권, 메콩델타권)과 4개 역동지역(Dynamic region; 하노이 등 북부, 호치민 등 남부, 다낭 등 중부연안, 켄터 등 메콩델타)으로 구분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주요 사업과 방향을 제시함. 다만 내용이 광범위하고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본고에서는 마스터플랜의 주요 사업목록 중심으로 제시하며 상세 내용은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구분	프로젝트명	단계(달성목표)	
		2021~2030	2030~2050
1	동부 북남고속도로(Eastern North-South expressway)	○	
2	서부 북남고속도로(Western North-South expressway)		○
3	동서고속도로(East-West expressway)	○	
4	롱탄 국제공항(Long Thanh international airport)	○	○
5	하노이 수도권과 호치민시 순환도로(Ring roads of Hanoi capital area and Ho Chi Minh city area)	○	
6	북남고속철도(North-South express railway)	○	○
7	하노이·호치민도시철도 시스템(Urban rail transit systems of Hanoi and Ho Chi Minh city)	○	○
8	국제관문항구와 연결된 철도 노선(Railway lines connected to international gateway seaports)	○	○

- 2026년 1월 개최된 제14차 전국대표회의에서는, 신임 지도부 선출과 동시에 2030년까지의 국가경제성장전략과 사회경제발전목표 등을 결의한 바 있음
- 2030년까지 1인당 GDP 8,500달러 달성, 사회투자규모 40% 확대(공공투자 20~22%), 도시화율 50% 이상 등 목표 달성을 위해 12개 주요 과제그룹, 6대 핵심과제, 3대 전략적 돌파구, 272개 전략과제 및 프로젝트를 설정
- 대표적인 전략과제 및 프로젝트로는 북남고속철도 건설 및 대도시권 도시철도망 확충, 국제공항 확장·신설 및 항만개발 등 대규모 교통·물류인프라 개발 등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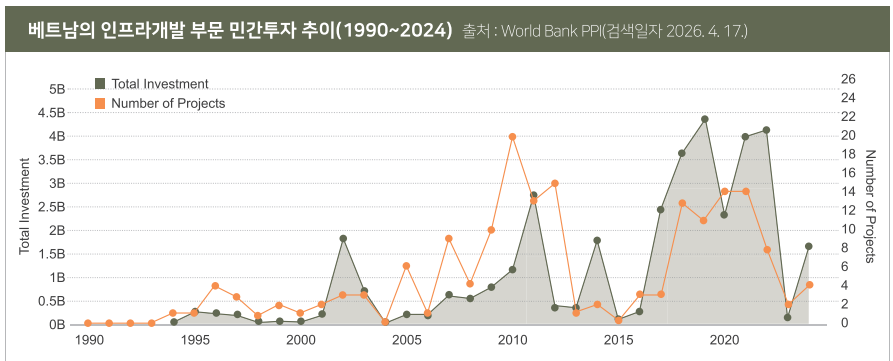
민간 부문의
인프라투자

○베트남의 PPP 제도는 2020년 제정된 공공-민간 파트너십 투자법(Law on Investment in the Form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Law No.64/2020/QH14)을 근간으로 대외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관련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왔음⁵

05 베트남의 PPP 제도는 PPP법(공공-민간 파트너십 투자법, No.64/2020/QH14)을 기본법으로 하되, 2024년 Law No.57/2024/QH15 와 2025년 Law No.90/2025/QH15를 통해 일부 개정되었으며, 시행령으로는 Decree No.35/2021/ND-CP, Decree No.71/2025/ND-CP, Decree No.243/2025/ND-CP, Decree No.312/2025/ND-CP 등이 시행되고 있음

- PPP 관련 정부기관은, 2025년 정부조직 개편 이후 기획투자부(MPI)에서 재무부(MOF)가 투자관리 기능 등을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체계로 전환
- 다만, 베트남의 행정 특성상 재무부 단일기관 중심 구조가 아닌, 부문별 주관기관과 각 성·시 인민위원회 등 지방정부가 프로젝트 발굴 및 승인 등에 참여하는 분권적 운영체제로 추진됨

○ 인프라개발 부문 민간투자 규모를 가능할 수 있는 World Bank PPI(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에 따르면, 베트남의 인프라개발 부문 민간투자 프로젝트는 1990년부터 2024년까지 165개 프로젝트(약 350억 달러)가 수행되었음(대부분 전력, 상·하수 분야 프로젝트에 집중됨)



○ 2026년 4월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며 교통·물류, 전력·에너지 등 인프라 전반에서 협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함

- (교통·물류) 철도차량 수출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북남고속철도 등 대형 인프라 사업 참여 및 신도시·신공항 개발 협력을 본격화함으로써 도로·철도·도시교통을 아우르는 다각적 협력이 강화될 전망임
- (전력·에너지) 한전-베트남국가산업에너지공사(PVN) 간 닌투언2 원전 개발 협력 가능성 검토 MoU 체결을 통해 원전공급망 협력, 사업성 분석, 전력인프라 협력 등 원자력발전과 에너지안보를 포괄하는 협력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도로

○베트남 건설부(MOC) 등 정부 자료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도로 총연장은 약 60만 km로, 과거에 비해 대폭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현재 운영 중인 고속도로 본선 연장은 2025년 말 기준 3,345km로 2050년까지 신규 구간 5,000km 건설을 목표로 추진 중임⁰⁶

- 베트남 정부는 2021년 확정된 국가 도로망 마스터플랜(Decision No.1454/QD-TTg) 및 2025년 수정한 도로망 마스터플랜(Decision No.12/QD-TTg)을 바탕으로 2050년까지 고속도로 43개 노선 약 9,000km, 국도 172개 노선 약 28,000km에 이르는 도로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체 투자 규모는 약 1,280억 달러로 추산됨
- 2023년 수립된 국가 종합 마스터플랜은 북남축과 동서 경제회랑, 하노이·호치민 등 대도시권 순환도로축을 제시하며, 간선도로망이 개별 노선 건설을 넘어 4개 역동지역(Dynamic regions)⁰⁷, 경제회랑, 성장거점을 연결하는 구조로 설계되고 있음을 보여줌
- 이 외 해안도로축도 연안산업, 관광, 항만배후 연계를 위한 핵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MOC에 따르면, 약 1,400km 구간의 해안도로가 개통(2025년 6월 기준) 되었고, 추가로 633km 구간 공사가 진행 중으로 나타났음

○도로 부문 주무부처는 MOC로, 실질적인 도로행정기관은 MOC 산하 도로총국(Department of Roads of Viet Nam, DRVN)임

- MOC는 2026년 초, DRVN의 프로젝트관리부서(PMU)를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3개로 개편하고, 3개 PMU를 중심으로 도로유지관리, IT사업, 도로기술, 계획수립, 국가도로관리기능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음
- 또한, 고속도로개발 관련하여, 정부부처와는 별개로 베트남고속도로공사(Vietnam Expressway Corporation, VEC)를 2004년에 설립, 고속도로 개발의 핵심 법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이 외에도 각 성·시 인민위원회도 분권화에 따라 국도 및 지방연결도로 관리 역할 수행

06 최신자료 탐색 결과, 최근 베트남 정부가 제시하는 도로통계는 과거와 달리 모든 위계의 도로총연장보다는 고속도로 등 간선망의 규모와 확충실적을 중심으로 공표되는 경향을 보임

07 하노이(북부), 호치민(남부), 다낭(중부), 켄터(메콩델타)

[베트남 고속도로의 주요 노선별 특징]

출처: 국가 도로망 마스터플랜(Decision No.1454/QĐ-TTg; No.12/QĐ-TTg), 도로기반시설계획 승인 문서(Decision No.2470/QĐ-BXD) 및 현지언론 등을 종합하여 저자 작성

노선	계획연장(km)	주요 특징
동부 북남고속도로	2,065	- 랑선~하노이~중부연안~호치민~까마우 연결하는 중추 고속도로 - 국가 종합 마스터플랜상 북남 경제회랑 핵심축으로 역동지역, 국제공항, 항만, 국경관문을 연결
서부 북남고속도로	1,205	- 호치민~중부고원~메콩델타 연결 강화를 위한 서부 북남축 - 내륙 개발, 메콩델타 및 중부고원 연계 지향
북부권 고속도로 (14개)	2,242	- 북부산악권~홍강삼각주~하이퐁, 판닌 등 항만권 연결 - 국가 종합 마스터플랜상 라오까이~하노이~하이퐁~판닌경제회랑, 하노이순환선이 명시
중부·고원권 고속도로(11개)	1,353	중부연안~중부고원~라오스 및 캄보디아 연결
남부권 고속도로 (11개)	1,342	동남권, 메콩델타의 수출입 및 물류, 도시권 연결 강화를 위한 간선망
하노이 수도권 순환도로(3개)	417	링로드4, 링로드5 등이 수도권 광역 연계와 산업-도시-서비스 벨트 형성의 핵심임
호치민 순환도로 (2개)	299	링로드3, 링로드4가 국제관문항만, 공항, 산업벨트 연계의 핵심임

베트남 고속도로망(2026년 3월 기준) 출처: LamDong, 2026년 3월 9일자. (검색일자 2026. 4. 17.)



- 베트남 고속도로 개발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 사례가 확인되며, 최근 대표 사례로는 2025년 동탑성 미안(My An)~까오란(Cao Lanh) 고속도로 1단계(27km) 건설에 동부건설-베트남 컨소시엄이 참여한 사업이 있음
 - 해당 구간은 서부 북남고속도로의 일부로, 총사업비 6.1조 동 중 4.5조 동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조달되었으며, 단일 시공 패키지로 구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8년까지로 계획됨

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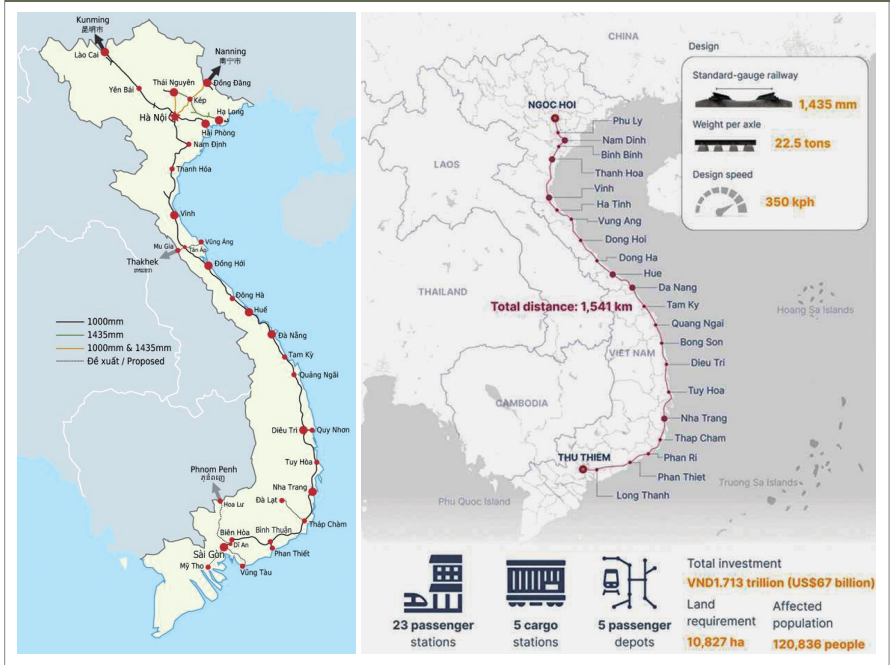
- 베트남 철도 역사는 프랑스 식민지배 시기인 1881년 당시 코친차이나 지역에 부설된 사이공(현재 호치민) 미토(My Tho)를 잇는 71km 구간에서 시작되었으며, 현재철도관리기관은국영기업인‘베트남철도공사(Vietnam National Railway, VNR)’임
 - 운행 중인 철로 구간은 총 3,146km에 달하나 전체의 84%가 폭 1,000mm의 협궤 구간이며, 폭 1,435mm의 표준궤간을 사용하는 구간은 514km에 불과해 철도 이용 효율성이 낮음
 - 대표 노선은 1976년에 건설된 하노이~호치민을 잇는 1,726km 구간의 북남종단 철도와 하노이~라오까이 구간 296km, 하노이~하이퐁 구간 102km 등 간선·지선 철도임
- 베트남 철도는 여전히 기존 협궤망에 의존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표준궤 중심의 고속철도, 국가간연결철도, 산업연결철도를 중심으로 정책 우선 순위가 전환되고 있음
 - 2021년에 승인된 ‘국가 철도망 마스터플랜 2021-2030(Decision No.1769/QĐ-TTg)’ 및 이를 개정한 철도망 마스터플랜 (Decision No.2404/QĐ-TTg, 2025년 개정)에서는 북남고속철도의 우선 추진, 하노이-판닌 구간 고속철도 추가계획, 중국·캄보디아·라오스 연계 국제철도 보강, 항만·공항·대도시권 철도거점 연계 강화를 핵심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전체 투자액은 약 6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됨
 - 북남고속철도는 하노이 응옥호이(Ngoc Hoi)~호치민 투티엠(Thu Thiem)까지 이어지는 1,541km 구간을 복선 표준궤로 건설을 추진,
 - 신규 추가된 하노이~판닌 구간 124km 역시 표준궤 노선으로 베트남 북부 신흥항인 하노이시 근교 자빈(Gia Binh) 국제공항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함

[국가 철도망 마스터플랜의 고속철도 프로젝트]

출처: 개정 철도망 마스터플랜(Decision No.2404/QĐ-TTg)

구분	프로젝트명	단계	
		2030년까지	2030년 이후
1	북남고속철도(하노이 응옥하이~호치민 투티엠) 1,541km, 표준궤(1,435mm) 건설	○	○
2	[신규] 하노이~팡닌 고속철도(신공항 연결) 124km, 표준궤(1,435mm) 건설	○	○

베트남 철도망 및 북남고속철도 건설 개요 출처: LH토지주택연구원(2018a); KOTRA(2025) 재인용



- 물류 측면에서 보면, 2025년 수정 계획은 산업단지 및 항만·공항과의 연계성 강화를 매우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며, 실제 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비엔호아~붕따우, 라오까이~하노이~하이퐁, 하이퐁~하롱~몽까이 등 항만 및 대외교역 거점 연결망이 포함됨
- 또한, 표준궤 기반의 중국 및 아세안 철도망과의 환적 없는 육상 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국·캄보디아·라오스 등 3개국과의 철도연결망을 7개 노선*으로 확대 추진함

08

중국: 기존 라오까이, 동당 외 하이퐁-하롱-몽까이 노선 신설(몽까이 국경 연결)
캄보디아: 호치민~목바이, 호치민~룩닌 등 2개 노선
라오스: 봉양-무자, 미투이~동하~라오바오 등 2개 노선

[철도망 마스터플랜에 따른 주요 철도망 구축계획(고속철도 제외)]

출처 : 개정 철도망 마스터플랜(Decision No.2404/QD-TTg)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저자 작성

구분	구간	연장(km)	특징
국제 연결	라오까이~하노이~하이퐁	381	• 북부 국제물류 및 대중국 연결 핵심축(‘30 완공 목표)
	하노이~동당	156	• 중국연결축
	하이퐁~하롱~몽까이	187	• 중국 및 동북 해안권 연결
	호치민~룩닌	128	• 캄보디아 및 남부내륙 연결
	붕앙~무자	105	• 라오스 연결 동서축
항만 연결	비엔호아~붕따우	132	• 남부 항만 및 산업단지 연계(우선 추진)
지역 연결	호치민~건터~까마우	320	• 남부권(메콩델타) 철도 확장의 핵심
	다낭~꽂돔~자라이~닥락~닥농~빈프억	550	• 중부~중부고원 간선축(장기 추진)
	투티엠~롱탄	-	• 국가철도망 제외, 도시철도로 전환 추진(‘25)

주. 모든 프로젝트는 표준궤(1,435mm)로 건설 추진

○베트남 정부는 철도망 개발 외에도 도시화 및 탄소중립 대응,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분담률 제고 등을 위해 대도시권 중심의 도시철도망 구축을 지속 추진 중임

- (하노이) 베트남 최초의 도시철도인 2A호선(갯링~옌응이여, ‘21년 개통), 3호선(논~꺼우저이, ‘24년 지상구간 개통, ‘27년 완전개통 목표) 등 2개 노선이 운영 중임
- (호치민) 베트남-일본 정부 간 협력으로 추진, 개통(‘24년)되었으며, 중심부인 벵탄에서 외곽 수오이띠엔까지의 약 20km 구간을 연결
- 베트남 정부는 2060년까지 양대 도시 합산, 약 1,000km 이상의 도시철도망 건설 추진예정

[향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

출처 : 하노이·호치민 도시철도망 특례(Resolution No. 188/2025/QH15)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저자 작성

구분	2035년 목표	2045~2060년 장기 목표
하노이	10개 노선, 약 410km 완공(약 210억 달러 추정)	15개 노선, 총 617km 구간 확충
호치민	7개 노선, 약 183~355km 완공(약 402억 달러 추정)	10개 노선, 총 510km 이상 확충

공항

○ 베트남의 주요 공항으로는, 북부 노이바이 국제공항(하노이), 중부 다낭 국제공항, 남부 탄손누트 국제공항(호치민)을 중심으로 각 지역을 연결하는 국내선 공항을 운영하고 있음

- 베트남 공항운영을 총괄하는 MOC 산하 '베트남공항공사(Airports Corporation of Vietnam, ACV)' 공시에 따르면, 주요 22개 공항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2025년 각각 여객수송은 1.1억 명, 1.2억 명, 약 75만 회에 걸쳐 약 180만 톤의 화물을 처리(2025년 기준)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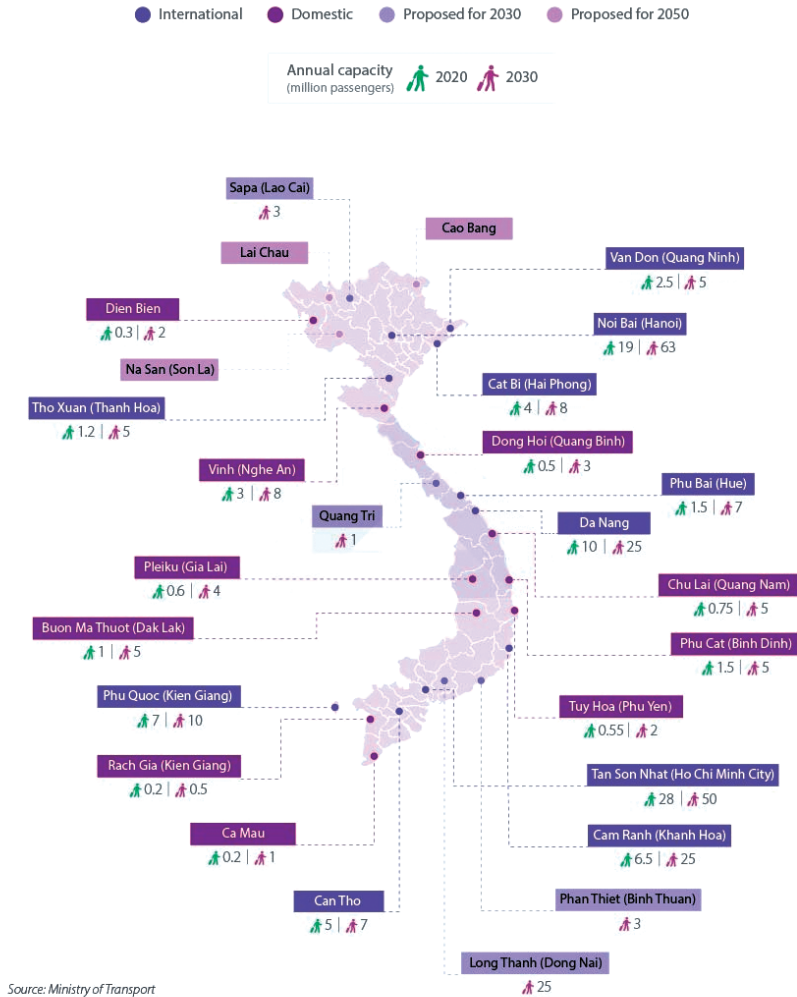
○ 현재 공항인프라는 기존 국제공항의 확장, 신규 거점공항 건설이 동시에 진행되는 고도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국가 종합 마스터플랜(Resolution No.81/2023/QH15)은 공항을 국가기간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2023년 '국가 공항 시스템 마스터플랜(Decision No.648/QĐ-TTg)'을 수립하여 전국 공항체계를 하노이·호치민 중심의 Hub & Spoke 구조⁹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 해당 계획에 따라 약 160억 달러를 투자하여 2030년까지 전국 공항을 30개(국제 14개, 국내 16개)로 확대하고, 2050년까지는 33개(국제 14개, 국내 19개)로 확충할 계획이며, 2030년 기준 여객수요는 약 2.8억 명, 화물처리능력은 410만 톤 수준으로 증대할 전망이다

09

하노이권, 호치민권을
2개 핵심허브로
조성하고, 다낭, 캄라인,
푸꾸옥 등 거점공항을
허브와 연계

Vietnam's Network of Airports



- 정부계획에 따른 공항개발 핵심 프로젝트는 룡탄 국제공항 개항, 노이바이·탄손누트 국제공항 확장, 자빈 국제공항 신설, 이외 역동지역 연계 국제공항의 단계적 확충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이 중 호치민 인근 동나이성에 위치한 룡탄 국제공항은 2026년 1단계 상업운항 개시가 예정되어 있음

[주요 공항인프라 확충 계획] 출처 : 건설부(MOC) 등의 자료를 종합하여 저자 작성

구분	주요 내용	목표시기	비고
통탄 국제공항	남부권 신규 국제허브공항 건설 및 상업운항 개시	(1단계) 2026년 내	2단계 사업자(ACV) 선정('26.1.), 전체 3단계에 걸쳐 완공
탄손누트 국제공항 (확장)	T3 운영 안정화, 통탄 국제공항 완전 개항 전 과밀 완화	2025년 이후	여객수용능력 연간 5,000만 명 수준으로 확대
노이바이 국제공항 (확장)	T2 국제선 확장 및 스마트공항 도입	2025년 이후	국제선 여객 연간 1,500만 명 수준으로 확대
자빈 국제공항	북부권 신규 거점공항 건설	(1단계) 2030년 (장기) 2050년 이후 장기 확장	2030년 여객 3,000만 명, 2050년 5,000만 명 목표

항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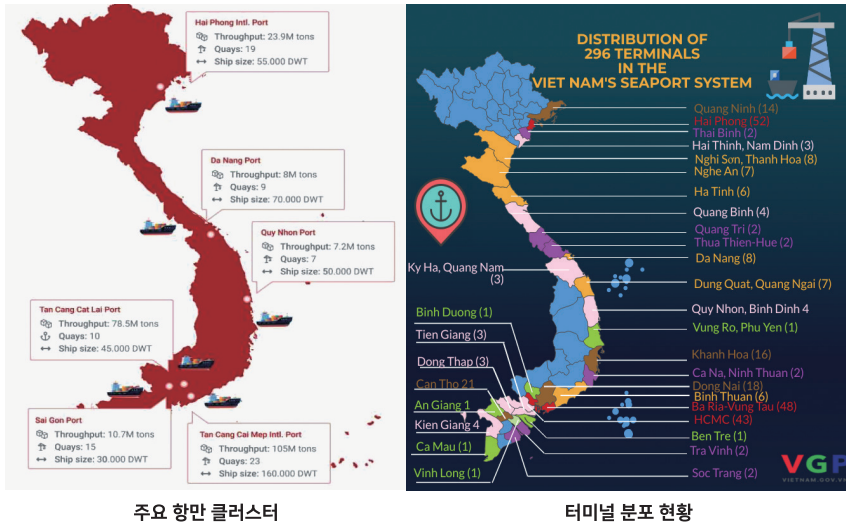
- 3,260km에 이르는 해안선을 따라 296개의 부두가 등록되어 있으며, 2021년에 수립된 '국가 항만 시스템 마스터플랜(Decision No.1579/QD-TTg)'에 따라 전국 항만을 권역별 5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 지난 20여 년간 지속된 항만개발 이후 양적 팽창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하이퐁, 바리아-붕따우, 호치민에 가장 많은 터미널이 집적(각각 52개, 48개, 43개)되어 있음
 - 권역에 따라 항만군(그룹)을 구분한 것은, 지역산업,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이에 따른 여객 및 화물처리수준을 확대하기 위함임
 - 그룹1(북부) : 하이퐁, 꽝닌, 타이빈, 남딘, 닌빈 등 5개 항만
 - 그룹2(북중부) : 타인호아, 응안, 하띤, 꽝빈, 꽝찌, 후에 등 6개 항만
 - 그룹3(중부) : 다낭, 꽝남, 꽝응아이, 빈딘, 푸옌 등 8개 항만
 - 그룹4(남부) : 호치민, 동나이, 바리아-붕따우, 빈즈엉, 롱안 등 5개 항만
 - 그룹5(메콩델타) : 건터, 동탑, 빈롱 등 12개 항만
 - 또한, 항만의 규모와 기능에 따라 4개 등급(특별항만, class I ~ III)으로 구분·운영함으로써 국가 물류체계 위상을 정립하고, 차별화된 개발계획 수립

[기능별 항만 등급 현황] 출처 : 국가 항만 시스템 마스터플랜(Decision No.1579/QD-TTg)

구분	역할	항만 구성
특별항만 (Special Seaport)	국제관문이자 국가 핵심 허브항만 (국가전략항만)	하이퐁, 바리아-붕따우 등 2개 항만
class I	국가 또는 광역권 차원의 중요 항만 (권역 거점 항만)	꽝닌, 타인호아, 응안, 후에, 다낭, 꽝남, 꽝응아이 등 15개 항만
class II	지역경제나 특정 지방권역을 지원하는 중간급 항만(지역산업 지원)	꽝빈, 꽝찌, 빈투언, 동탑 등 6개 항만
class III	소규모, 특정기업 활동 및 제한된 지역수요 담당	타이빈, 나딘, 닌빈, 푸옌, 빈등 등 13개 항만

베트남 주요 항만 클러스터 개요 및 지역별 부두(터미널) 분포 현황

출처 : VGP, InCorp Vietnam; KOTRA해외시장뉴스(2023), 한국무역협회(2024) 재인용)



○베트남 주요 항만운영, 해상운송을 담당하는 MOC 산하 베트남해사공사 (Vietnam Maritime Corporation, VMC) 등 관련 기관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의 항로는 32개(국제선 25개, 국내선 7개)로 아세안국가 중 3위에 해당되며, 과거와 달리 선박접안능력이 향상되면서 화물처리량도 급증하고 있음

- 2015년~2022년 항구를 통과하는 화물의 양은 71% 증가하여 연평균 약 8% 수준으로 매해 성장 추세를 보임
- 북부 최대 항만인 하이퐁항만은 북부 항만 최초로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 200만 TEU를 돌파하며 국가 물류 거점으로서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북부 항만 핵심사업인 락후옌항 3·4부두 완공에 따른 대형 컨테이너선 접안능력 향상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급증하는 항만 수요에 비해 항만과 내륙을 연결하는 물류인프라 부족은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음
 - 여러 항만 중 하이퐁항만만이 철도와 직결되어있는 등 항만과 철도 연결 비율은 매우 낮아 2020년 기준 철도 수송량 비중은 1.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베트남 항만인프라는 국가 항만 시스템 마스터플랜 등 정부 계획에 따라 다핵적 허브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있으며, 2030년까지의 개발방향과 목표, 2050년까지의 비전은 다음 표와 같음

[국가 항만 시스템 마스터플랜에 따른 권역별 항만 개발방향 및 목표]

출처 : 국가 항만 시스템 마스터플랜(Decision No.1579/QD-TTg)

구분		목표	
		2030년까지 전망	2050년 비전
그룹1 (북부)	하이퐁, 꽝닌, 타이빈, 남딘, 닌빈 등 5개 항만	• (화물) 3억~3.7억 톤(컨테이너 1,000만~1,500만TEU) • (여객) 16.2만~16.4만 명	• 연평균 화물 및 여객성장을 각각 5.3%, 1.6% 향상 • 락후옌 및 까이란 터미널 투자 완료 등
그룹2 (중부)	타인호아, 응안, 하띤, 꽝빈, 꽝찌, 후에 등 6개 항만	• (화물) 1.7억~2.6억 톤 (컨테이너 60만~100만TEU) • (여객) 20.2만~20.4만 명	• 연평균 화물 및 여객성장을 각각 4.5%, 0.5% 향상 • 응이선-동호이, 봉앙 등 항만 클러스터 개발 완료
그룹3 (중부)	다낭, 꽝남, 꽝응아이, 빈딘, 푸예 등 8개 항만	• (화물) 1.4억~1.8억 톤(컨테이너 180만~250만TEU) • (여객) 190만~200만 명	• 연평균 화물 및 여객성장을 각각 5.5%, 1.8% 향상 • 다낭터미널 투자 완료 등
그룹4 (남부)	호치민, 동나이, 바리아-붕따우, 빈즈엉, 롱안 등 5개 항만	• (화물) 4.6억~5.4억 톤(컨테이너 2,300만~2,800만TEU) • (여객) 170만~180만 명	• 연평균 화물 및 여객성장을 각각 3.8%, 1.0% 향상 • 사이공 강변 터미널 이전 완료 등
그룹5 (메콩델타)	컨터, 동탑, 빈롱 등 12개 항만	• (화물) 0.64억~0.8억 톤 (컨테이너 60만~80만TEU) • (여객) 610만~620만 명	• 연평균 화물 및 여객성장을 각각 6.1%, 1.3% 향상 • 메콩델타 지역 관문항만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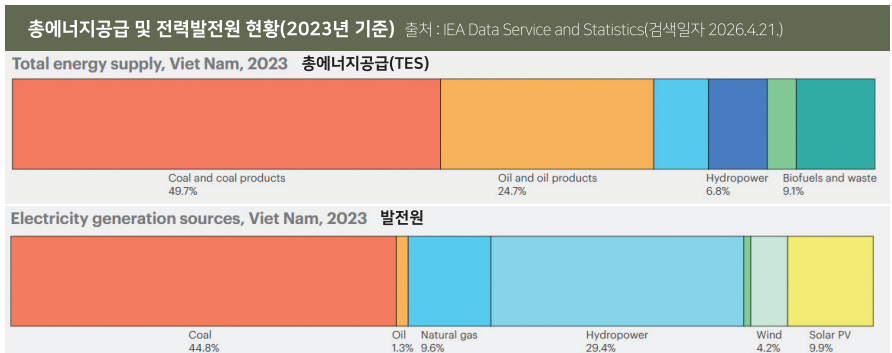
주. 그룹별·항만별 세부 개발계획은 국가 항만 시스템 마스터플랜 부속도서 참조

전력·에너지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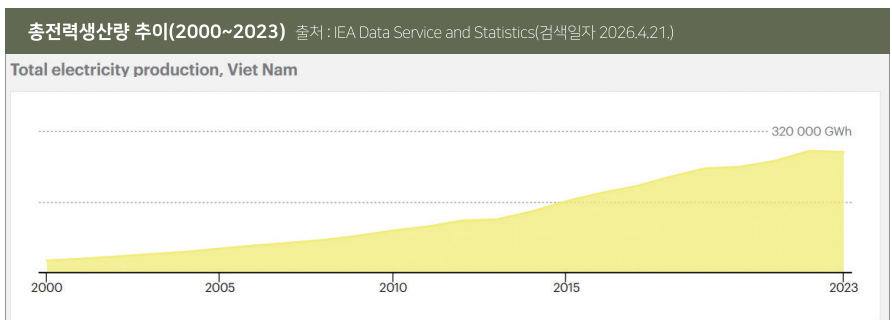
- 베트남의 전력보급률은 2022년 기준, 100%로 양적인 전력접근성은 확보하였으나 급증하는 수요 대비 부족한 발전설비와 노후화된 송배전망, 그리고 에너지전환을 위한 자원확보 및 제도적 미비라는 질적 한계에 직면
- 베트남의 전력·에너지는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MOIT)에서 관장하며, 국영기업인 베트남전력공사(EVN)가 전력구매, 송전, 배전을 주도하는 공공 중심 구조로 운영됨
 - 다만, 2024년 EVN 구조조정계획(Decision No.1271/QD-TTg), 2025년 개정 전력법(Law No.61/2024/QH15) 시행 및 하위 시행령 발표 등에 따라 전력부문의 국가안보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계통운영센터(NSMO)의 독립, 직접전력구매계약(DPPA) 법제화 등을 통해 시장경쟁 체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음
 - 또한, 교차보조금 폐지 및 가격체계 현실화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병행하며, 시장개방을 소매시장까지로 단계적 개방을 추진하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 중임

○베트남의 에너지믹스, 전력생산 및 소비구조 등 전력·에너지 부문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베트남의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된 총에너지공급(TES)은 석탄(49.7%), 석유(24.7%) 등 화석연료 비중이 전체의 약 74%에 달해 여전히 높은 의존도를 보임
- 에너지공급과 전력발전 구조를 비교하면, TES에서 24.7%를 차지하던 석유 비중이 전력발전에서는 1.3% 수준으로 낮아지는 반면, 수력(29.4%), 태양광(9.9%)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일정 수준 반영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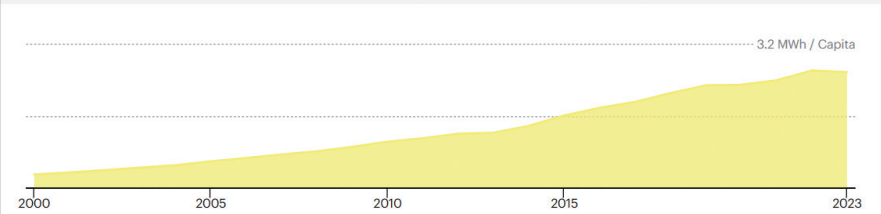
- 총전력생산량(total electricity production)은 총 274,016GWh로 글로벌 20위, 역대 8위에 해당하여 역대 주요 전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음
- 2000년 이후 전력생산량이 약 4~5배 증가하는 등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이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전력수요 확대를 반영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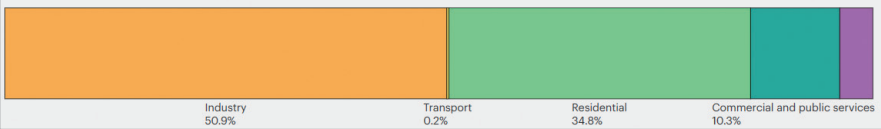
1인당 전력소비량 추이(2000~2023)와 최종에너지소비 현황(2023년 기준)

출처 : IEA Data Service and Statistics(검색일자 2026.4.21.)

Electricity consumption per capita, Viet Nam 1인당 전력소비량 추이



Electricity final consumption by sector, Viet Nam, 2023 최종에너지소비



○ 베트남 정부는 매 5년 마다 전력개발계획(National Power Development Plan, PDP)을 확정하여 해당 계획기간 동안의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전원별 설비용량을 결정하며, 이에 따른 투자계획을 마련하고 있음

- 현재 유효한 PDP는 제8차 PDP(PDP8)로, 2023년 최초 승인(Decision No.500/QD-TTg)되었음. 2023년에 승인된 PDP8은 2024년 이행계획(Decision No.262/QD-TTg)으로 구체화되었고, 2025년 4월 조정된 PDP8(Decision No.768/QD-TTg)이 최종 계획임
- PDP8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2050년을 장기 비전으로 하는 국가전력·에너지 부문 최상위 계획으로,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및 LNG발전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이 포함됨
- 구체적인 계획범위는 220kV 이상 송전망 구축, 발전원 개발, 재생에너지 및 신에너지 산업 및 서비스 확충, 인접국과의 전력연계 설비까지 포함됨

○ 확정한 PDP8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발전원별 비중의 변화, 핵심 인프라 확충, 시장경쟁체제 도입, 에너지 생태계 조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발전원별 비중) 2026~2030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10%로 가정하여 전력생산량을 현재의 약 2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대 36%까지 상향하고 20년 이상 노후 화력발전소는 단계적으로 폐쇄하거나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함

-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전환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LNG를 가교에너지로 활용하고 그 비중 확대(최대 25%)를 제시하고 있음
- 2025년 조정과정에서 원자력발전소가 신규 포함되었음(4~6.4GW급 다투어 원전1·2호기의 2030년~2035년 가동 목표)

[PDP8에 따른 2030년까지의 발전원별 설비용량 전망]

출처 : 법률신문, 2025년 4월 24일자.(검색일자 2026.4.22.)

전원 유형	최초 PDP8(2023년) 설비 용량(MW)	PDP8 개정안 상 2023년까지 설비 용량(MW)
총 설비용량	150,489	183,291~236,363
태양광 발전	그리드 연결 및 자가형 : 12,836 지붕형 : 11,855	46,459~73,416
육상/연안 풍력 발전	21,880	26,066~38,029
수력 발전	29,346	33,294~34,667
LNG 발전	22,400	22,524
석탄화력 발전	30,127	31,055
바이오매스, 폐기물, 지역발전	2,270	바이오매스 : 1,526~2,699 폐기물 : 1,441~2,137 / 지역 : 45
해상풍력 발전	6,000	2030~2035년 : 6,000~17,032
원자력 발전	-	2030~2035년 : 4,000~6,400

- (핵심 인프라 확충)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른 변동성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배터리저장용량을 기존 300MW에서 10,000MW~16,300MW로 상향하고, 재생에너지 통합을 위해 220kV 이상의 전력망 및 국경간 연결을 포함한 송전망 구축
- (시장경쟁 도입) 2025년 개정 전력법 및 하위 시행령 시행으로 DPPA 등 시장경쟁체제 도입 준비
- (에너지생태계 조성) 재생에너지 산업단지 조성과 전력수출계획을 추가하여 잉여 전력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으로 수출

투자환경과 제도

- (현황) 국제기구 등에서는 베트남을 여전히 아세안의 핵심 제조·수출 거점으로서 투자 매력도가 높은 시장으로 평가하는 한편, 고성장에 따른 기대와 함께 제도 전환기에 따른 리스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시장으로 보고 있음
 - 대규모 제조업 기반, 광범위한 FTA 체결, 경쟁력 있는 노동비용, 중국 대체 생산기지의 위상, 인프라 확충을 기반으로 외자 유치를 지속 추진해 옴
 - 다만, OECD 등은 베트남이 2045년 고소득국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외국인투자를 지속하면서 이를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과제라고 평가하고 있음
 - 이에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투자의 성과를 산업구조 전환 등 생산성 향상과 연계하고자 신투자법(Law No.143/2025/QH15)을 발표('25.12. 개정, '26.3. 시행)
- (제도) 신투자법은 2020년 투자법을 전면개정한 것으로 단순한 FDI 확대에서 벗어나 반도체·AI, 디지털전환 등 첨단산업 중심의 선별적 투자유치 체계로 전환하려는 정책 의지를 제도적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됨
 - 신투자법은 ①특별 투자인센티브 제도, ②국가투자지원기금¹⁰, ③투자절차 간소화 등 이른바 3대 축을 중심으로 투자유치 전략을 재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025년 신투자법 주요 개정사항] 출처 : KOTRA해외시장뉴스(2026)의 내용을 재정리하여 저자 작성)

구분	주요 내용
특별 투자인센티브 제도 확대	• 국가전략산업(반도체, AI, 디지털인프라, R&D 등) 중심으로 적용범위 확대 • 기존 세제감면 수준에서 투자규모, 기술수준, 산업파급효과 등을 종합 고려한 맞춤형 지원
국가투자지원기금 조성	• 전략투자자 및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하여 직접적인 재정 지원 제공의 기반 마련 • 미·EU 등 주요국의 보조금 및 산업정책 대응을 위한 조치로 글로벌 투자유치 경쟁에 대해 적극적 대응 의지 표명
투자절차 간소화 추진	• 산업단지 및 경제특구 내 투자프로젝트 대상, 특별투자절차 도입(투자정책 승인, 환경영향평가, 건축허가 등 주요 인허가 절차 면제 또는 간소화) • 단, 환경·기술 기준 준수에 대한 투자책임 강화 • 향후 승인, 인허가 부담보다는 기업 내부 및 리스크 관리 역량이 중요해질 전망

¹⁰ OECD/G20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최소 15% 실효세율)에 대응하여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직접지원형 투자지원기금(정부예산+법인세) 구상을 추진해 온 바 있으며, 지원대상으로는 인프라, 고정자산, 고용훈련비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짐

- (인센티브) **현행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업종, 입지, 프로젝트의 규모 및 파급효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구조로 과거 일률적 부여보다는 세분화·구체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대표적인 인센티브 항목은 법인세(CIT)임**
 - 2025년 개정된 법인세법¹¹에 따라 적용 분야가 확대(반도체·AI·디지털 기술·자동차 제조 및 조립·중소기업 지원 서비스 등)되었으며, 산업단지 입주와 같은 일률적 부여에서 벗어나 경제구역, 낙후지역(사회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 또는 극히 어려운 지역) 투자, 고부가가치 및 전략산업 해당 여부가 주요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음
 - 글로벌최저한세 대응 속에 '일률 조세감면'에서 '직접지원 및 비조세 지원'으로 이동하는 흐름 관찰
 - 對 베트남 투자에서 받는 인센티브는 투자발생시 자동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허가요청 및 승인 단계에서 심사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투자우대지역과 업종, 규모에 따른 인센티브 수혜여부 및 규모를 사전 확인할 필요가 있음

11
'25.6. 개정, '25.10. 시행
('25과제연도부터 적용)

[정부 투자인센티브항목 주요 내용] 출처 : 신투자법(Law No.143/2025/QH15), PwC(2025)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구분	주요 내용	
기본 인센티브 항목	조세	· 법인세(CIT), 수입관세 면제, 토지임대료 감면, 가속상각, 손금산입 확대 등
	비조세	· 인프라 지원, 고용훈련, 신용지원, 사업부지 접근지원, 기술이전, 연구개발, 디지털전환 지원
일반 투자우대	대상	· 과학기술, 혁신, 디지털전환, 기술산업, 반도체, 재생에너지, 인프라개발 등
	입지	· 산업단지, 수출가공단지, 하이테크파크, 자유무역지대, 경제구역 등 · 단순 입지보다는 업종, 기능과의 연계성 중요
특별 투자우대	특별투자 인센티브	· 사회적 파급력이 큰 프로젝트에 대해 일반 우대보다 높은 수준의 지원 (선별적 고강도 지원)
	특별우대 업종(대상)	· 혁신센터, R&D센터,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인프라, 5G이상 통신인프라, 반도체, AI데이터센터 등
직접지원 및 재정지원	투자지원기금	· 전략투자자, 다국적기업 유치 및 특정산업 지원을 위한 별도기금(정부예산 및 법인세로 조성)
투자절차 간소화	· 하이테크, 전략프로젝트, 특정 구역 입주 등 지정 프로젝트에 한해 신속심사, 일부 사전승인 생략, IRC(투자등록) 절차 단축	
토지임대료 인센티브	· 특정 디지털기술, 반도체, AI 시설 등에 토지임대료 면제 등	
기존 인센티브 조정(축소)	· 대규모 투자 자체 또는 산업단지 입지 자체에 부여한 자동 세제우대 축소(일반제조업, 입지형 투자 대상)	

주. 상기 인센티브사항은 투자법, 법인세법상 인센티브 대상 프로젝트 및 우대업종에 한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신투자법 등 참조

- 법인세 표준세율은 20%이나 산업군별·입지별로 우대세율, 면세 기간 등이 각기 다름

[법인세 우대세율(요약)] 출처: 법인세법(Law No.67/2025/QH15) 및 시행령(Decree No.320/2025/ND-CP)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

대상	우대사항			
	우대세율	적용기간	면세기간	50% 감면기간
첨단기술, 반도체, AI 관련 시설, 핵심 인프라, 하이테크파크, 특별히 취약한 우대지역 등	10%	15년	최대 4년	최대 9년
일부 제조업(자동차 제조 및 조립 등),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 개발여건 취약지역의 투자, 일부 경제구역 투자 등	17%	10년	최대 2년	최대 4년
특별 투자우대(Special investment incentives and supports)	신투자법상 특별투자 인센티브 및 지원 대상 프로젝트로, 우대세율 등은 총리 결정사항임			

주1.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상세 내용은 전문 참조

주2. 면세 및 감면기간은 '첫 이익이 발생한 해'부터 계산됨(단, 매출 발생 후 3년 내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4년차부터 기산)

- 베트남은 관련 법제에 따라 산업단지(IP), 수출자유구역(EPZ), 경제구역(EZ), 하이테크파크 등 주요 산업입지 유형을 운영¹²하고 있으며, 투자유인은 입주 자체에 일률적으로 부여되기보다는 우대업종과 입지조건의 결합을 통해 구체화되는 구조임
- 특히, 경제구역¹³·하이테크파크¹⁴ 내 우대 프로젝트와 특별 투자우대 대상 프로젝트는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임대료 감면 폭이 크며, 일정 요건 충족 시 전 임대 기간 면제도 가능함

[유형별 토지임대료 면제혜택(요약)] 출처: 토지사용료 및 토지임대료 시행령(Decree No.103/2024/ND-CP)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구분	주요 내용
일반	(면제기간 3년) 투자우대 업종 (7년) 사회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 (11년) 사회경제적 여건이 극히 어려운 지역 또는 특별우대 업종 (15년) 우대업종+극히 어려운 지역 또는 특별우대 업종+어려운 지역 (전 임대기간 면제) 특별우대 업종+극히 어려운 지역(단, 요건 충족시)
경제구역 (EZ)	(11년) 비우대업종+비우대지역 내 경제구역(일반 프로젝트) (13년) 비우대업종+사회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 내 경제구역 (15년) 비우대업종+사회경제적 여건이 극히 어려운 지역 내 경제구역 또는 우대업종+비우대지역 내 경제구역 (17년) 우대업종+어려운 지역 내 경제구역 (19년) 우대업종+극히 어려운 지역 내 경제구역 (전 임대기간 면제) 경제구역 내 특별우대업종 프로젝트 등(단, 요건 충족시)
하이테크 파크	(15년) 일반 프로젝트 또는 하이테크파크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19년) 투자우대업종 프로젝트 (전 임대기간 면제) 특별우대업종 프로젝트(단, 요건 충족시)

12 산업단지 및 경제특구 관리 시행령(Decree No.35/2022/ND-CP), 하이테크파크에 관한 시행령(Decree No.10/2024/ND-CP) 등

13 사회경제권 6개 권역, 해안경제구역 및 국경경제구역 핵심경제권 4개 권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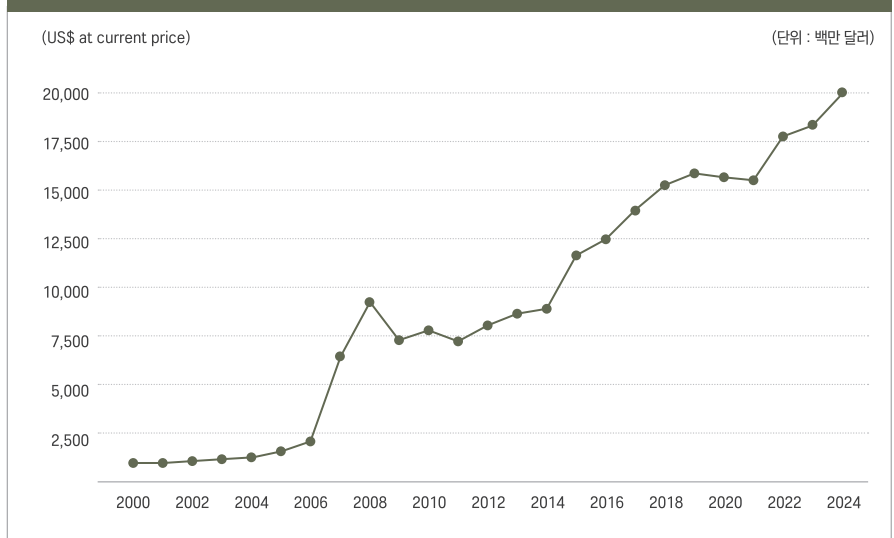
14 하노이 호아락 하이테크파크, 호치민 사이공 하이테크파크, 다낭 하이테크파크 등 3개

외국인투자 동향

○ FDI 동향

- UN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베트남의 국제수지 기준 FDI 순유입액은 2007년 WTO 가입을 기점으로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비교적 견고한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유입세가 잠시 정체되기도 했으나, 2022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2024년 약 202억 달러를 기록함
- 이러한 상승세는 향후 정부의 에너지 전환(PDP8), 첨단 제조업 육성, 인프라 및 디지털 경제 중심의 투자유치 정책과 맞물려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수혜가 FDI의 추가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됨

베트남의 연도별 FDI 순유입액 추이(2000~2024) 출처 : UNCTAD Stat(검색일자 2026.4.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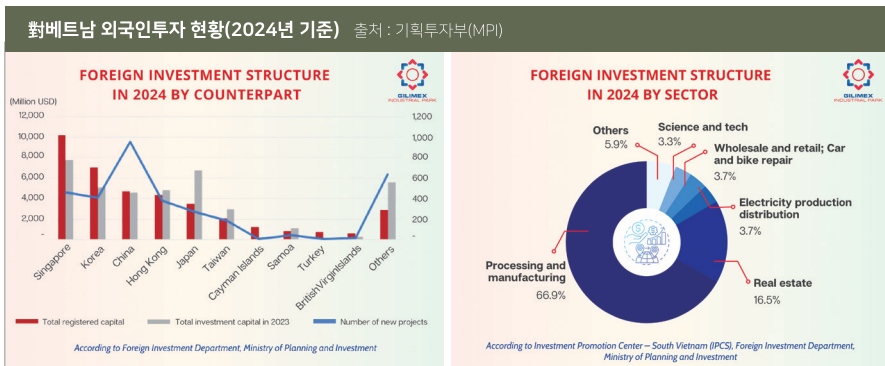


주. 국제수지 기준 순유입 규모로, 정부가 발표하는 외국인투자 등록액·집행액과는 다를 수 있음

- 한편, 베트남 통계청(National Statistics Office, NSO)이 공시한 2024년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을 보면, 등록액 기준 약 382억 달러로 전년 대비 3% 감소하였으나 집행액 기준 약 254억 달러로 9.4%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¹⁵

¹⁵ 2026년 1월 NSO 발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등록액은 약 384.2억 달러('24년 대비 0.5% 증가), 집행액은 약 276.2억 달러('24년 대비 9% 증가)로 최근 5개년 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되나, NSO 통계 DB에 확장·반영되지 않아 본고에서는 2024년 말 기준으로 작성함

- (국가별) 2024년 기준, 싱가포르가 102.1억 달러(전체 등록액의 26.7%)로 최대 투자국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70.6억 달러(18.5%)로 그 뒤를 이었음. 이외 중국, 홍콩, 일본이 주요 투자국으로 집계되었으며, 중국은 신규 프로젝트 수 기준 비중이 높고, 한국은 투자 증액 및 자본투자에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 2024년 기준, 외국인투자 비중이 높은 산업은 가공·제조업으로 255.8억 달러(전체의 66.9%)를 기록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부동산업(63.1억 달러, 16.5%), 전력생산·공급업(14.2억 달러), 도·소매업(14.1억 달러) 등의 순으로 집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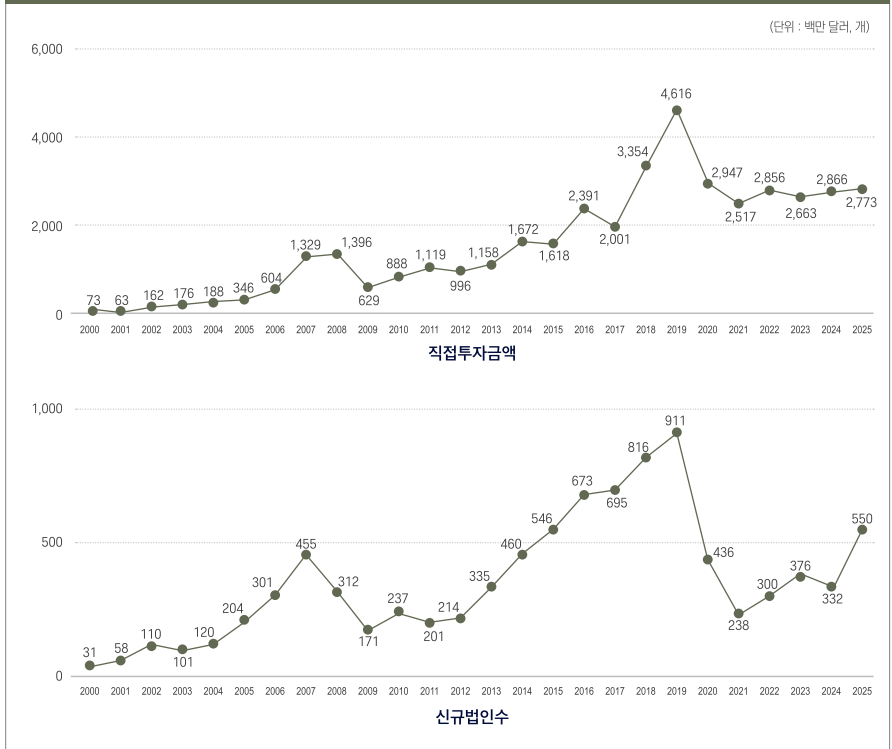


한국의 對베트남 직접투자 현황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에 따르면 2000년~2025년 누계 기준 한국의 對베트남 직접투자금액은 약 414억 달러, 신규 투자법인은 9,183 개사로 아세안 내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나타남
- 2019년에는 약 46.1억 달러(신규법인 911개)로 對베트남 직접투자 최대 투자액수를 기록

한국의 對베트남 직접투자금액 및 신규법인수 추이(2000년~2025년)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검색일자 2026.4.27.)



- 2025년 투자금액 기준 업종별(대분류)로 살펴보면, 제조업(2,036백만 달러), 금융 및 보험업(158백만 달러), 광업(153백만 달러), 정보통신업(96백만 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나 한국의 對베트남 직접투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금융 및 IT 서비스업 분야가 주요 투자 흐름을 주도하는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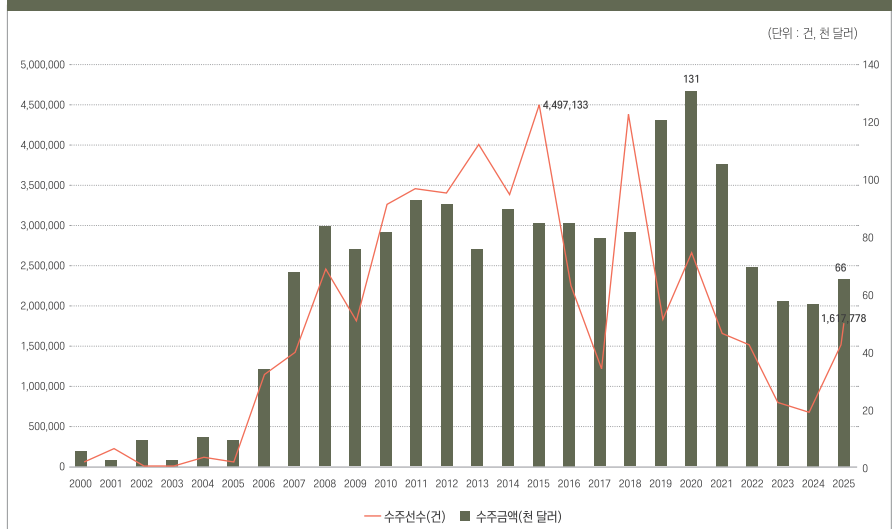
분야(업종대분류)	신규법인수 (개)	투자금액 (백만 달러)	신고건수 (건)	신고금액 (백만 달러)	송금횟수 (건)
농업, 임업 및 어업	4	4	6	3	8
광업	3	153	5	734	73
제조업	193	2,036	859	2,124	1,63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	82	8	194	36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	19	1	20	2
건설업	17	69	27	16	83
도매 및 소매업	139	63	233	60	545
운수 및 창고업	17	37	37	43	61
숙박 및 음식점업	18	10	43	11	52
정보통신업	42	96	81	96	142
금융 및 보험업	6	158	18	220	56
부동산업	2	79	17	94	2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8	27	64	24	2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5	11	24	5	164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	0	0	0	6
교육 서비스업	8	5	19	5	2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	5	3	5	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	5	9	5	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2	5	13	1	63
기타 자료없음(N/A)	9	2	0	0	75
합계	550	2,866	1,467	3,660	3,294

전체 수주 현황

○ 2000년부터 2025년까지의 베트남 수주실적(누계 기준)은 총 1,680건, 약 482억 달러로, 동기간 글로벌 수주총액 약 8,900억 달러의 5.4%, 아시아 지역 수주총액 약 2,760억 달러의 1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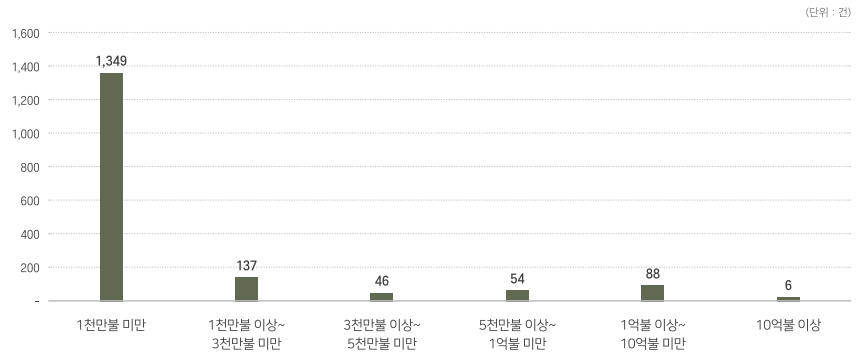
- (규모별) 전체 1,680건 중 1천만 달러 미만 수주 건수가 1,34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억 달러 이상의 대형 수주는 9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 (공종별) 산업설비(전체 수주금액의 45%, 약 215억 달러), 건축(34%, 약 165억 달러), 토목(18%, 약 86억 달러), 용역(2%, 약 11억 달러), 전기통신(1%, 약 5억 달러)순으로 집계

베트남 수주현황(2000~2025) 출처 :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OCIS)의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검색일자 2026.4.27.)



공사규모별 수주 현황(2000~2025 누계)

출처 :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OCIS)의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검색일자 2026.4.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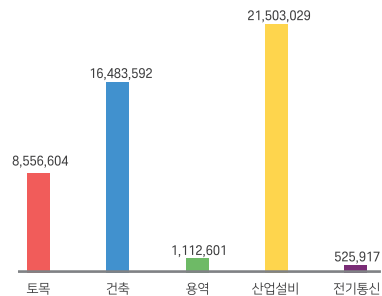


공종별 수주 현황(2000~2025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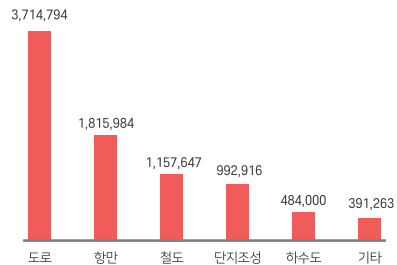
출처 :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OCIS)의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검색일자 2026.4.27.)

(단위 :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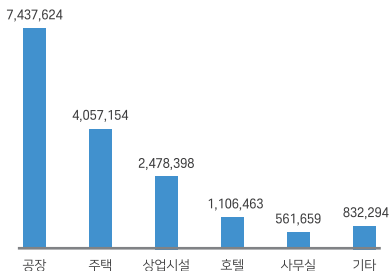
전체공종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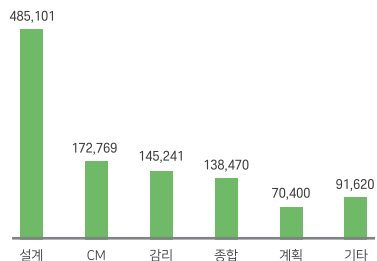
토목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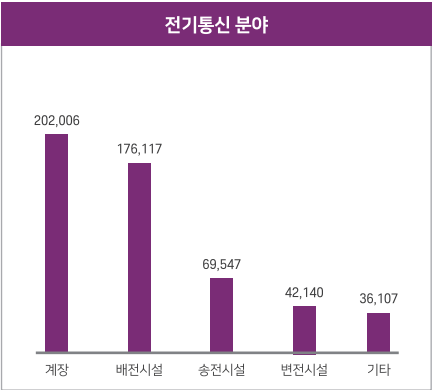


건축 분야



용역 분야





04 對베트남 국제개발협력사업 현황

세계은행 (Worldbank) ○ 세계은행의 對베트남 개발협력프로젝트는 재난대응 및 통합인프라 개발, 에너지, 환경, 물류 분야 등에서 12건이 승인, 추진 중임

[(세계은행) 對베트남 개발협력프로젝트] 출처: Worldbank Projects(검색일자 2026.4.27.)

연번	프로젝트명	승인규모(달러)	승인일
1	Mekong Delta Climate Resilience and Integrated Transformation Project	181,020,000	2026.11.16. (Pipeline)
2	Integrated Resilient Development Project	144,970,000	2025.09.30.
3	Mekong Resilient Regional Connectivity for Three National Highways Project	251,120,000	2026.11.23. (Pipeline)
4	Hai Phong City Resilience Development Project	260,100,000	2026.11.23. (Pipeline)
5	Nghe An Province's Vinh City Priority Infrastructure and Urban Resilience Development Project	129,600,000	2023.07.28.
6	Binh Duong Province's Water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230,763,008	2024.01.12.
7	Vinh Long City Urban Development and Enhanced Climate Resilience Project in Vinh Long Province	100,100,000	2020.06.30.
8	Southern Waterway Corridors and Logistics Development Project	107,000,000	2024.06.21.
9	Vietnam - Dynamic Cities Integrated Development Project	194,360,000	2019.06.11.
10	Vietnam Scaling Up Energy Efficiency Project	11,300,000	2019.06.27.
11	Vietnam Scaling Up Energy Efficiency Guarantee	11,300,000	2019.06.27.
12	Second Ho Chi Minh City Environmental Sanitation Project	419,000,000	2014.12.23.

아시아
개발은행
(Asian
Development
Bank, ADB)

○ ADB의 對베트남 개발프로젝트는, 에너지(22건), 수송(12건), 수자원 및
기타 도시인프라(10건) 분야에서 총 54건의 프로젝트가 승인, 추진 중임

[(ADB) 對베트남 주요 개발협력프로젝트] 출처 : ADB Projects(검색일자 2026.4.27.)

분야	프로젝트명	승인일
에너지 (전체 22건)	Scaling Up Clean Air Actions for Better Health and Resilience	2025.04.25.
	Accelerating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Development in the Asia and Pacific Region	2025.04.09.
	Advancing Energy Transition and Regional Power Trade in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and Southeast Asia	2024.12.17.
	Advance Sustainable Clean Energy Network for Development	2024.06.28.
	Enabling the Development of Inclusive, Resilient, Diverse, and Responsible Critical Minerals and Clean Energy Technology Manufacturing Supply Chains	2024.05.31.
수송 (전체 12건)	Catalyzing Sustainable Transport Initiatives in Asia and the Pacific	2025.05.05.
	Promoting Green Transport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2025.04.15.
	Climate Resilient Inclusive Infrastructure for Ethnic Minorities Project II	2024.12.13.
	Advancing Low Emission Zones in Southeast Asia	2023.11.16.
	Preparing Sustainable Transport Projects in Southeast Asia	2022.12.15.
수자원 및 기타 도시인프라 (전체 10건)	Mainstreaming Innovative Approaches for Green and Resilient Cities through City-to-City Partnerships	2025.12.17.
	Thu Dau Mot Water Expansion Project	2025.05.27.
	Mainstreaming Green, Resilient, and Inclusive Approaches for Cities in Asia and the Pacific	2025.03.17.
	Southeast Asia Resilient and Water Secure Cities Facility	2024.12.12.
	Smart and Livable Cities in Southeast Asia	2022.12.21.

[참고문헌]

- » Worldbank·Australian Aid, 2024, 「Viet Nam 2045: Trading Up in a Changing world」.
- » Worldbank·Australian Aid, 2025, 「Viet Nam Rising: Pathways to a High-Income Future」.
- » Worldbank, 2025, 「Viet Nam Economic Update: Special Focus <Nurturing Viet Nam's High-tech Talents>」.
- » OECD, 2025, 「OECD Economic Surveys: Viet Nam 2025」.
- » KOTRA, 2025. 「2026 베트남 진출전략」.
- »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ERIA), 2023, 「Viet Nam 2045: Development Issues and Challenges」.
- » ESCAP·MPI·UN Viet Nam, 2024, 「Accelerat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Viet Nam: Policy Options」.
- » National Assembly, 2023, 「NATIONAL MASTER PLAN FOR 2021 – 2030 WITH VISION SCHEDULED FOR 2050」.
- » LH토지주택연구원, 2018a. 「해외개발Preview: vol.2 베트남」.
- » LH토지주택연구원, 2018b. 「베트남 산업단지개발 진출전략 수립」.
- » 한국무역협회, 2024. 「베트남 항만 및 해상운송 현황과 전망」.
- » LamDong, “Quy hoạch mạng lưới 43 tuyến cao tốc: Việt Nam hướng tới mục tiêu 5.000 km vào năm 2030”, 2026년 3월 9일자. <https://baolamdong.vn/quy-hoach-mang-luoi-43-tuyen-cao-toc-viet-nam-huong-toi-muc-tieu-5000-km-vao-nam-2030-428834.html>(검색일자 2026.4.17.)
- » Governments News, “Viet Nam targets to have nearly 9,000 km of expressways by 2050”, 2026년 2월 4일자. <https://en.baochinhphu.vn/viet-nam-to-have-nearly-9000-km-of-expressways-by-2050-111260204095419432.htm?>(검색일자 2026.4.17.)
- » KOTRA 해외시장뉴스, 2023. 「베트남의 항만 및 공항 현황」, 2023년 6월 15일자.
- » KOTRA 해외시장뉴스, 2025. 「베트남 개정 철도 개발계획 발표」, 2025년 11월 12일자.
- » KOTRA 해외시장뉴스, 2026. 「베트남, 투자법 전면 개정...첨단산업 중심 선별 투자유치 체계로 전환」, 2026년 3월 31일자.
- » 인사이드비나, “베트남, 2030년까지 전력생산 2배 ↑...8차 국가전력계획 조정안 확정”, 2025년 4월 18일자, <https://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19>(검색일자 2026.4.21.)
- » 법률신문, “베트남 제8차 전력개발계획(PDP8) 개정안 확정”, 2025년 4월 24일자,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474>(검색일자 2026.4.21.)
- » PwC, 2025. 「PwC베트남 뉴스레터: 신규 법인세법의 주요 개정사항」.
- » Reuters, “Vietnam finalising plan for fund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2024년 7월 2일자. <https://www.reuters.com/markets/asia/vietnam-plans-set-up-fund-attract-foreign-investment-says-document-2024-07-02/>(검색일자 2026.4.23.)
- » Vietnam+, “FDI inflows into Vietnam exceed 38 billion USD in 2025”, 2026년 1월 5일자. <https://en.vietnamplus.vn/fdi-inflows-into-vietnam-exceed-38-billion-usd-in-2025-post335419.vnp>(검색일자 2026.4.27.)
- » 한국일보, “이 대통령, 베트남과 정상회담서 ‘호찌민 철도’ 수출 계약...원전 수출 MOU 체결”, 2026년 4월 22일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mp/A2026042216260005584>(검색일자 2026.4.24.)
- » 한국경제, “대통령 “베트남은 사돈의 나라”...무인전동차 수출, 원전도 논의”, 2026년 4월 22일자,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42201191>(검색일자 2026.4.24.)
- » 정책브리핑, “한-베트남, '신규 원전' 개발 협력...자원 안보 협력 방안 모색도”, 2026년 23일자,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3252&pWise=sub&pWiseSub=C6>(검색일자 2026.4.24.)
- » Worldbank Public-Private Infrastructure Advisory Facility(PPIAF) InfraCompass,
- » <https://infracompass.github.org/>

[참고문헌]

- » Mekong Capital, <https://www.mekongcapital.com/>
- » Worldbank PPI, <https://ppi.worldbank.org/en/ppi>
- » 베트남정부포털, <https://www.vietnam.vn/en/>
- »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https://www.mpi.gov.vn/en/>
- » 베트남 재무부(MOF), <https://www.mof.gov.vn/>
- » 베트남 통계청(NSO), <https://www.nso.gov.vn/en/homepage/>
- » 베트남 건설부(MOC), <https://moc.gov.vn/tl/Pages/trangchu.aspx>
- » 베트남공항공사(ACV), <https://acv.vn/en/>
- » 베트남항만협회(VPA), <https://www.vpa.org.vn/>
- » Vietnam Briefing, <https://www.vietnam-briefing.com/>
- » CIA Worldfactbook <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
- » IEA Data and Statistics <https://www.iea.org/data-and-statistics>
- » 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https://energy.ketep.re.kr/globalenergy/site/main/home>
- » UNCTAD Stat <http://unctadstat.unctad.org/>
-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https://stats.koreaexim.go.kr/main.do>
- » 국토교통부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OCIS) <https://www.ocis.go.kr/#tab1>
- » Worldbank Projects <https://projects.worldbank.org/en/projects-operations/projects-home>
- » ADB projects <https://www.adb.org/projects>

주요제도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 국가 정책

도시개발 관련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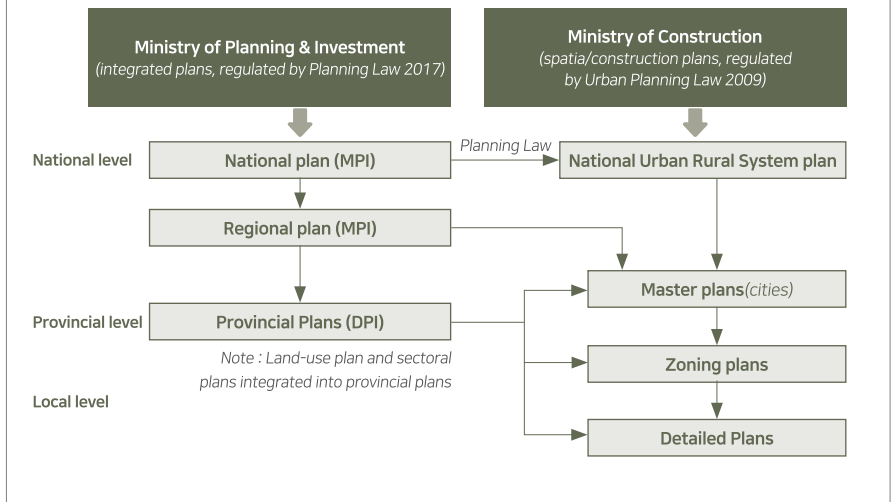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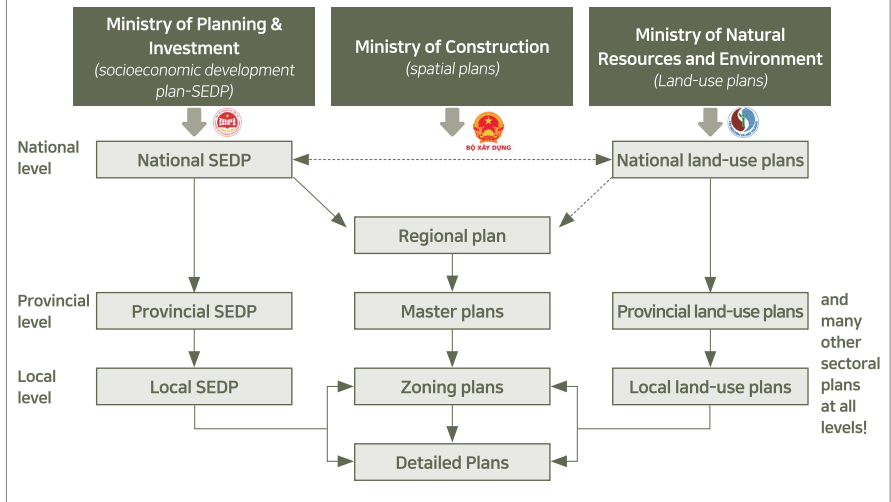
투자유치 관련 제도

IV 주요제도

01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 국가 정책

공간계획 체계

- 최근 베트남은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사회경제개발계획(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과 “공간계획(Spatial Plan)” 체계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을 추진함
 - 사회경제개발계획은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가 수립하며 10년 동안의 ‘개발전략’과 5년을 기간으로 하는 ‘개발계획’으로 구성됨
 - 공간계획은 건설부(Ministry of Construction)가 담당하며, 지역과 도시에 관한 마스터플랜과 세부계획이 포함됨
 - 토지이용계획은 자연자원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의 소관업무로 지방의 지역지구계획과 상세계획에 반영됨
- 기획투자부는 사회개발계획의 초안 작성과 최종 승인 과정에서 다른 부처 또는 기관들과 협력할 책임이 있음
 -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각 부처에 상응하는 부서들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기획투자부에 제안하는 정책들이 국가의 사회개발계획과 공간정책에 통합됨
 - 기획투자부가 지방정부의 제안들을 종합하여 작성한 초안은 각 부처의 협의와 공산당의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됨
- 2019년부터 시행한 2017년 계획법(Planning Law, No.21/2017/QH14)에 의하여 각 부처의 부문별 계획은 기획투자부(MPI) 주도로 수립되는 국가계획과 지역계획 체계로 통합되었음
 - 개정 계획법의 취지는 정부가 수립하는 계획이 일관성을 갖도록 하고 통일된 계획의 수립과 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 건설부는 국가계획에 따라 도시농촌체계계획을, 지방정부는 지역계획에 따라 마스터플랜과 지역지구계획 및 상세계획을 수립함



- 하노이와 호치민과 같은 특별시는 예외적으로 종전 2009년 도시계획법에 의해 수립된 마스터플랜 체계를 유지

○ 2009년에 제정된 도시 및 농촌계획법은 2024년에 개정되었으며, 도시계획의 수립, 평가, 승인 및 조정, 승인된 도시계획의 시행과 관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

- 도시계획의 유형은 기본계획(중앙직할시, 지방도시, 소도시, 마을 및 신도시 대상, master plan), 구획계획(도시, 소도시 및, 신도시 내 지역 대상, zoning plan), 상세계획(도시개발 및 관리 요구사항 또는 건설투자 니즈를 충족해야하는 지역 대상, detailed plan)으로 구분
- 계획대상의 규모에 따라 건설부, 성급(지방) 인민위원회 또는 프로젝트 투자자는 적합한 유형의 도시계획을 마련해야 함
- 기본계획은 사회경제적 개발에 적합하고, 국방, 안보,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는 도시지역의 기술 사회 인프라 시설과 주택의 공간과 체계를 조직하는 계획
- 구획계획은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계획된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내 구역의 사회 기술 인프라 시설망의 사용에 관련된 기능과 규범을 세분화하고 결정하는 계획(구체적 배치계획)을 의미
- 상세계획은 기본계획과 구획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작성하며, 계획된 토지이용, 토지의 각 부지별 건축과 경관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사회 인프라 시설의 마련에 대한 규범을 세분화하고 결정함(특정 프로젝트의 물리적 형태에 초점)
- 2025년부터 기존 도시계획법의 적용 범위가 농촌지역으로 확장되었으며, 도시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계획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관리·공유·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10년 사회경제개발 전략(SEDS) 및 5년 계획 (SEDP)

○ 2021년 1월, 제13차 전당대회에서 베트남 중장기 발전 목표와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21세기 중반까지 '사회주의 지향 선진국 진입' 비전 선포와 동시에 10개년 사회경제개발전략 및 5개년 사회경제개발계획을 승인

- 정부는 건국 100주년인 2045년까지 1인당 GDP 1만 2,000달러의 고소득 선진국으로 도약을 목표로 10년 단위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세부 이행계획으로서 5년 단위 목표 제시
- 사회경제개발전략 2021-2030에서는 경제 목표로 연평균 GDP 성장률 7% 실현, 2030년까지 1인당 GDP 7.5천 달러, 도시화율 50%, 연간 노동생산성 증가율 6.5% 달성, 연평균 에너지 소비율 1~1.5% 감소 등 설정

- 3대 전략적 동력으로 '글로벌 경제 편입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체제(선별적 FDI 유치 및 국영기업 민영화)', '고급 인력 양성', '교통·에너지·IT 인프라 확충' 제시
- 주요 과제로 행정절차 개혁을 통한 영업활동 자유 보장, 디지털 전환 촉진, 외투 기업의 R&D, 혁신센터 설립 장려, 교육기관 품질 개선 및 온라인 교육 강화, 국유기업 구조조정·매각 등 효율 개선, 인프라 개발, 해양 경제 개발 등을 선정

베트남 사회경제개발전략 2021-2030 분야별 주요 목표

출처 : 베트남 정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4, p.33 재인용

2025년 베트남 통일 50주년	2030년 공산당 설립 100주년	2045년 베트남 건국 100주년
중저소득 이상의 개발도상국	상위 중소득 이상의 개발도상국	고소득 선진국

[2021~2030 사회경제개발전략 분야별 주요 목표]

분야	주요 내용
거시경제	· 연평균 GDP 성장률 7%, 제조업·디지털 경제 비중 30% 등
산업	· 혁신·디지털 전환·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 인프라 개발
무역	· FTA 활용을 통한 수출입 시장 다양화. WTO 질서 준수
외교	· 다자 외교 증진 및 다자 기구에 대한 적극적 기여

○ 2021-2025 사회경제개발계획에서 베트남 정부는 향후 5년간 평균 GDP 성장률의 목표를 6.5~7.0%로 설정, 안정된 정치체계를 바탕으로 코로나 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고도성장을 이뤄나가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음

- 2023년에 발표한 2021~2025 사회경제개발계획 중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목표 지표 23개 중 10개 지표가 목표치에 도달했으며, 이외 시행중인 102개의 세부 프로젝트 중 37개는 성과를 거두고 28개 과제는 수정 및 보완되어 행정부에 제출된 상황
- 한계점으로 경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제도적 정책 마련이 느리고 산업 및 서비스 부문에서 여전히 낮은 생산성이나 제한적인 자율성이 지적됨. 베트남 정부는 지난친 신중론 및 소극주의가 적정한 정책 대응 시기를 놓치게 하였다고 지적

○ 2026년 4월 베트남 입법부인 국회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사회경제개발계획을 승인

- 2026-2030 사회경제개발계획의 최종 목표는 2030년까지 세계 30대 경제 대국으로 진입하는 것이며, 현대적인 산업을 갖춘 상위 중소득 국가로 도약하는 것임

- 주요 경제 지표로는 GDP 성장률을 연평균 최소 10% 이상 유지하고 1인당 소득은 2030년까지 약 8,500달러 달성을 목표로 함
- 질적 성장으로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기존의 자본 및 외자(FDI) 의존형 모델 탈피', '과학기술, 혁신 중심의 디지털 경제 전환', '노동생산성 중심의 경제구조 구축' 제시
- 주요 추진 전략으로는 규제 철폐 및 전면적 디지털화를 통해 2028년까지 비즈니스 환경을 ASEAN 톱 3, 글로벌 톱 30으로 견인하는 제도 및 행정 개혁을 추진하고, FDI 유치 방식을 고도화하여 단순 인센티브 위주에서 탈피, 국내 기업과 연계성이 높은 첨단 기술 프로젝트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유치, 2030년까지 고속도로 5,000km 이상 확보 및 고속철도, 국제 항만, 대형 공항 등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국가 데이터베이스 및 대형 데이터 센터 등 디지털 인프라를 전통 인프라와 동등 수준으로 육성하는 계획 등을 제시
- 계획 이행을 위한 당면 과제와 리스크들로 지정학적 위험, 에너지 및 공급망 불안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박, 소기업 중심의 취약한 기업 회복력, 완만한 소득 증가 대비 빠른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보건 및 사회보장 시스템 부담 증가 등이 지적됨

국가 종합 마스터 플랜 2021-2030

○ 중앙정부가 2023년 4월에 발표한 '국가 종합 마스터플랜 2021-2030 (National Master Plan)'은 베트남 정부의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국토의 통합적 개발 모델과 신규 개발지역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을 창출하는데 초점을 둠

- 국가발전에 대한 견해와 국토개발을 위한 공간구조에 대한 견해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며, 사회개발전략 2021-2030의 5가지 전략을 공간적으로 구체화
- 사회경제 활동, 환경보호, 국가 방위 및 안보의 공간 분포를 계획하는 근거로서 개발공간 조직에 대한 관점을 제시
- 2050년까지 고소득의, 공평하고, 민주적이고 문명화된 선진국에 걸맞는 현대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추구(연간 GDP 성장률 6.5~7.5%, 1인당 GDP 27천~32천 달러, 도시화율 70~75% 등)

○ 국가 종합 마스터플랜의 4가지 주요 과제는 4가지로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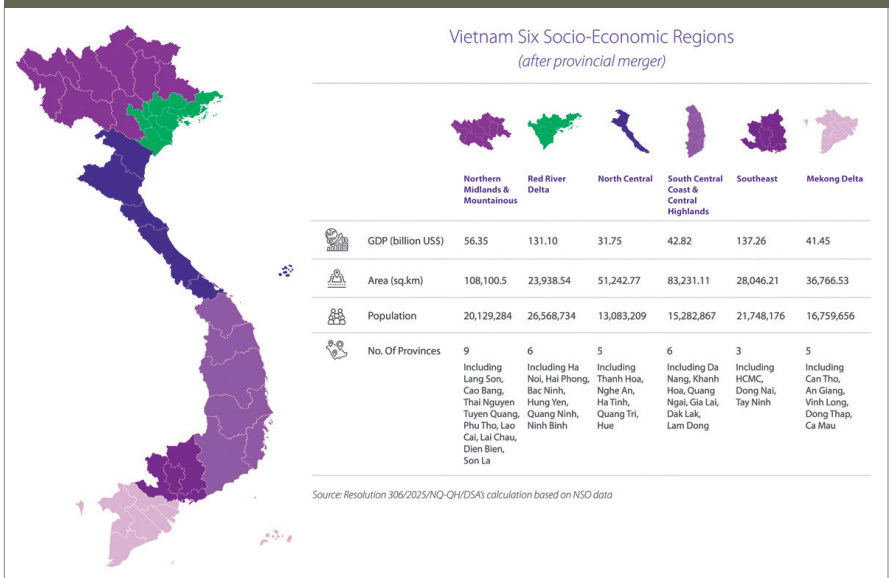
- 교통, 도시, 농촌, 에너지, 디지털, 문화 및 사회 인프라, 수자원 인프라, 환경 보호, 국가 재난 예방 및 통제, 기후 변화 적응에 중점을 둔 국가 인프라 체계 구축
- 성장모델 개편과 관련된 경제 구조조정 가속화. 잠재력과 장점, 충분한 개발 공간을 가진 지역산업 및 부문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새로운 개발 공간과 연계

- 국가 발전을 이끌 중요한 성장동력 구역과 국가 성장축 개발
- 주요 성장동력 구역과 대도시 지역에 대하여 남북축, 동서 경제회랑, 해안 경제벨트, 산업-도시 서비스 벨트를 구축하고 개발

○ 주요 경제부문의 개발, 인프라 부문의 개발, 영토와 지역(region)의 조직과 발전, 국가 성장동력과 경제회랑의 개발, 도시 및 농촌 시스템 발전, 자원 이용과 환경보호, 자연재해 예방과 통제, 기후변화 대응, 국가방위 및 안보에 관련된 공간 배분의 방향을 설정

- 광역권은 북부 산악지역, 홍강델타, 북중부 해안, 중부해안 및 고원, 동남부, 메콩델타 6개로 구분하여 각 지역별 발전방향 제시
- 성장동력 구역은 북부의 하노이-하이퐁-꽁남, 남부의 호치민시-빈즈엉-동나이·바리아-붕따우, 중부의 투아티엔-후에-다낭-꽁남-꽁응아이 개발축과 메콩델타, 하노이, 호치민 시, 다낭, 껀터 등의 성장거점을 포함
- 라오차이-하노이-하이퐁-꽁남, 목바이-호치민시-붕따우를 연결하는 두 개의 동서 경제회랑은 2030년까지 우선 개발

2021-2030 국가마스터플랜의 6개 사회경제지역(광역권) 구분 출처 : 베트남 정부, Vietnam-briefing.com



2030 도시계획, 건설, 관리와 지속가능한 개발 계획

- 2022년 1월에 공산당 정치국은 2045년까지의 비전을 포함하는 2030년까지의 베트남 도시계획, 건설, 관리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전략지침을 발표(Resolution No.06-NQ/TW)
 - 도시화를 가속화하고 전국에 걸쳐 현대적이고 스마트하며 기후 회복력이 있는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국가의 도시체계와 경관을 변화시키기 위한 당의 기초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앙정부(건설부)는 행동계획을 마련하여 구체적이고 정량화된 목표와 전략적 이정표를 설정(Resolution No.80/NQ-CP, 2026년 4월 발표)
 - 2030년까지의 핵심 목표로 도시화율 50% 초과 달성, 도시경제가 국가 GDP의 85% 기여, 도시구역(네트워크)을 1,000개에서 1,200개로 확장,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스마트시티 3-5개, 도시인구 1인당 녹지공간 8-10㎡ 설정
 - 2045년까지의 장기 비전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제도시를 최소 5개까지 보유하는 목표를 세우고 도시화율을 ASEAN 및 아시아 국가의 중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
 - 중점 이행 과제로는 중앙정부 직할시 GRDP의 최대 40%까지를 녹색 및 디지털 경제부문으로 전환하고 기후변화 적응과 회복력에 초점을 맞춘 도시인프라 확충, 도시 및 농촌개발계획을 위한 규제프레임 강화, 프로젝트 중복 방지, 도시 거버넌스 모델 현대화 등의 제도 혁신을 포함

하노이 100년 마스터플랜

- 2026년 1월에 하노이 인민위원회를 통과한 100년을 비전으로 하는 하노이 마스터플랜 결의안이 2026년 5월에 국회의 승인을 받음
 - 이는 2017년 계획법에 따른 수도 계획과 2024년 도시농촌계획법에 따른 수도 기본계획의 이중적인 계획체계를 하나의 마스터플랜으로 통합한 것
 - 하노이 100년 마스터플랜(2026-2125)은 하노이를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인 다핵 중심 메가시티로 전환하는 거대 청사진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AI 기반 디지털 경제, 대중교통 지향 개발(TOD), 지하 및 공중공간 확장에 중점을 둠
- 도시구조를 “중심도시 클러스터” 모델로 바꾸고 새로운 성장거점(9개)과 녹지회랑(9개)을 형성하는 계획을 담고 있음
 - 화락(Hua Lac) 서부 과학기술 도시, 동안-속선(Dong Anh-Soc Son) 북부 공항도시 등이 새로운 성장거점이자 위성도시로 계획되었으며,
 - 홍강을 생태문화축의 중심으로 하여 도시건설용지를 엄격히 제한하고, 환경의 복원능력을 위해 녹지대와 생태공간을 유지
- 교통과 인프라 측면에서는 지하철망을 확장하고 개인 차량을 제한하며 지하공간을 개발하는 계획을 포함
 - 주변 도시와 성을 연결하기 위해 총연장 1,153km의 대규모 도시철도 네트워크 구축
 - 대중교통시스템이 성숙해지는 2035년부터 특정 도심구역 내에 개인차량 운행을 단계적으로 제한
 - 2045년까지 도심 지하공간의 최소 20%를 교통 및 유틸리티 시설로 통합 개발
- 인구상한선과 경제지표를 전략적으로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계획 추진
 - 수도권 인구가 2045년 1,500만~1,600만 명, 2065년에 1,700만~1,90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과밀화를 막기 위해 최종 상한선을 2,000만명 미만으로 설정함
 - 2030년까지 디지털 경제 비중을 지역내 총생산(GRDP)의 40%까지 확대하고, 2065년 이후에는 세계 주요국의 수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메가시티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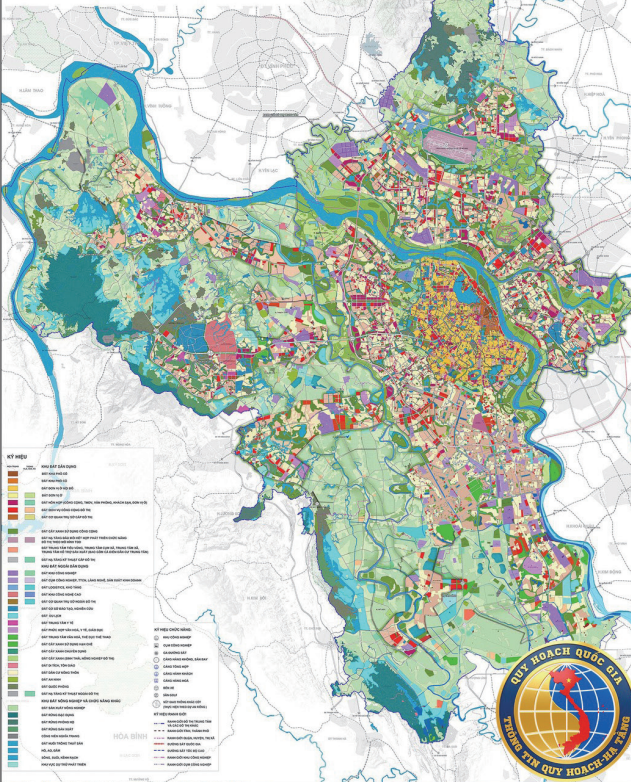
QUY HOẠCH TỔNG THỂ THỦ ĐÔ HÀ NỘI TẦM NHÌN 100 NĂM

BẢN ĐỒ QUY HOẠCH SỬ DỤNG ĐẤ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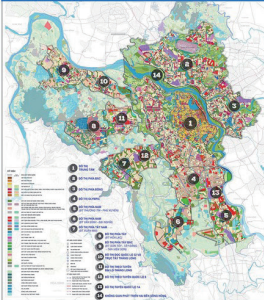
BẢN ĐỒ QUY HOẠCH SỬ DỤNG ĐẤT VÀ PHÂN CHIA CÁC KHU VỰC TRUNG TÂM, TRỤC TUYẾN

(HỒ SƠ PHỤC VỤ LẤY Ý KIẾN THEO CÁC QUY ĐỊNH HIỆN HÀNH VÀ NGHỊ QUYẾT SỐ 84/NG-HĐND NGÀY 13/12/2025 CỦA HỘI ĐỒNG NHÂN DÂN THÀNH PHỐ HÀ NỘ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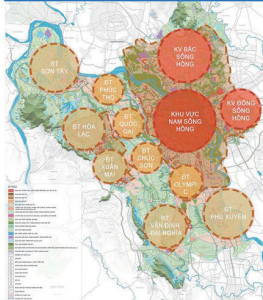
BẢN ĐỒ QUY HOẠCH SỬ DỤNG ĐẤT ĐẾN NĂM 20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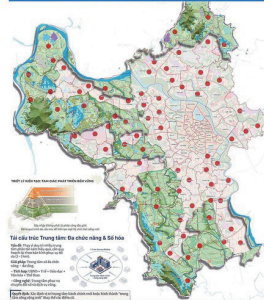
QUY HOẠCH SỬ DỤNG ĐẤT CÁC TRUNG TÂM, TRỤC TUYẾN



QUY MÔ KHÔNG GIAN PHÁT TRIỂN ĐÔ TH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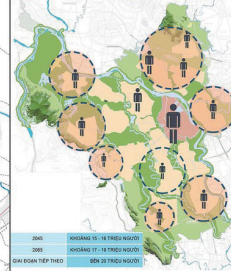


KHÔNG GIAN PHÁT TRIỂN NGOÀI ĐÔ THỊ VÀ TRUNG TÂM CÁC X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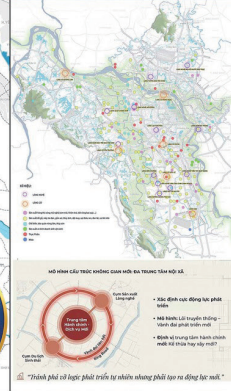


QH-06

QUY DAO QUY MÔ ĐÀN S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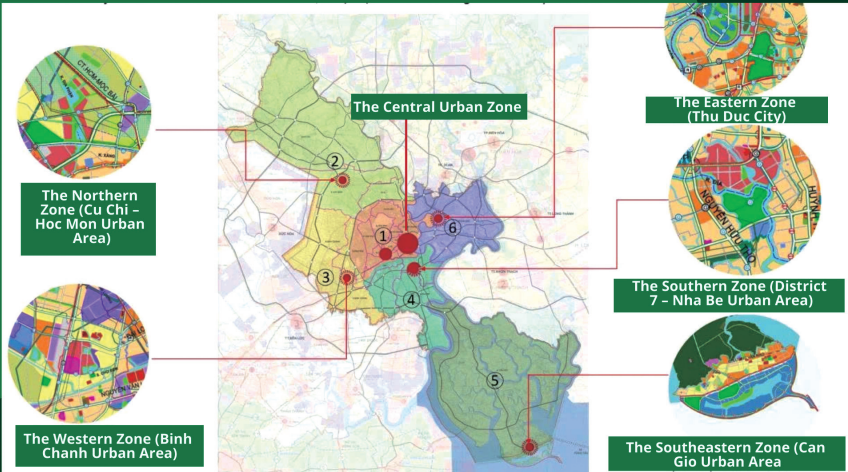
QUY HOẠCH PHÁT TRIỂN HỆ THỐNG LẠNG NGHỀ



호치민시 (HCMC) 마스터플랜

- 2025년 6월 총리는 2060년까지의 비전을 담은 2040 호치민시 마스터플랜 변경을 승인
 - 2060년까지 세계 주요 도시와 견줄 수 있는 문명화되고 현대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아시아의 경제, 금융, 서비스 중심지이자 베트남의 성장거점 및 발전동력 역할 부여
 - 중앙직할특별시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경제·문화·교육훈련·과학기술 중심지로 정의하고, 전국적으로 혁신과 창의성을 촉진하는 선구적 도시, 동남아시아 및 아-태 지역 관광, 금융·무역, 물류서비스 허브, 아세안 지역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발전 기대
 - 인구는 2030년까지 1,100만-1,370만명, 2040년에 1,400만-1,650만명으로 예상하고, 도시건설 부지는 10만-11만ha로 확장 계획
 - 도시공간구조를 지역 대중교통시스템 체계와 연결된 6개 도시구역으로 나눔
 - 주택개발과 관련하여 2030년까지 1인당 평균 주택면적은 약 27-30㎡, 2040년에는 30-32㎡로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도시개발 과정과 연계하여 신규 주택개발의 우선순위를 아파트 단지 건설에 두고, 저렴한 임대주택 재고 확대를 위한 사회주택 기금 조성, 근로자 숙소 및 학생기숙사 조성 계획도 포함
- 6개 도시구역은 중앙 도심, 동부(투독 시티), 서부(빈찬), 북부(쿠치-호크몬), 남부(7구-냐베), 남동부(칸지오) 구역이며, 각 구역에서는 주요 개발지역과 관련된 복합기능을 수행하고 일자리 기회와 고품질 주거환경을 창출하도록 설계됨

Ho Chi Minh City restructured into six urban zones



02 도시개발 관련 제도

공공투자법

○ 공공투자법은 2019년에 제정(No.39/2019/QH14)되었으며, 공공투자
에 대한 국가 관리와 공공투자 자금의 관리 및 사용을 규정

○ 공공투자의 대상(제7조)

- 사회경제적 인프라를 개발하는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로, 국가중점 프로젝트 또는 A그룹 프로젝트(대규모 공공사업)의 경우 보상/지원/이주 및 토지정리 관련 사항을 독립적 프로젝트로 분리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이외에도 국내외의 정부, 비영리단체, 사회정치단체의 서비스 활동, 공공시설, 사회복지서비스 및 물품 공급, 민관협력 프로젝트, 계획법에 따른 계획수립 관련 투자, 기타 총리 결정에 의해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지원 등임

- 공공투자 관리의 원칙(제12조)에서는 투자자금이 관련 법률과 국가의 사회경제개발전략 및 계획에 부합하고, 당국의 책임에 따라 효율적이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규정
- 공공투자 프로젝트의 시행 절차는 시행령에 의하여 규율되는데 중기 투자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른 자금배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정책 결정 절차 등을 내용으로 함
 - 공공조직이 작성한 투자계획은 중앙부처 또는 성급 인민위원회에 보고하고, 기획투자부와 재무부가 모니터링함
 - 공공조직이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보고서 또는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당국에 보고하면, 당국은 자금 균형 유지능력에 대하여 평가심의회 또는 평가기능을 가진 부서의 심사를 받아 결정
 - 건설 구성요소가 있는 경우 건설법의 절차를 준용함
- 2025년에는 공공투자법 개정(No.90/2025/QH15)을 통해 국회에서 승인한 시범 및 특별 메카니즘과 정책이 제도화되고, 권한 분산 및 위임, 국가 및 지방 공기업의 공공투자사업 준비와 자원 개발 및 실행 역량의 질 향상, 해외 공여(ODA) 자본과 우대 대출의 실행 및 배분 촉진, 그리고 절차 간소화 등이 이루어짐
 - 모든 공공프로젝트 유형(A, B, C그룹)에서 보상, 지원, 재정착 및 토지정리 사업을 독립적 프로젝트로 분리
 - 총리가 2개 성급 행정구역을 아우르는 프로젝트 관리기관(성 인민위원회) 지정, 성 인민위원회 주석이 2개 이상 시급 행정구역을 아우르는 프로젝트 관리기관(시급 인민위원회)를 지정하거나 관내 사업 시행 조직 등 권한 재조정
 - 중앙정부 예산을 활용하는 중기 공공투자계획의 조정 권한을 국회상임위원회에서 총리에게로 이양하고, 각 부처 및 중앙 기관, 지방정부 간 권한을 분산
 - 공공투자사업의 자본 규모를 확대하여 국가 중요 프로젝트 규모를 30조 VND 이상, A, B, C그룹 프로젝트 자본 규모도 2배로 확대

민관협력 방식에 의한 투자법

- 2020년 6월에 제정되고 2021년에 시행된 법으로 대규모 투자금을 요구하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적용됨
 - PPP프로젝트의 준비, 투자자 선정, PPP투자기업 및 계약, PPP계약의 이행, 자금조달, 투자혜택 및 보장사항, 감독 및 감사, 유관기관의 권한과 책임, 분쟁해결 등을 규정

- 정부는 PPP형태의 투자에 대해 단일화된 국가관리를 수행하며, 민간협력사업의 관할 기관들은 총리(법률문서 공포, PPP계약해지 등 결정), 기획투자부(PPP 프로젝트 이행에 대한 감독/점검/검사, 정보시스템 관리, 타 기관 협의), 재무부(재원조달, 손익 및 위험분담 관련 제도), 기타 부처 및 성급 인민위원회, 중앙지도위원회(의견제시, 투자감독) 등임
- PPP프로젝트의 투자부문은 운송, 전력망, 발전소, 상수도, 수처리, 보건, 교육훈련, 정보기술/인프라 등이며 PPP프로젝트의 최소투자금은 분야에 따라 다름
- 일반적 PPP프로젝트 절차는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 작성·평가, 투자정책 결정 발표, 타당성 조사보고서 작성, PPP프로젝트 승인, 프로젝트 정보 공개, 투자자 입찰 및 선정, 협상 및 계약 체결, 프로젝트 이행 순서로 진행됨
- PPP프로젝트 회사와 투자자는 프로젝트 종류와 입지에 따라 관련법에 의하여 세금, 토지사용료, 토지임차료 등에 대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최대 4년의 법인세 면제, 최대 9년간의 50% 감면, 10~10%의 법인세율 인하 등
 - 건설기간 동안의 토지임차료 면제, 건설기간 이후 3~15년간의 토지임차료 면제 등
- 2025년에 민간협력 투자법이 개정(No.90/2025/QH15)되어 프로젝트 기업 설립에 대한 예외 조건, 투자자본의 이전 완화, 투자자 선정 및 입찰 관련 조항 수정이 이루어짐
 - PPP 프로젝트 기업 설립 요건에 대한 예외: (i) 국영기업, (ii) BT 계약 프로젝트; 과학기술 PPP 프로젝트, 그리고 (iii) 공공투자법상 그룹 B 또는 C에 해당하는 투자 프로젝트.
 - 개정법에서는 투자자가 주식 또는 자본 기여금 부분을 다른 투자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투자자 파트너십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이전을 허용하도록 완화
 - PPP 프로젝트에 공개 입찰을 적용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투자자 선정에 관한 여러 조항을 입찰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국가와 PPP 투자자 간 수익배분 조항도 수정

건설법

- 건설법은 건설 투자활동과 관련하여 기관/조직/개인의 권리와 의무, 책임, 행정관리에 대하여 규정한 법으로 2014년에 제정되고 2020년에 개정됨

- 건설법의 적용 범위는 투자자본의 성격(민간, 공공)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투자 활동에 대한 국가 행정기관, 단체와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마스터플랜 수립부터 건설 완공과 보증, 유지관리까지 건설사업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함(제2조)
- 건설투자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이 분류(제49조)
 - 공사유형, 서비스 편의시설, 전문성, 관리의 목적에 따라 토목공사, 산업플랜트, 인프라, 교통시설, 농업 및 도서지역 개발, 국방 및 보안, 다기능 건설로 분류
 - 투자금의 출처 및 투자형태에 따라 공공투자, 국가지원, 민간협력, 기타 건설 프로젝트로 분류
- 건설투자 프로젝트 개발절차는 토지를 사용하는 비주거 건설투자 프로젝트의 개발 절차를 말하며,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나 상가와 같은 상업시설, 플랜트나 발전소 같은 공업시설이 해당(제50조)
 - 건설법은 건설투자의 준비 단계(타당성조사, 사업계획, 투자승인 등), 사업추진 단계(현장 준비 및 굴착, 조사설계, 비용 산정, 인허가, 입찰계약, 시공감리, 대금지급 등), 공사완료 단계(계약청산, 준공 처리, 보증, 인계인수 등)에 필요한 업무절차를 규정
- 외국인계약자(건설사업자)의 베트남 내 건설활동을 규정(제110조)
 - 운영허가가 필요한 경우, 프로젝트 관리사무소를 등록하고 관련 정보를 고지할 의무, 기타 인감 등록, 계좌 개설, 세금 납부, 의무 보험, 행정 제재 등에 관한 사항

토지법

- 토지법은 2013년 11월 공포되고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베트남 영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는 자의 권리와 의무, 토지소유제도, 토지의 관리 및 사용제도, 토지소유자에 대한 통합적 관리, 국가의 권한과 책임 등을 규정
- 토지 관련 정부 부처는 자원환경부(토지정책 총괄), 성급 인민위원회(성 단위 토지정책 총괄) 및 지방정부 자원환경국(토지관리 지원, 토지할당/임대/환수 등에 대한 1차 검토), 토지등기소 등임
- 토지법은 토지를 베트남 국민의 소유로, 국가를 소유자의 대표자로 규정하여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토지사용자에게 사용권이 부여됨을 명시(제4조)

○토지사용권자는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 및 임대받거나, 토지사용권을 인정받거나 취득한 자를 의미(제5조)

- 하나의 부지에 다수의 토지소유권자가 존재할 수 있으며, 토지사용권증서 한 부에 같이 기록됨
- 외국투자법인의 토지사용 기간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낙후지역에서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거나 자금회수가 느린 사업일 경우에 70년까지 연장 가능

○외국투자법인은 제한적인 방법으로 토지사용권 취득이 가능함(제169조)

- 외국투자법인이 주택을 건축하여 판매/임대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는 경우
- 외국투자법인이 베트남 정부로부터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목적은 농업/임업/제염업/수산업에 대한 투자프로젝트 시행, 비농업적 사업 및 생산 영위, 상업적 목적의 공공시설 건설, 임대주택 투자프로젝트 시행 등)
- 기타 토지사용권 가치에 해당하는 투자자본금을 받는 경우, 토지사용권을 이용한 자본출자를 통해 합작기업이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분쟁해결이나 경매낙찰, 부동산프로젝트 입찰, 부동산 프로젝트 양수 등으로 토지사용권 취득 가능

○토지가격은 토지가격 결정시점의 토지사용 목적이나 토지사용 기간에 따라 다르며, 양도된 동일 사용목적의 시장가격 또는 낙찰가격(경매), 토지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수입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됨

- 동일한 시점에 동일 목적, 동일한 수익성이 기대되는 인접토지는 동일한 가격수준 적용
- 2020~2024년 표준공시지가에 관한 지침은 2019년 시행령(Decree 96/2019/ND-CP)으로, 하노이, 호치민시 같은 중심도시 표준공시지가는 1㎡당 VND150만~1억6,200만 범위임

○외국투자법인 토지사용권자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 의무를 준수해야 함(제170조)

- 토지의 경계 내에서 적정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되, 지하 공공시설을 보호하고 지하·지상공간 사용에 관한 규정과 관련 법령 준수
- 토지사용권에 대한 신고 및 등록, 토지사용권 이행시 행정절차 준수
- 법에 따른 금전지급 및 완납, 토지보호 조치, 환경보호 규정 준수 및 관련 토지사용권자의 합법적 침해 금지, 지하물체 발견 관련 법규 준수, 국가의 토지환수 결정이나 토지사용기간 종료시 토지반환 등

○외국투자법인 토지사용료와 임대료의 면제 및 감경 관련 규정도 있음(제110조)

- 투자우대분야에 해당하는 생산·경영 목적의 토지사용(상업주택 건설 제외)
 - 주택법 규정에 따른 사회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사용
 - 공항 제반시설의 건축, 항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제반시설의 건축을 위한 토지사용
- 외국투자법인 토지사용료와 임대료의 면제 및 감경 관련 규정도 있음(제110조)
- 2024년 1월 토지법이 개정되었으며(No.31/2024/QH15), 연납 방식의 토지임대료 지급 원칙 명확화(일시납 허용 범위 규정), 토지가격 공시제도 변경, 외국투자기업의 정의와 토지사용권의 양도 규정 신설, 토지저당권자의 범위 확대, 상사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확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짐
-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가 허용된 지 35년이 넘어감에 따라 2020년 투자법과 2024년 토지법은 토지를 사용하는 프로젝트의 운영기간과 토지사용 조건 제한에 관한 조항을 통합함
- 원칙적으로 프로젝트의 토지사용 기간을 프로젝트 운영기간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50년 미만(낙후지역에서 70년 미만) 기간의 토지이용 프로젝트에 대해 사업 운영기간의 조정 및 연장 권리를 부여(최대 토지사용 기간 한도 내)

주택법

- 2005년에 통합적으로 제정되고 2006년에 시행된 주택법(주택법 No.56/2005/QH11)은 주택의 개발, 소유, 관리, 거래, 국가의 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2015년과 2024년에 추가적으로 개정됨
- 베트남 내 주택 및 도시개발에 대한 주무부처는 건설부(MOC)이며, 이외에도 재무부, 기획투자부, 자원환경부, 베트남 중앙은행, 교통부가 관련 부처들임
- 2015년 주택법은 주택의 소유, 개발, 사용관리, 거래, 국가권리, 정부정책, 관리개선을 위한 제도, 외국인의 소유 및 거래, 관련 데이터 및 정보시스템 시행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제1조, 제2조)
- 개정 주택법은 베트남 국적의 단체나 개인을 포함하여 영토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고 소유할 수 있는 해외거주 베트남인과 외국단체 및 개인에게도 적용됨
- 주택법은 합법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에 대한 불가침권, 해당 주택에 대한 증명서 발급 권리, 해당 주택에 대한 매각/매매/양도/판매/임대/증여/교환/상속/담보/자본출자/대여/기거/위탁관리에 대한 권리를 규정(제10조, 제11조)

- 외국인인 주택건설 프로젝트에 투자, 주택건설 프로젝트에 따른 아파트, 개별주택 등 상업주택 매입, 임대매입, 수증, 상속의 형식으로 주택소유가 가능
 - 외국인은 국방 및 안보를 위하여 유보된 지역에서 주택 소유가 불가하며, 아파트 건물 1개동 내 총 세대수의 3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고, 외국인 소유권 한도가 소진된 지역에서는 주택의 증여 또는 상속시 해당 주택의 가액에 대한 권리만 주어짐
- 주택법에서는 토지사용계획, 도시계획, 특정지역계획, 농촌지역 개발계획 등에 따라 정부가 승인하여 주거용 토지를 제공하도록 규정(주택개발정책, 제13조)
- 주택개발정책은 훼손 및 붕괴 위험 지역의 건물에 대한 투자, 계획 등에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개인 및 단체가 임대, 임대후분양, 매각 등의 목적으로 주택개발을 추진하도록 규정
 - 정부는 주택개발정책과 함께 세금감면, 우대이자율 적용 등의 지원사항과 사회주택 관련 혜택에 대한 방침을 발표
- 지방정부는 5년 또는 10년 및 그 이상의 기간에 대한 주택개발 프로그램과 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음(제18조)
- 이를 근거로 각 지역에서 주거용 토지 확보, 건설 및 건축계획, 자원조달, 시장 개발 및 주택사용 관리, 사회주택 등에 관한 정책을 결정
 - 주택개발은 크게 상업주택 개발, 재정착을 위한 주택 개발, 공무원 주택 개발, 가구 및 개인의 주택 개발 유형으로 구분됨
- 2023년 주택법 및 부동산사업법을 개정(2024년 8월 시행)을 통해 복합용도건물 규정 신설, 주거지역 분류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 허용 범위와 양도 제한, 외국인의 주택보유 한도 내 보유기간 연장 허용,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동산사업 및 사회주택사업 허용범위 변경, 사회주택 건설/공급 방안의 탄력적 운용 등이 이루어짐
- 외국인(외국인투자기업 포함)에 주택 보유 한도 내에서 최초 보유기간 50년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50년 보유기간 연장 신청 허용
 - 외국인 투자자 지분을 50% 이하 기업에 부동산 임대사업을 허용
 - 과거 일정 규모 이상 도시지역 주택개발사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주거용 면적의 20%에 사회주택 건설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부지할당 방식 외에도 사업부지 밖에서 사회주택 인프라 구축, 부담금 납부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2025년 5월 국회는 사회주택 개발을 위한 시범 메커니즘에 관한 결의안 (결의안 201/2025/QH15)를 채택, 2025년 6월부터 5년간 사회주택 건설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사회주택 개발의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범 메커니즘 추진

- 정부는 사회주택 건설, 사회주택 사업 시설 건설, 임대용 사회주택 신설을 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주택기금을 설립
- 당국이 입찰 없이 사회주택 프로젝트 개발업자를 지정하거나 투자 정책을 승인하고 프로젝트 개발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부동산 사업법에 따라 부동산 사업에 적용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투자자)
- 사회주택 프로젝트 시행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건설기관의 타당성 조사 보고서 평가, 화재 예방 및 소방 설계 평가 요건을 간소화
- 표준설계(국가 기관이 발표함) 적용, 승인된 농촌 및 도시 계획에 부합하고 화재 예방 및 소방에 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사회주택 건설사업의 인허가 의제
- 기업과 국가 기관이 사회주택 프로젝트 소유주로부터 사회주택을 임대하여 직원들을 위한 숙소를 마련하도록 허용

03 투자유치 관련 제도

외국인 투자 관련법 : 투자법, 기업법

○ 베트남 정부는 2014년에 투자법과 기업법을 개정/공포하여 외국투자의 베트남 내 투자활동에 대한 법적 지위 등을 부여

- 투자법은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 투자형식, 투자분야, 투자지역, 투자우대 및 자원, 직접투자 활동, 해외투자, 투자에 대한 국가관리 등을 규정

○ 투자법에서는 '투자 프로젝트(investment project)'를 특정 행정구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사업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중기 혹은 장기적인 자본투자를 하겠다는 제안의 집합물로 정의

- '투자자(investor)'는 사업투자 활동을 시행하는 조직 또는 개인으로서 국내투자자, 외국투자자, 외국 투자자본을 가진 경제조직을 포함
- '외국투자자'란 베트남 내에서 사업투자 활동을 시행하는 외국국적을 가진 개인 또는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직을 뜻함
- '외국투자 경제조직'은 그 구성원이나 주식 소유자가 외국투자자인 경제조직을 뜻함

○베트남 투자분야는 크게 투자가능 분야와 투자금지 분야로 나뉘는데, 투자가능 분야는 투자금지 분야가 아닌 분야로 간주하면 되며, 이는 다시 일반투자 분야, 투자우대 분야, 조건부 투자 분야 등으로 구분

- 투자금지 업종은 투자법 부록 1, 2에 명기된 각 마약 물질, 화학물질 생산·광물사업, 투자법 부록 3에 명기된 멸종위기 야생 식물·동물 또는 해양동물 취급 사업, 매음(賣淫)·매춘 사업, 장기·인신 매매, 인간의 무성 생식과 관련된 사업활동, 연화(폭죽) 사업, 채권추심업
- 조건부 투자 분야는 베트남의 국방과 안보, 사회질서와 안녕, 사회도덕 또는 공동체의 건강 등의 이유로 그 분야 내에서 투자활동을 시행함에 있어 반드시 일정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분야의 총 267개 업종이 해당되며, 유통, 식음료, 부동산사업 등 대부분의 서비스업을 비롯하여 일부 민감한 제조업도 조건부 투자 분야에 속함
- 조건부 투자 분야에 대한 사업투자 조건은 법률, 법령, 명령 및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비준한 국제조약에 규정됨,

○투자법에서 정한 투자우대 적용의 형식과 대상은 다음과 같음

- 투자우대의 형식은 i)일정한 기간 또는 프로젝트 시행기간 동안 일반 세율보다 낮은 기업소득세 세율을 적용하거나 기업소득세를 감면, ii)고정자산을 조성하기 위해 수입된 재화, 투자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원료/자재/부품에 대한 수입세의 면제, iii)토지임대료 및 토지사용료의 감면
- 투자우대를 받는 대상은 i)투자우대 분야에 속하는 투자 프로젝트, ii)투자우대 지역에서 시행하는 투자 프로젝트, iii)자본규모가 6조 베트남동 이상이고, 적어도 6조 베트남동이 투자등록증 발급일 또는 투자의향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집행되는 투자 프로젝트, iv)5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촌지역에서의 투자 프로젝트, v)첨단기술 기업, 과학기술 기업, 과학기술 단체

- 구체적 투자우대 분야와 투자우대 지역은 아래 표와 같음

투자우대 분야	· 첨단기술 활동, 첨단기술 소재부품산업 제품; R&D 활동 · 신물질, 신에너지, 청정에너지, 재생에너지의 생산; 30% 이상 부가가치가 있는 상품의 생산; 에너지 절약 상품 · 핵심 전자제품, 기계제품과 농업용 기계류, 자동차, 자동차 부품의 생산; 조선 · 식물과 섬유산업, 가죽과 신발류 산업의 소재부품산업 제품의 생산 · 정보기술 제품, 소프트웨어 제품, 디지털 콘텐츠의 생산 ·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의 경작과 가공; 조림과 산림보호; 재엽; 수산개발 및 어업지원 서비스; 종묘, 육종, 바이오기술 제품의 생산 · 폐기물의 수집, 처리, 재활용 또는 재사용 · 사회기반시설의 개발, 운영, 관리에의 투자; 도시지역에서 대중 여객운송의 개발 · 취학전 교육, 의무 교육, 직업 교육 · 진료와 치료; 의약품과 의약품 원료, 필수 의약품, 성병 예방 및 치료제, 백신, 생약, 약초로 만든 약품, 한약 등의 생산; 신약 생산을 위한 제약기술, 바이오 기술에 관한 연구 · 장애인 또는 전문체육인을 위한 체육시설에의 투자; 문화유산의 보호와 발양 · 노인센터, 정신건강센터, 고엽제환자 치료센터; 노인, 장애인, 고아를 위한 돌봄센터 · 국민 신용기금, 미소 금융기관
투자우대 지역	· 사회경제적 낙후지역 또는 특별 낙후지역 · 산업단지(IZ), 수출가공공단(EPZ), 첨단기술단지(HTZ), 경제구역(EZ)

○ 투자계획은 공공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총리의 투자의향 결정권한에 속한
프로젝트와 성급 인민위원회의 투자방침 승인이 필요한 프로젝트로 구분됨

총리의 승인을 받는 프로젝트	· 산간지역에서 1만명 이상, 그 밖의 지역에서 2만명 이상이 이주·재정착을 요구하는 투자계획안 · 공항·비행장, 공항·비행장 활주로, 국제공항 여객 터미널, 매년 수용력이 100만톤 이상인 공항·비행장 화물터미널의 신규 건설 투자계획안 · 항공여객운송 사업의 신규 투자계획안 · 선착장, 특별항구에 속하는 선착장, 1급 항구에 속하는 2조 3천억 동 이상인 투자자본금의 규모를 가진 선착장·선착장구역의 신규 건설 투자계획안 · 석유·가스 가공 투자계획안 · 도박·카지노 사업 투자계획안 (외국인을 위한 상금을 주는 온라인게임 사업 제외) · 대규모 주택 및 도시 건설 투자계획안 · 산업단지, 수출가공구역의 기반시설 건설 및 사업 투자계획안 · 네트워크 기반시설을 갖추는 통신서비스, 산림 조성, 출판, 언론 사업분야에서의 외국투자자의 투자계획안 · 2곳 이상의 성급 인민 위원회의 투자방침 승인권한하에 있는 투자계획안 · 법률 규정에 따라 정부 총리의 투자방침 승인 또는 투자결정 관할하에 있는 그 밖의 투자계획안
성급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프로젝트	· 경매나 입찰 과정 없이 국가로부터 토지 교부나 임대를 요구하거나 양도를 받는 투자계획안, 토지 이용 목적의 변경을 요구하는 투자계획안. 단, 개인이나 가구에 대한 토지 교부나 임대, 토지 이용 목적 변경이 아닌 경우에 한함 · 토지사용 규모가 300헥타르 이상이거나 인구 50,000명 이상인 주택(매매, 임대, 임대 구매), 도시 지역 건설에 대한 투자 계획안. · 골프장 건설 및 사업 투자계획안. · 외국투자자나 외국투자자본을 보유한 경제 단체가 도서, 국경지역 마을·읍·동 및 해안지역 마을·읍·동, 국방·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그밖의 지역에서 실행하는 투자계획안.

○베트남 국회는 2025년 12월, 행정절차의 간소화, 분권화 강화, '사전 승인 중심' 규제에서 '사후 점검 중심' 관리체계로 전환을 통해 행정의 현대화와 전략 분야에서의 국가 발전을 지속 추진하려는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투자법 개정(2026년 3월 시행)

- 투자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전략 산업 추가: 디지털 인프라(데이터센터, 클라우드, 5G), 반도체 및 AI 산업, 첨단 기술 및 혁신 기반 인적 자원 교육, 대중교통 및 도시 인프라
- 특별 인센티브 대상 단체 범주 추가: 주요 디지털 기술 제품 제조, 반도체 칩의 연구개발/설계/제조/패키징/테스트, 인공지능 데이터 건설 프로젝트 투자자
- 전략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투자증명서(IRC) 발급 절차 완료 전에 경제조직 설립 허용
- 디지털 전환 우선순위에 맞춰 조건부 사업 분야에 암호화폐 자산 관련 서비스, 개인정보 처리 서비스를 추가하고 도시철도 운영 사업은 제외함
- 프로젝트 운영기간 조정의 유연성 부여, 특별 투자절차(Special Investment Procedures) 적용범위 확대, 투자정책 승인 대상 프로젝트 명시 및 승인권한 재배분 등

경제특구, 수출가공공단 및 산업단지

○경제특구(EZ, Economic Zone)는 투자유치, 지역사회경제발전, 국방 안보 등을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해안경제특구와 국경경제특구로 구분됨

- 베트남에는 2024년 5월 기준 17개 지방성시에 18개 해안경제특구(871,523ha)와 17개 지방성시에 26개 국경경제특구(766,000ha)가 계획·조정·운영되고 있으며, 해안경제특구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베트남 중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수출가공공단(EPZ, Export Processing Zone)은 수출품 제조 및 관련 서비스에 특화된 공단으로 입주기업은 다양한 혜택을 적용받음

- 수출가공공단 내 기업은 수출가공기업(EPE, Export Processing Enterprise)으로 구분됨
- 수출가공기업이 제조 목적으로 수입한 원재료, 기계장치에 대한 수입관세는 면제되며, 매입부가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
- 별도의 요건을 갖추면 일반 산업공단에서도 수출가공기업을 설립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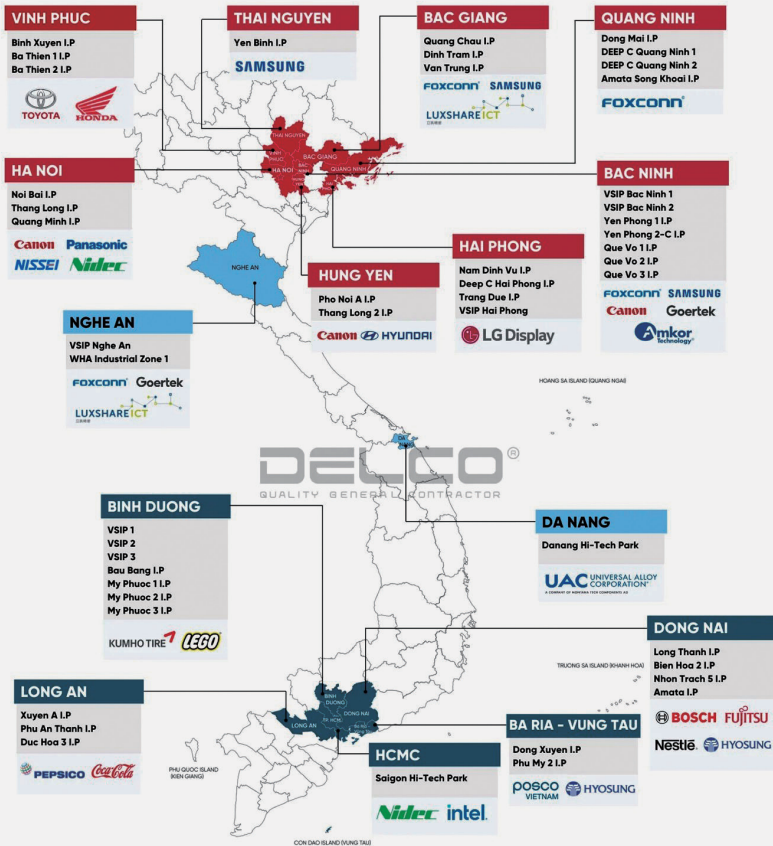
○ 2024년 5월 기준 기획투자부(MPI)와 지방 기획투자국(DP)가 관리하는
산업단지는 전국 63개 성시 중 61개 성시에 414개가 존재

- 전체 면적은 128,126헥타르(ha)에 이르며, 그 중 산업용 토지는 89,126ha
- 293개 산업단지가 인프라 투자가 완료되어 운영중이고, 나머지 121개 산업단지는 토지보상 및 인프라 투자 단계에 있음
- 가동중인 293개 산업단지의 입주율은 약 74%
- 산업단지 밀집도가 가장 높은 5개 성시는 동나이성, 빈증성, 호치민시, 롱안성(남부), 박닌성, 박장성, 하이퐁시(북부)로 나타남
- 특히, 베트남의 최대 도시인 하노이, 호치민시 인근 지방성시의 산업단지 입주율은 전국 평균치 보다 높은 약 90%이며, 남부 빈증성, 동나이성에 소재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입주율은 약 95%
- 최근 중화권 국가들(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의 對베트남 투자진출이 증가하면서 산업용 토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문제로 인프라 투자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신규 산업단지 공급 부족 및 임대료 지속 상승 추세 나타남

○ 2026년 초에 베트남에서 운영중인 산업단지는 61개 성·시(통합 전)에
걸쳐 620개로 늘어났으며, 지역별로는 북부지역에 248개, 중부지역에
170개, 남부지역에 202개임

- 베트남부동산협회(VNREA)가 2025년 발간한 부동산 연감에 따르면 2030년까지 31개 지역에서 221개(72,967ha) 신규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있으며, 17개 지역에서 76개 산업단지가 확장되고 6개 지역의 22개 산업단지가 조정계획을 진행

MAP OF VIETNAM'S KEY INDUSTRIAL ZONES



*This map shows key industrial zones only, not a full listing.

[참고문헌]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4, 「2024 베트남 비즈니스 팁」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4, 「2025 베트남 진출전략」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4, 「KOTRA 국가정보: 베트남」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5, 「2025 베트남 비즈니스 팁」
- » 법무법인[유] 지평, 2024a, 「베트남 개정 토지법 소개」
- » 법무법인[유] 지평, 2024b, 「베트남 개정 주택법과 부동산사업법 소개」
- » 법무법인 유한 율촌, 2026, 「베트남 개정 투자법 주요 내용(Law No.143/2025/QH15)」
- » 이상현 외, 2022, 「K-스마트시티 사업추진 전략 수립 연구: 베트남을 사례로」, LH토지주택연구원.
- » 해외건설협회, 2022, 「베트남 진출전략」
- » PHAM Thai Son, 2023, 「Toward Integrated Planning: Recent Institutional Reforms in Spatial Planning of Vietnam」, The 5th Spatial Planning Platform of Institutional Strengthening and Capacity Building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in Vietnam (ISCB project).
- » <https://delco-construction.com/en/list-of-industrial-zones-in-vietnam/>
- » <https://delco-construction.com/en/map-of-vietnams-key-industrial-zones/>
- » <https://dulongip.vn/en/handbook/list-of-industrial-parks-in-viet-nam.html/>
- » [https://e.vnexpress.net/news/news/hanoi-adopts-100-year-master-plan-resolution- 5010860. html](https://e.vnexpress.net/news/news/hanoi-adopts-100-year-master-plan-resolution-5010860.html)
- » [https://en.baochinhphu.vn/ho-chi-minh-city-restructured-into-six-urban-zones- 111250625155146687.htm](https://en.baochinhphu.vn/ho-chi-minh-city-restructured-into-six-urban-zones-111250625155146687.htm)
- » [https://en.nhandan.vn/viet-nam-targets-at-least-five-internationally-recognised-cities- by- 2045-post160789.html](https://en.nhandan.vn/viet-nam-targets-at-least-five-internationally-recognised-cities- by-2045-post160789.html)
- » [https://en.tapchiconsan.org.vn/web/english/focus/detail/-/asset_publisher/FMhwm2o- QCZEZ/content/viewpoints-objectives-and-key-orientations-outlined-in- vietnam-s-national- master-plan-for-2021-2030-with-vision-to-2050](https://en.tapchiconsan.org.vn/web/english/focus/detail/-/asset_publisher/FMhwm2o-QCZEZ/content/viewpoints-objectives-and-key-orientations-outlined-in-vietnam-s-national-master-plan-for-2021-2030-with-vision-to-2050)
- » <https://english.luatvietnam.vn/>
- » [https://moc.gov.vn/en/_layouts/15/NCS.Webpart.MOC/mt_poup/Intrangweb.aspx?IdNews= 93377](https://moc.gov.vn/en/_layouts/15/NCS.Webpart.MOC/mt_poup/Intrangweb.aspx?IdNews=93377)
- » [https://theinvestor.vn/vietnam-aims-to-become-one-of-worlds-top-30-economies- by- 2030-d18960.html](https://theinvestor.vn/vietnam-aims-to-become-one-of-worlds-top-30-economies- by-2030-d18960.html)
- » <https://vietnamlawmagazine.vn/ho-chi-minh-city-plans-to-become-global-modern-and- inclu- sive-metropolis-74433.html>
- » <https://www.asean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6169>
- » <https://www.frasersvn.com/legal-updates-and-publications/Major-legal-shifts-for-strategic- investors-highlights-of-vietnam-s-law-no-90>
- » <https://www.vietnam-briefing.com/news/vietnams-industrial-zones-2025-2030-growth- out- look.html/>
- » <https://www.vietnam.vn/ko/dinh-huong-dot-pha-cho-tuong-lai-ha-noi>
- » <https://www.vilaf.com.vn/blog/legal-bulletin-july-2025/>

P 해외개발
review

개발 사례

최근 베트남 진출 현황

하노이 북부 스마트시티
(North Hanoi Smart City)

베트남 흥옌성 클린산업단지
(한-베 경제협력 산업단지)

01 최근 베트남 진출 현황

일본 :
Sumitomo
Corporation

하노이 북부 스마트시티(North Hanoi Smart City)

- 스미토모 상사는 2018년 6월 하노이시 인민위원회로부터 투자등록 증서를 수령, 베트남 대기업 BRG그룹과의 합작법인을 통해 2019년 하노이 동아인 지구에서 '하노이 북부 스마트시티(North Hanoi Smart City)' 사업을 착수
 - 규모 및 투자액 : 총 투자규모 42억 달러, 면적 약 272ha
 - 구성 : 주거·상업·IT산업단지·의료복합시설·테마파크 등을 포함하는 복합 신 도시로 5단계에 걸쳐 개발
 - 스마트시티 요소 : 스미토모는 BRG그룹과 함께 에너지 관리, 탄소중립을 목표로 인근 탕롱 산업단지와 연계한 MOU를 체결, 베트남 최초의 탄소중립 도시를 목표로 함
 - 전력 공급 : 인근 산업단지의 태양광·바이오매스 발전을 통해 도시 전력 수요의 30~40%를 자체 충당할 계획이며, 2026년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
 - 완공 목표 : 2032년 말

탕롱 탄호아 산업단지(Thang Long Thanh Hoa Industrial Park)

- 스미토모는 최근 베트남 중부 탄호아성에 1억 1,580만 달러 규모의 '탕롱 탄호아 산업단지(Thang Long Thanh Hoa Industrial Park)' 1단계 착공식을 진행. 운영기간 50년으로 첫 단계는 167ha 규모이며, 하이테크 및 자원산업 투자자 유치를 목표로 함
- 스미토모는 이 외에도 하노이(탕롱 1), 흥옌성(탕롱 2), 푸토성(탕롱 3)에 산업단지를 운영 중으로, 입주기업들의 누적 투자액이 60억 달러를 넘고 약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

벨기에 : DEEP C Industrial Zones

- 1997년부터 벨기에 투자기업 Deep C Holding(구 Rent-A-Port)이 베트남 현지 브랜드 'DEEP C'로 하이퐁시와 꽝닌성에 총 3,400ha 이상의 산업단지 클러스터를 개발해 왔으며, 현재 5개 친환경 산업단지(Eco Industrial Parks)를 운영
- 최근 주요 확장 내용
 - DEEP C 꽝닌 I·II 확장 : DEEP C 꽝닌 II에 대한 투자 증서가 발급되고, 이어 DEEP C 하이퐁 III 산업단지 착공 및 DEEP C 하이퐁 II 공식 개장이 이루어졌음
 - 친환경 산업단지 전환 : DEEP C는 베트남에서 최초로 국제기준에 의거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한 산업단지 개발사로, 친환경·재생에너지·폐플라스틱 재활용 도로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시행
 - 규모 및 입주 현황 : 현재까지 총 152개 투자 프로젝트, 총 등록 자본금 55억 달러를 유치했으며, 이는 플란데런(벨기에 북부) 기반 기업의 베트남 최대 투자 사례임

싱가포르 : Sembcorp Development / VSIP

- VSIP는 싱가포르 Sembcorp Development와 베트남 국영기업 Becamex IDC의 합작으로, 1996년 1호 산업단지 설립 후 2018년 이후에도 대규모 확장을 지속
- 최근 신규 개발 사례
 - 2020년 9월 VSIP 빈딘 산업·도시 단지가 착공에 들어갔으며, 이후 투자유치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입증
 - 2022년 10월, 베트남 메콩델타 지역의 중심 도시 켄터에 293.7ha 규모의 VSIP 켄터 산업단지 투자 허가가 발급
 - 2023년 8월 29일, 켄터, 박닌, 응에안에 신규 VSIP 4개를 추가 발표
 - 2024년, 태빈성(333ha), 꽝응아이 II(498ha), 빈투언(468ha) 등 3개 신규 VSIP에 대한 투자 허가를 취득
 - 2025년, 남딘성(180ha)과 응에안 III(180ha)에 신규 VSIP 2개를 추가하여, 전체 VSIP 수를 20개로 늘림
- 전체 현황 : 현재까지 VSIP는 30개국 970개 기업에서 234.5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고, 32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영국 유로머니(Euromoney)지가 2008년부터 2024년까지 '최우수 산업단지 개발사'로 선정

싱가포르 : GLP·SLP

-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글로벌 물류·부동산 기업 GLP는 2020년 SLP(SEA Logistic Partners)와의 합작법인을 통해 베트남 시장에 진출, 2022년 1월 투자 규모 11억 달러의 'GLP 베트남 개발 파트너스 I (GLP VDP I)' 펀드를 조성
 - 이 펀드에는 네덜란드 연금펀드 APG 에셋 매니지먼트와 매뉴라이프 등 아시아·유럽·북미·중동의 기관투자자들이 참여
 - GLP VDP I 은 하노이 광역권과 호치민 광역권에 현대적이고 친환경적인 물류 시설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총 면적 약 90만㎡에 달하는 6개의 개발부지를 확보하고 향후 추가 개발 기회를 위한 탄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음
- 하이퐁 덩부-캇하이 경제구역에 SLP 파크 하이퐁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는 대지면적 190,100㎡, 연면적 88,810㎡ 규모의 첨단 물류시설로 하노이~하이퐁 인근 항만 물류 수요를 겨냥

태국 : WHA Corporation

- 태국 최대의 산업단지·물류 통합개발 기업 WHA는 2018년 이후 베트남에서 본격적인 산업단지 개발을 진행
- WHA는 베트남 응에안성 동남경제구역 내에 1단계 498ha(총 3,200ha 계획)를 100만 달러 투자로 개발하는 'WHA 산업단지 1'에 대해 베트남 당국 허가를 2017년 취득, 2018년 이후 1단계 조성을 본격 진행
 - 이 단지는 1A 국도와 하노이-호치민 철도 인접, 빈 국제공항 10km, 심해항 3개 인근이라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음
- 이후 WHA는 탄호아성 티에우호아 지역에 룡두이장 산업단지(300~400 ha), 룡꽁탄 산업단지(300ha), 물류서비스 단지(50ha) 등 추가 1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신규 투자계획을 발표

사례 종합

국가/주체	프로젝트명	유형	규모/투자액	시기
일본 Sumitomo Corporation	하노이 북부 스마트시티 (North Hanoi Smart City)	신도시	272ha / 42억 달러	2018 허가 2019 착수
일본 Sumitomo Corporation	탕롱 탄호아 산업단지 (Thang Long Thanh Hoa IP)	산업단지	167ha / 약 1.16억 달러	2025 착공
벨기에 DEEP C Holdings	DEEP C 산업단지 클러스터 (Haiphong II · III, Quang Ninh I · II I)	산업단지	총 3,400ha / 55억 달러(누적)	지속 확장 (2018~)
싱가포르 Sembcorp / VSIP	VSIP 빈딘, 켄터, 태빈, 광응아이 II, 남딘 등	산업·신도시	총 18개 신규 VSIP (2018 이후 추가)	2020~2025
싱가포르 GLP·SLP	SLP 파크 하이퐁·박닌 등 (물류단지)	산업단지	총 1.5백만㎡ 개발 목표 / 펀드 11억 달러	2020 진출 2021 착공
태국 WHA Corporation	WHA 산업단지 1 (응에안성) 탄호아성 추가 2개 계획	산업단지	총 2,100ha (계획) 1단계 498ha / 1억 달러	2018~ 본격 조성

사업 위치도 출처: 구글 지도



시사점

- 개발 방식 : 일본(스미토모), 싱가포르(Sembcorp·GLP)는 현지 대형 국영 또는 민간 파트너사와 합작법인(JV)을 구성하는 방식을 택했고, 벨기에(DEEP C)와 태국(WHA)은 사실상 독자 개발 또는 소규모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 방식을 주로 사용
- 차별화 전략 : 일본은 스마트시티·탄소중립 기술을 전면에 내세웠고, 싱가포르 VSIP는 산업단지와 주거·상업 복합 신도시 모델(Integrated Township)을 강점으로 삼음. 벨기에 DEEP C는 친환경 에코산업단지(Eco-IP) 인증을 베트남 최초로 획득하며 지속가능성을 브랜드화
- 입지 전략 : 기존에 집중됐던 하노이·호치민 인근 남부·북부 핵심지역 외에, 2018년 이후에는 탄호아·응예안 등 베트남 중북부 지역으로 개발축이 확산되는 경향

02 하노이 북부 스마트시티(North Hanoi Smart City)

프로젝트 개요

- 하노이 북부 스마트시티(North Hanoi Smart City, 이하 NHSC)는 베트남 하노이시 동안현(Dong Anh District) 일대에 조성되는 총 투자규모 42억 달러의 대규모 복합 스마트시티 개발 프로젝트임
 - 본 사업은 베트남의 대형 민간 복합기업인 BRG그룹과 일본의 종합상사인 스미토모 코퍼레이션(Sumitomo Corporation)의 합작법인인 NHSC가 시행
- NHSC는 2023년 11월 11일 공식 착공식을 개최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 날은 베트남과 일본의 수교 50주년(1973~2023)을 기념하는 상징적인 날이기도 함
 - 총 9년 동안 5단계에 걸쳐 개발이 진행되며, 최종 완공 목표는 2032년 4분기임
- 프로젝트는 인더스트리 4.0 기반의 6대 스마트 솔루션(에너지·모빌리티·관리·생활·경제·의료/교육)을 도시 전반에 적용하여, 동남아시아(ASEAN)를 선도하는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를 목표로 함

[하노이 북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기본 현황]

구분	내용
프로젝트명	하노이 북부 스마트시티(North Hanoi Smart City)
시행사	NHSC(North Hanoi Smart City Development Investment JSC)
출자사	BRG그룹(베트남) + 스미토모 코퍼레이션(일본)
위 치	베트남 하노이시 동안현(Dong Anh) - 하이보이, 빈응옥, 김노3개 지역
사업면적	약 272ha
총 투자금액	42억 달러
사업기간	9년(2023~2032년), 5단계 추진
착공일	2023년 11월 11일
목표 인구	A지역 약 11,200명, B지역 약 9,900명(계획 기준)
핵심 랜드마크	108층 금융·상업복합센터(베트남 최고층 빌딩 예정)

위치 및 입지 여건

○ 하노이 북부 스마트시티는 하노이시 동안현 내 하이보이(Hai Boi), 빈응옥(Vinh Ngoc), 김노(Kim No) 등 3개 코뮌(commune) 일대 약 272ha 부지에 위치

- 홍강(Red River) 북쪽 연안에 자리하며, 띠엔교(Nhat Tan Bridge) 기슭과 탕롱교(Thang Long Bridge)-롱비엔교(Long Bien Bridge) 사이에 보응웬지압도로(Vo Nguyen Giap)를 축으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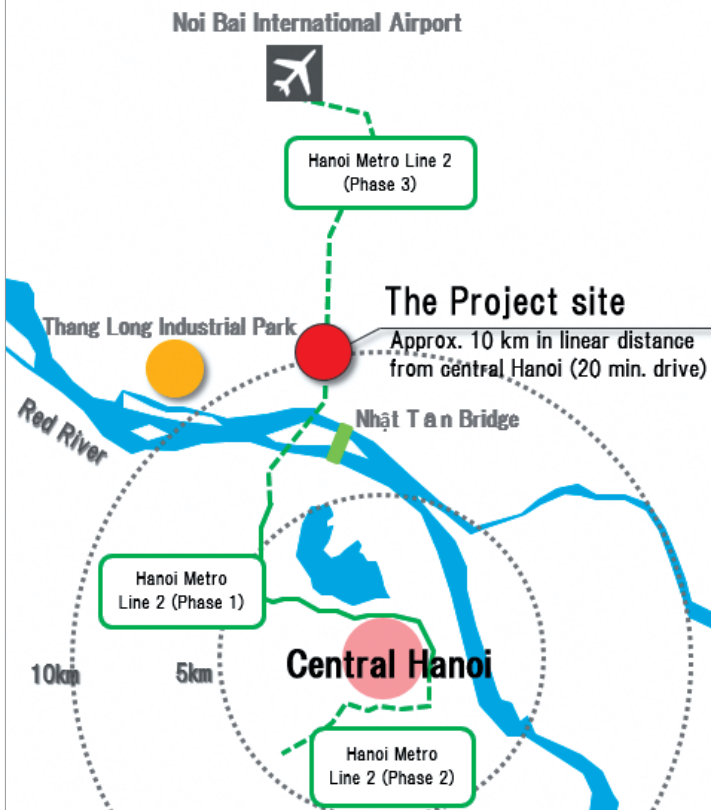
○ 해당 입지의 교통적 장점은 탁월함

- 보응웬지압도로는 하노이 도심의 서호군(Tay Ho)과 노이바이 국제공항(Noi Bai International Airport)을 직결하는 간선도로로, 공항 접근성이 매우 우수
- 또한, 향후 하노이시 광역 대중교통망(도시철도·BRT 등) 확장 계획과의 연계도 예정되어 있어, 중장기적으로 교통 허브 기능을 갖출 것으로 기대

○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즈엉득뚜언(Duong Duc Tuan)은 착공식에서 이 프로젝트가 '하노이 도심과 서호군, 노이바이 국제공항을 이어주는 핵심적인 입지'에 자리하고 있다고 강조

하노이 북부 스마트시티 위치도

출처 : <https://www.sumitomocorp.com/en/jp/news/release/2019/group/12490>



사업 주체 및 거버넌스

NHSC 합작법인

- 본 프로젝트의 시행 주체는 NHSC(North Hanoi Smart City Development Investment Joint Stock Company)로, BRG그룹과 스미토모 코퍼레이션이 공동 출자한 합작법인임

BRG그룹(베트남)

- BRG그룹은 베트남 하노이에 본사를 둔 대형 민간 복합기업으로, 부동산 개발, 금융, 호텔·리조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
 - 하노이 시내 대규모 부동산 및 호텔 개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베트남 도시개발 시장에서 높은 신뢰도와 네트워크를 갖춘 기업

스미토모 코퍼레이션(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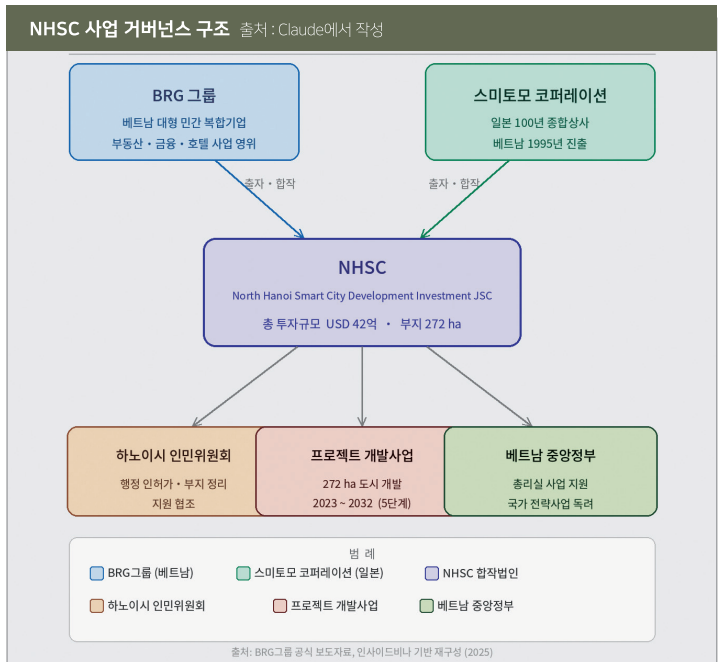
○ 스미토모 코퍼레이션은 1919년 설립된 일본의 대형 종합상사로, 1995년 베트남에 진출

- 베트남 내 주요 참여 사업으로는 탕롱 산업단지 I·II(하노이·흥옌), 호치민시 도시철도 1호선 고가구간 공사, 파라이·푸미·유엔하이 화력발전소 등
- 스미토모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NHSC 사업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

정부 지원

○ 베트남 팜민찐(Pham Minh Chinh) 총리는 스미토모 인프라 사업부 유키히토 혼다(Yukihito Honda) CEO와의 면담에서 NHSC 사업의 조속한 완공을 촉구하며 '베트남·일본 문화 융합의 상징'으로 이 사업의 국가적 중요성을 강조

-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역시 토지 인허가 절차와 부지정리 지원을 위해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음



단계별 개발 계획

○ NHSC 프로젝트는 총 9년(2023~2032) 동안 5개 단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개발

- 1~4단계(약 7년)에서는 주거·공공·교육·교통·녹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5단계(2030~2032)에서는 108층의 핵심 랜드마크(금융·상업 복합센터 등) 시설이 완공될 예정

[NHSC 5단계 개발 계획]

단계	면적(ha)	기간	주요 개발 내용
1단계	72.7 ha	2023~2025	부지 조성, 녹지·기반시설 구축, 주거용지 착공
2단계	67.5 ha	2025~2027	학교·공원·주차장 등 공공편의시설, 주택 단지 개발
3단계	65.7 ha	2027~2029	상업시설, 의료·교육기관, 스마트 인프라 확장
4단계	30.2 ha	2029~2030	복합문화시설, 호텔, 업무지구 등 도시기능 완성
5단계	35.3 ha	2030~2032	108층 핵심 랜드마크(금융센터, 복합쇼핑몰 등) 완공

○ 전체 개발면적 272ha는 구역A와 구역B로 세분화

- 구역A는 약 11,200명의 인구를 수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푸엥짱 호수 주변 수목 및 산책로 체계가 재정비됨
- 구역B는 약 9,900명의 인구를 수용하며, 건물 층고가 25층에서 45층으로 상향 조정되어 주거 고밀도화가 이루어짐

○ 사업의 핵심 랜드마크인 108층 규모의 '퍼엥짱 타워(Phuong Trach Tower)'는 완공 시 베트남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될 예정으로, 금융·상업·복합 기능을 담는 하노이 북부의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

하노이 북부 스마트시티 조감도 출처 : <https://www.nhsmartcity.com/en/galleries-image-category/project-image>



6대 스마트 솔루션

○ NHSC는 인더스트리 4.0 기술을 기반으로 도시 전 영역에 걸쳐 6대 스마트 솔루션을 체계적으로 적용

- 이는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 아닌 '도시 혁신 플랫폼(Urban Innovation Platform)'으로서의 도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기존 개발사업과 차별화

○ 특히, 스마트 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도입하고, 에너지 소비를 실시간으로 가시화하는 관리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

-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온디맨드 교통 서비스와 전기차(EV) 충전 인프라를 도시 전역에 배치
- 스마트 관리 분야에서는 통합 관제센터를 통해 도시 전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재난 대응 체계를 운용

[NHSC 6대 스마트 솔루션]

스마트 솔루션	주요 기능 및 내용
스마트 에너지	태양광 발전 설치, 에너지 배분 최적화, 에너지 소비 가시화 시스템
스마트 모빌리티	온디맨드 교통 서비스, 스마트 주차장, 전기차 충전 인프라, 자율주행 연계
스마트 관리	통합 관제센터(도시 모니터링), 재난대응 시스템, 공공서비스 디지털화
스마트 생활	타운 마일리지 프로그램, 커뮤니티 허브, 아동 안심 모니터링, 환경 모니터링
스마트 경제	관리비 디지털 결제, 자동화 결제 시스템, 리빙랩(Living Lab) 운영
스마트 의료·교육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디지털 교육 플랫폼, 원격진료 인프라 구축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성 전략

○ NHSC는 베트남 최초의 탄소중립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음

- BRG그룹, 스미토모 코퍼레이션, NHSC, 탕롱 산업단지(TLIP) 등 4개 기관은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Asia Zero Emission Community(AZEC) 리더스 미팅에서 탈탄소화를 위한 에너지 관리 MoU를 체결

○ 스미토모의 타카시 야나이(Takashi Yanai) 산업단지·지속가능도시 사업부문 대표는 '스미토모 그룹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발전 및 에너지 절감 솔루션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이클을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음

- 이는 베트남 정부의 2050년 Net-Zero 공약과도 궤를 같이 함

○지속가능성 전략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 비중 확대 및 지역냉난방(DHC) 시스템 도입
- 탕롱 산업단지(TLIP)와의 통합 에너지 관리를 통한 광역 탈탄소화 모델 구축
- 녹지·공원 확충으로 도시 탄소흡수원 강화
- 전기차 중심의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으로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추진 현황 및 주요 과제

추진 현황

○2023년 11월 착공 이후, 프로젝트는 부지정리 및 기반시설 공사 단계를 진행 중

- 착공 당시 전체 부지의 약 92%에 달하는 부지정리가 완료된 상태였으며, 2024년 하반기 기준 하노이시 건설국 보고에 따르면 여전히 부지정리 단계가 진행 중이며, 스미토모 측은 하노이시에 토지할당 절차와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의 신속한 지원을 요청

주요 과제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인 만큼 다음과 같은 과제와 리스크 요인이 존재

- 행정 인허가 절차 지연: 부지정리, 토지사용 허가, 건축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공사 지연 가능성
- 대규모 투자금 조달: 42억 달러에 달하는 사업비의 안정적 조달 및 자금 회수구조 확보
- 주민 이주 및 보상: 대규모 부지조성에 따른 기존 거주민 이주와 적정 보상 문제
- 스마트 인프라 운영 역량: 완공 후 6대 스마트 솔루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 역량 확보
- 시장 흡수 능력: 고급 주거·상업 시설의 베트남 현지 시장수요 충족 여부

기대 효과 및 의의

○하노이 북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단순한 부동산·도시개발을 넘어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기대 효과를 지님

- 하노이 도심 과밀 완화: 동안현 일대의 계획적 개발을 통해 하노이 구도심의 교통·주거·환경 과밀 문제를 분산시키는 역할
- 베트남-일본 경제협력 강화: 본 프로젝트는 베트남·일본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상징적 사업으로, 양국 민간 투자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

- 스마트시티 기술 이전 및 확산 : 인더스트리 4.0 기반의 6대 스마트 솔루션은 베트남 내 여타 신도시 개발에도 참조될 수 있는 표준 모델로 기능
- 하노이 국제 경쟁력 제고 : ASEAN 선도 수준의 세계적 스마트시티 조성을 통해 하노이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 탄소중립 선도 모델 : 베트남 최초의 탄소중립 도시를 목표로 하는 NHSC는 아세안 지역의 지속가능 도시개발 벤치마크로 주목

03 베트남 흥옌성 클린산업단지(한-베 경제협력 산업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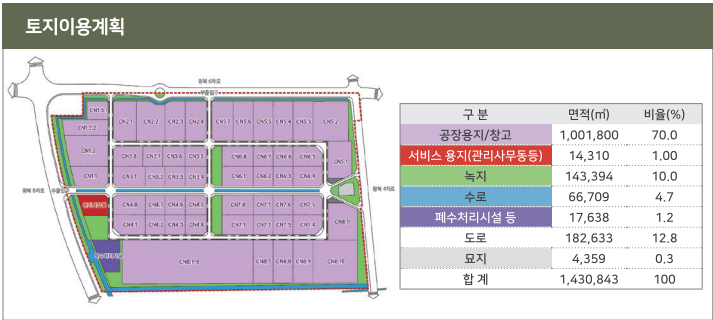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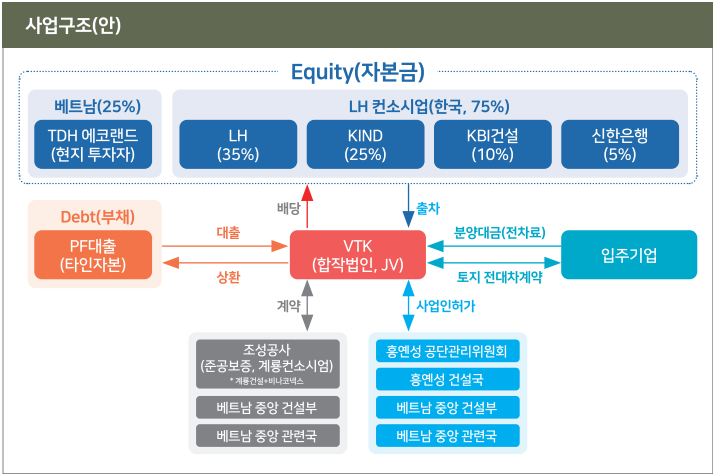
사업 개요

- 흥옌성 클린산업단지는 하노이 도심으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30km 떨어져 있으며,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와 인접해 있음
 - 북쪽으로 노이바이 국제공항, 동쪽으로 깃비국제공항 및 하이퐁항으로의 접근성이 우수
 - 향후 4번 순환국도의 개통이 이루어질 경우, 베트남 북부지역 경제벨트 내에서 하노이-박닌성-흥옌성 간 연결이 개선되어 물류 측면에서 지리적 이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위치 : 베트남 흥옌성 리트엥켓 지역
- 사업규모 : 1,431천㎡ (약 43만평)
- 사업주체 : 현지합작법인(VTK)
 - * LH컨소시엄(75%)+베트남 현지투자자(25%)
- 사업비 : 1,114억원 (준공이후 관리운영비제외)
- 사업내용 :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베트남 내 한국형 산단 조성 및 운영



사업구조(안) 및 토지이용 계획



사업추진 과정

MOU 체결 및 투자정책승인 신청

○ LH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산단 개발 추진을 위한 후보지 발굴 등 노력을 기울이던 중, '17년 3월, 베트남 홍연성 정부로부터 약 900만 평 규모의 홍연성 리트윅팅 산업도시 관련 개발협력 요청을 받아 LH-홍연성-현지 디벨로퍼 VIHAJICO, 3자간 MOU 체결('17.4월)을 계기로 클린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검토를 시작

- MOU 체결 후 같은 해 7월 리트엡캣 산업도시 내 LH 사업참여 구역 선정을 위한 MOM 체결 당시, 클린산단(당초 45만 평)을 비롯해 산단1구역(45만 평)과 도시구역(110만 평) 등 약 250만 평 규모를 대상으로 선정, 이후 '18.2월 클린산단과 산단1구역을 우선사업지구로 선정하고자 VIHAJICO의 자회사인 TDH에코랜드사와 MOA를 체결
- 한-베트남 경험산단 조성사업은 베트남 흥옌성 및 민간사와의 개발협력에 관한 포괄적 MOU를 계기로 시작되어, 이후 17년 '신남방정책' 및 '19.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당시 양국 정상 간 협력 의제로 채택되면서 G2G 사업으로 격상
- '19.1월 LH와 에코랜드는 흥옌성 클린산업단지 143ha를 우선 추진하기로 협의하고, 현지 수요조사용역(CBRE 시행) 후 이듬해 현지 개발계획(D/P, '20.6월) 승인 및 예비사업시행약정(PIA) 체결('20.8월) 후 현지 투자허가를 위한 투자정책결정(IPD) 신청을 완료
- 투자정책결정(IPD)은 현재 투자정책승인(IPA)으로 명칭 변경

합작법인 설립

- 투자정책결정 신청 후 LH는 합작법인(JV) 설립을 위해 '20.12월 LH 컨소시엄을 확정
- LH컨소시엄의 출자비율은 LH 35%, KIND 25%, KBI건설 10%, 신한은행 5%
- 이후 '21.1월 LH컨소시엄과 TDH에코랜드 간 합작투자 근거 마련 및 역할 분담 등을 규정한 합작투자계약(JVA)을 체결
- 투자정책승인 후인 '21.9월 현지 합작법인 VTK를 설립하여 클린산단의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조성공사 시행

- 클린산업단지 조성공사는 계룡건설이 현지 VINACONEX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함으로써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사업 수주를 지원하였음
- VTK는 계룡컨소시엄과 '22.8월 계약체결(9,817억 VND, VAT 제외)을 통해 9월 착공하여 '24년 말 일부 조정 공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프라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듬해 6월 흥옌성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득함으로써 조성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음

클린산업단지 운영관리

○ '25.6월 준공검사 완료 후 클린산업단지는 '26.5월 기준, 한국기업 22개사 31필지 공급을 포함, 총 37개사와 47필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누적 공급률 87%를 달성

- 현재 14개사(15필지)가 공장설립을 완료하였고, 8개사(10필지)가 공사 중

[홍연성 클린산업단지 공급(계약) 현황, 2026년 5월 기준]

구분	계	한국	베트남	싱가폴	대만	중국
업체(필지)	37(47)	22(31)	12(12)	1(1)	1(2)	1(1)

[홍연성 클린산업단지 한국기업 진출현황 및 산업 입주가능 업종]

연번	업체	업종	면적(m)	입주가능업종
1	비나텍	2차전지	170,744	디지털기기(하드웨어)
2	KBI로지스	물류	49,589	
3	에이텍	ATM	31,276	
4	ACE헬스케어	의료기기	22,967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컨텐츠
5	유창	건축자재	21,855	
6	삼흥사	가스실린더	21,422	
7	한미ADM	자동차부품	19,830	자동차, 오토바이 및 부품
8	상아프론테크	플라스틱부품	27,814	
9	신화콘텍	전자부품	15,888	
10	바이오다인	의료기기	15,600	산업로봇 제작용 부품
11	운영	전자부품	10,655	
12	유니팩	포장자재	9,845	
13	3H	플라스틱레진	14,687	산업 보조 제품
14	베스텍	점착테이프	10,000	
15	NSV	방진장치	9,999.5	
16	한코연마	연마지	10,000	화장품 및 약품
17	TNC	전자부품	10,655	
18	삼진테크	전자부품	10,655	
19	아이캡코리아	방화용자재	10,000	에너지 저감제품 및 기타 적격업종
20	원일특강	철강	10,000	
21	REF코리아	냉동기기	10,000	
22	신한세라믹	세라믹부품	10,000	
22개사 31필지			523,481.5	

○ 흥엔성 클린산업단지는 입주기업을 위한 전기, 인터넷, 상수/하수처리 등 안정적인 인프라 및 행정·노무·세무 등에 대한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

- VTK에서는 베트남 진출 초기 인허가 절차(투자등록증, 법인설립, 토지사용권증서 발급 등) 관련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협력업체를 통한 노동자 고용 및 HR서비스 지원 및 주베트남 대사관과 협업하여 찾아가는 세무·노무 간담회를 개최
- 또한 산단 내 한식당 및 케이터링 서비스, 체육시설을 포함한 다목적 시설을 구비하여 산단 입주기업 편의를 위한 부분에서도 노력을 기울임

[흥엔성 클린산업단지 인프라 현황]

전기	용수	하수처리	통신	데이터센터
37.4MVA	6,300m ³ /일	4,100m ³ /일	IDD 및 광섬유 720회선	무정전전원장치 (UPS) 140-rack(42U) 규모

[흥엔성 클린산업단지 주요 원스탑서비스]

- 투자등록·기업설립 관련 행정업무 지원, 토지사용권증서 발급 대행
- 수출, 포워딩 등 물류서비스 (협력업체)
- 노동자 고용 및 HR서비스 지원 (협력업체)
- 저리 금융지원(신용보증기금, 신한은행), 입주기업 설립시 역외계좌 개설 등 상담
- 이동식 케이터링 서비스 및 한식당 운영
- 찾아가는 세무·노무 등 상담서비스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협업)
- 흥엔 KOCHAM(한국기업인연합회) 정례 개최
- 축구장, 테니스장, 바베큐장 등 다목적 시설 구비

흥엔성 클린산업단지 현황 사진



전체 조감도



문주 및 VTK 관리사무동



클린산업단 표지석



입주기업



주간선도로 및 중앙수로



체육시설 등 다목적 휴게공간



폐수처리시설



IT 서비스 센터



소방시설

[참고문헌]

- » <https://smartcity.go.kr>
- » <https://www.nhsmartcity.com/en>
- » <https://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25735>
- » <https://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41>
- » <https://goodmorningvietnam.co.kr/mobile/article.html?no=68837>
- » <https://www.goodmorningvietnam.co.kr/news/article.html?no=79808>
- » <https://e.vnexpress.net/news/news/hanoi-launches-4-2b-smart-city-project-4675810.html>
- » <https://theinvestor.vn/sumitomo-asks-hanoi-to-help-meet-deadlines-of-42-bln-smart-city-project-d12732.html>
- » <https://www.etnews.com/20230712000075>
- » <https://www.sumitomocorp.com/en/jp/news/release/2019/group/12490>
- » <https://www.brggroup.vn/brg-group-and-sumitomo-corporation-officially-announce-implementation-of-north-hanoi-smart-city-d482>
- » <https://vir.com.vn/sumitomo-brg-consortium-announce-plans-for-north-hanoi-smart-city-106784.html>
- » <https://theinvestor.vn/sumitomo-eyes-more-energy-railway-smart-cities-opportunities-in-vietnam-d16427.html>
- » <https://asia.nikkei.com/business/energy/japan-s-sumitomo-to-supply-power-for-its-vietnam-smart-city>
- » <https://theinvestor.vn/sumitomo-starts-work-on-116-mln-industrial-park-project-in-central-vietnam-d18588.html>
- » <https://theinvestor.vn/sumitomo-to-break-ground-on-111-mln-industrial-park-project-in-central-vietnam-early-next-year-d17779.html>
- » <https://vir.com.vn/sumitomo-explores-investment-in-thanh-hoa-province-103153.html>
- » <https://deepc.vn/en/about/about-deepc>
- » <https://www.deepcholding.be/>
- » <https://theinvestor.vn/belgium-invested-industrial-zone-deep-c-begins-expansion-in-haiphong-city-d6610.html>
- » <https://vir.com.vn/the-trend-of-building-large-scale-ecological-industrial-zones-at-deep-c-114078.html>
- » <https://www.vsip.com.vn/NewEvent/NewDetails?newsId=5397>
- » <https://www.sembcorp.com/news-and-insights/news/2024/sembcorp-strengthens-its-vietnam-singapore-industrial-parks-portfolio-in-vietnam/>
- » <https://www.sembcorp.com/media/ufpnipo2/sembcorp-and-becamex-partnership-expands-to-20-vietnam-singapore-industrial-parks.pdf>
- » <https://en.vietnamplus.vn/vsip-expands-industrial-park-development-in-vietnam-post312319.vnp>
- » <https://business.amchamvietnam.com/list/member/vietnam-singapore-industrial-park-vsip-433>
- » <https://www.glp.com/global/article/glp-launches-11-billion-aid-for-vietnam-logistics-development-fund>
- » <https://www.mingtiandi.com/real-estate/logistics/glp-vietnam-joint-venture-slp-breaks-ground-in-haiphong/>
- » <https://theinvestor.vn/thai-industrial-developer-watches-eyes-second-vietnam-facility-by-end-2024-d8974.html>
- » <https://vietnamnews.vn/economy/1690539/wha-group-to-invest-1-billion-in-vietnam-s-industrial-real-estate.html>
- » <https://vir.com.vn/wha-group-accelerates-expansion-in-vietnam-with-two-industrial-zones-128737.html>
- » <https://vir.com.vn/whas-nghe-an-iz-opens-to-global-investment-shifts-79059.html>

지난 호 목록



Vol.1 2018. 9
인도(India)



Vol.2 2018.12
베트남(Vietnam)



Vol.3 2019. 6
미얀마(Myanmar)



Vol.4 2019. 12
볼리비아(Bolivia)



Vol.5 2020. 6
인도네시아(Indonesia)



Vol.6 2020. 12
러시아(Russia)



Vol.7 2021. 7
쿠웨이트(Kuwait)



Vol.8 2021. 12
페루(Peru)



Vol.9 2022. 6
파키스탄(Pakistan)



Vol.10 2022. 12
태국(Thailand)



Vol.11 2023. 7
사우디아라비아
(Saudi Arabia)



Vol.12 2023. 12
우크라이나(Ukraine)



Vol.13 2024. 6
폴란드(Poland)



Vol.14 2024. 12
르완다(Rwanda)



Vol.15 2025. 6
필리핀(Philippines)



Vol.16 2025. 12
몽골(Mongolia)



Vol.17 2026. 6
베트남(Vietnam)

P 해외개발
review





P 해외개발 review